

시로 읽는 성보순례
분황사 석탑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신라시대 ▶2면

# 현대불교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칭찬하라.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수행도지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윤 3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7 호 2012년 5월 9일 수요일


#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 손 놓고 있는 불교계

## 가정의 달 맞아 살펴본 노인 포교 현주소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노인인구는 5백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한다. 여기에 은퇴 연령을 맞은 1차 베이비 붐 세대들이 합류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 인구의 포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는 미비하기만 하다.

현재 고령 인구를 위한 대부분의 불교계의 사업은 복지사업에 치중돼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편람(2006)〉에 따르면 불교계 노인복지 시설은 요양시설(37곳)이 가장 많았고, 주간보호시설(34곳), 무료급식소(29곳), 노인복지관(22곳)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이 마음놓고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하거나 계층법회를 볼 수 있는 사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적지 않은 사찰들이 간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오래전부터 노인 사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당 노인대학 설립이다. 1976년 공항동 성당에 처음 노인학교가 설립됐고, 이는 노인대학으로 발전했다. 1981년에는 각 성당 부설 노인대학을 총괄하는 기관인 '노인대학연합회'가 설립됐다. 현재는 서울대교구에만 66곳, 인천·수원교구에 7곳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도 6천여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불교계 일선 사찰들도 고령인구를 위한 수행·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로 복지관 사업 위주**
**일선사찰 일회성 경로 행사**
**가톨릭 성당마다 노인대학**
**노인위한 신행·법회 필요**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은 "학인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사찰마다 남은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라도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불자들이 타종교 요양시설로 가서 개종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해 노인법회를 봉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스님은 "노인들의 신행활동과 복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법회는 계층 간 동질감과 자부심을 찾게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 신행과 복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각 스님은 "스님들의 의식도 문제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며 "불교가 종교의 몫을 다하려면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신행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다고 주장했다.

각현 스님도 "현 사찰 구성원을 가지고 이 같은 차별화 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라며 "사찰들이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신중일 · 정혜숙 기자

#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세민·정련·지성 스님

## 원로회의 제39차 회의서 선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세민 스님, 정련 스님, 지성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으로 총 24명이 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9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원로의원 선출, 기타 사항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번에 선출된 세민 스님은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은사로 195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백양사에서 21안거를 성만했다. 제8, 9,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조계사, 경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심호계위원,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이사, 삼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혜수스님을 출가한 정련스님은 1958년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이사,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 종단 중책을 역임했다. 현재 내원정사 주지, 동국대 이사장, 동아대 의과대학 발전재단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세민 스님


정련 스님


지성 스님

지성스님은 1959년 동화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7, 8, 9,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나눔의자비공동체 함께하는세상'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연등회보존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 문화재청, 인정서 조계종에 전달
## "사찰음식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계종문화부장 진명스님에게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를 전달했다.

진명스님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가 전통이 잘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찬 문화재청장도 "이제는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넓혀 사찰음식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4천4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 안녕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2일 조계사 일원에서 '제5회 불교아동미술 큰잔치'를 개최했다.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불교계 영유아보육시설 원생 7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연꽃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불교중앙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원생들이 조계사 법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흑석 어린이집 김바다(6·여) 원생이 대상(총무원장 상)을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MB정부, 성탄절만 사면 있나

## 청와대 브리핑서 "부처님오신날 사면 없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간지 등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5월 1일 열린 브리핑에서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자승스님은 같은 날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현 정부에서 실시하게 될 마지막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2천만 불자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자와 쌍용차 한상균 노조 지부장은 사회갈등 해소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석방 노력을 해 온 대표적 구속자이므로 이번 특별사면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요청 한바있다.

**참여정부 3회 특별사면**
**조계종, "대책 논의 할 것"**

이와 함께 특별사면의 기준에 대한 종교편향 논란도 점화될 전망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9, 2011년 성탄절 특별 사면만 두 번에 걸쳐 이뤄졌을 뿐이다. 2011년 성탄절에는 가수 신정환 씨를 비롯해 762명이,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반면 이전 노무현 정부에는 2003, 2004, 2005년에 걸쳐 세 차례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지난 2월에도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887호 CONTENTS


종단 2
2556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지리산 케이블카 타당한가

가정의 달 특집 3
가족법회로 화목다진다
독거 노인 절이 보살피자

시방세계 5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낙성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저희는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원들로써, 현대불교신문 2012년 5월 2일자 15면 하단에 한상열(심상), 이종도(명운)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반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현대불교신문 2012년 5월 2일자 15면에 공고를 한 한상열(심상)은 2012년 1월 16일자로 규정원에서 2년의 종도 분한상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하는 징계를 받은 자로 그 징계사유는 종단 주관사무상 중요한 사항을 부하여 의결하는 의석 상에서 소란으로 종무행정의 적정과 청정종풍을 해하였기 때문이고,이종도(명운)는 2012년 2월 6일 자로 규정원에서 1년의 종도 분한상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한다는 징계를 받은 자로, 그 징계사유는 울산지방법원 입구에서 총무원장스님께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고 청정종풍을 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고왕사는

김상배(상묵)스님으로 부터 금 일억 원을 차용할 때 작성한 차용증서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차용한 금 일억 원은 개인계좌나 특수 관계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불교원효종 종단의 통장으로 받아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금원을 분명하게 변제하고 있으며, 김상배(상묵)스님의 주지임명은 2009년 12월 16일자 전 주지였던 이종도(명운)스님의 확인서를 근거로 후임주지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 것 입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지병인 당뇨병 치료 및 정신적 치료 때문에 고왕사 정화를 하기 어려워 본인대신 주지직을 맡아 줄 상묵(김상배)스님을 추천하여 주지로 임명합니다. 또한 2010년 9월 30일 자에 이종도(명운)스님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들과 판결문에 의하여 사찰을 집행하려던 첫날 전 주지 김삼희스님 측에서 신도 및 수명의 스님들의 반대와 폭행이 있어서 정화창건주 및 주지였던 본인은 본인의 지병인 당뇨병 치료 및 정신과 치료 때문에 정화를 하기가 어려워 총무부장 우석(손영채)스님께 주지직을 맡아줄 상묵(김상배)스님을 추천받아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함. 별첨 주지임명동의서 사본 1부, 상묵(김상배)스님 주지임명장 사본 1부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2. 강원 원주시에 소재한 소림사는

소림사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림사는 애초 문남규 스님이 원효종에 등록하였던 사찰인데, 문남규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소림사는 조계종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문남규 스님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원효종이 직접 나서서 조계종으로부터 소림사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이종도(명운)스님 등을 주지로 임명,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는 일부 승소를 하였고, 쌍방이 상소하여 항소심에 계류중에 2010년 3월 경 조정에 관한 합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즈음 2006년 4월 15일 이종도(명운)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2008년 7월 7일 원효종에 입종한 주윤(용성)스님이 소림사 재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윤(용성) 스님을 소림사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주윤(용성)스님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2010년 4월 30일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의 내용은 조계종 소림사가 원효종 소림사로부터 금 일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년 5월 10일 까지 원효종 소림사에게 소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계종 소림사는 원효종 소림사로 부터 금 사억 오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년 6월 15일까지 원효종 소림사에게 소림사를 인도하며, 만약 원효종 소림사가 이와 같은 금전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소림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귀속함을 확인하고 이 경우에는 조계종 소림사가 원효종 소림사에게 금 오억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급히 조정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림사의 소유권이 조계종 측에 귀속 될 상황에 처하자, 주윤(용성)스님은 우선 대출을 받아 조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출은행에 문의 하여 채권최고액 금 구억 일천만 원으로 하여 금 칠억 원을 대출하고 조정비용,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상속인들과의 약정금액, 법무사비용, 감정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010년 6월 19일 조계종 소림사로부터 소림사를 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도 받을 당시 소림사의 관리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소림사 내외부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였고 명도 과정에서 조계종 소림사의 신도들이 개인비용으로 설치한 것을 가져가겠다 하거나 이사비용등을 주장하여 주윤(용성)스님은 2010년 6월 11일 김문기에게 채권최고액 금 사억 오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금 이억 오천만 원을 빌려 위비용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윤(용성)스님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주윤(용성)스님은 대출 내역, 사용처 등을 설명하고 소림사에 대한 채무는 원효종단과는 상관없이 모두 본인이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 하고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윤스님이 2010년 12월 10일 다시 채권최고액 금 십구억 오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십오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각 비용에 충당 한 것으로 사용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3. 울산광역시 소재의 남산사는

2006년 경 종단에서는 분규로 인한 망실된 자산이 많았습니다. 이에 종도들의 하나 된 의견이 '종단의 분규로 인한 혼란을 틈타 망실된 종단 자산을 환수'하자 이었고 중앙종회의 회의를 통하여 재산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종단의 고문의 법무법인에 사무장이며 법률적으로 해박하였던 최동주사무장이 재산환수위원장직을,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이종도(명운), 규정부장을 맡고 있던 김종화(화운)스님 등이 위원이 되어 망실자산 환수에 관련된 사항은 위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위 재산환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포항 소재 고왕사, 강원 소재 소림사, 울산 소재 남산사 등의 망실사찰을 되찾아 오기 위한 법률 진행을 하였고, 2006년 중순경에서 말경쯤 종단의 확대간부 회의에서 최동주 재산환수위원장으로부터 소송준비,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남산사 환수 소송을 시작하려면 대표자인 주지가 있어야 하는데 신춘복(운정)이라는 스님이 종단에 순수발전기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니, 소송 중에 대표자로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토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당시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의 동의로 임명장을 발부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에서 패소된 후 항소심 상태에서 이말희보살에게 환수소송에 관한 대표권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재산환수위원회에 통보받아 소송의 후임 대표자로 이말희보살을 임명해주었습니다. 신춘복(운정)스님이 남산사 소송대표권 임명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기부한 순수발전기금 금 이천만 원, 당시회의에 참석했던 스무명 스님의 거마비 금 일십만 원씩 지급, 변호사 선임비 금 오백만 원, 이종도(명운)스님에게 금 일천만 원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받았던 순수발전기금은 당시 망실사찰의 환수소송 진행비용으로 사용한 영수내역이 있습니다.

4.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보문사는

보문사는 1964년 창건된 종찰로, 전주지 김동식(강설)스님께서 2010년 9월 26일 입적하신 후, 2010년 9월 28일자로 후임주지스님을 발령하였고 후임주지스님이 종찰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전 주지스님의 가족들이 보문사를 직접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던 와중에 주지스님의 가족들이 종단의 허가 없이 몰래 개인에게 매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종단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점유하고 있던 전 주지스님의 가족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많았고 그럴 경우 사찰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되어 종찰을 망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는 고문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도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부 종도들이 무조건 형사고발을 주장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무슨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5. 2008년 7월 당시 김순석(용일)스님과 김윤철(향운)스님은 전국각지에 산재한 원효종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양자가 25억 원씩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6. 매년 중앙종회에 예결산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종단에는 감사원이 구성되어있으며 종헌 제 6 장 제 32 조 본 종의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중앙종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2인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규정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헌 제 14 장 제 73 조 1항 규정원의 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2항 규정부장 및 규정위원은 규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규정원은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의 총무원장 김윤철(향운)스님께서는 임시종정 선임결정에 의하여 원효종의 임시종정으로 선임된 이래로 현재까지 원효종단을 위하여 분골쇄신 하며 망실된 종단 재산을 찾아 왔고, 대내적으로는 원효종의 통합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원효종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종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종단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하여 소중한 종찰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자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본 종단과 총무원장스님을 무단히 괴롭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효종 내부의 통합도 대외적인 발전도 매우 난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종단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권을 음해하고 올바로 수행정진하는 종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을 좌시함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회법과 불가의 법을 망라하여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을 종도들게 알리는 바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합장 원로원장 창해 합장**
**총무원장 향운 합장 중앙종회의장 원봉 합장 총무부원장 운오 합장**
**감사원장 일륜 합장 전 임원진 일동 합장**

알 림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망월사에서는 불기 2556년 5월 11일 오후 2시 원효종단의 종도 대회에 관하여 한상렬(심상), 이종도(명운)스님 등과 대회진행, 장소협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불교원효종에서 허가한 일정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망월사 주지 합장**

##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 분황사 석탑

서 영 수

사각 삼층 분황사 석탑
천년왕조가 앉아 있다

모전석탑 머리 위에
화강암 연꽃 받쳐 이고
원왕생 가는 문을
가슴으로 여는 현장
네 마리 사자놈이 으르릉 으르릉
달아나는 세월을 물고 있다.

선덕여왕 걸어서 오른
구층탑 옛 그림자
바람이 누운 기단 위에
풍경으로 우는 오늘

절기의 숨소리 나풀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밤과 낮이 교미하는 번뇌의 골짜기
안으로 안으로 궁글어 요동치는 옥계석 처마 밑에
네 쌍의 금강역사 이글이는 눈빛
억겁의 산하 햇살을 풀고 있다

너와 나 부르는 자리에 역사책을 펴면
시간은 향수처럼
지나고 나면 그리워
국보 30호 패찰이 반짝인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서영수** 시인은…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낮달〉, 〈동전시초〉 등이 있다.

# '자비나눔·전통문화' 어울림 연등회

###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어떻게 진행되나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자비나눔과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봉축행사에서는 무엇보다 자비나눔 행사가 눈에 띈다. 오는 28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는 각 사찰마다 소외계층을 초청해 함께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며, 환우돕기 한마당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도 이어진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은 19일에,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은 20일에 종로와 동국대 일대에서 열린다.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는 20일에 각각 개최된다.

거리를 장엄하게 수놓을 이번 연등행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선두 합창단의 행렬등. 이 행렬등은 수박등, 팔모등, 초롱등 등 전통등으로 채워진다. 특히 초롱등은 실전돼오다 최근 봉축위원회가 복원한 것이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또, 행렬을 마치고 조계사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전통적인 회향 의례를 되살릴 계획이다.

연등회에 참가할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3만 명에 대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탑골공

**소외계층 초청 등 자비행 봇물**
**전통등 복원…거리행렬 선보여**
**문화마당 일본·부탄불교 '첫선'**

원에 외국인 관람존을 만들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연등축제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모객한 관광팀 500명이 참가해 전통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등을 진행한다.

20일 조계사 앞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마당에는 일본과 부탄불교 부스가 신설된다. 또한 이슬람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불교도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 줌머족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어린이들이 장엄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에는 실전됐던 초롱등이 복원돼 행렬을 수놓을 전망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첫 해를 맞아 열리는 연등회인만큼 이에 대한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봉축위 집행위원장 영담스님은 "올해 연등회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7개국 외국어 리플렛 제작, 버스, 지하철 광고 설치 등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올해에는 홍보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전통등 개발 등 다양한 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특히 호기놀이 등 고려 연등회에서 시행되다 실전된 놀이문화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을 맞아 빈번해질 정치인들의 봉축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전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타당한가

### 총무원 사회부·결사추진본부 '공론의 장'

**환경단체 "졸속 처리 검토해야"**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사회부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5월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1차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윤주옥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정웅기 불교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 등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구례군 관계자, 화엄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속화 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가했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소외계층의 지리산 관광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을 비롯한 지자체 대표들은 "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일이다. 또한 자연을 복원시키는 일이며 홍보 기능을 통해 지역민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모았다.

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은 "내장산 케이블카 도착 지역은 풀 한포기 나지 않을 정도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 이 말대로만 하자. 지리산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말을 믿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해도 괜찮다"는 말로 중도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는 화엄사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 자리 간담회가 됐다. 조계종은 5월 16일 경 2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공론의 장을 개최하고 6월 중순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정혜숙 기자**

## "남북 당국 냉정과 자제 필요"

### 조계종총무원, 남북관계 악화 우려 성명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남북 당국의 내정과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남북갈등과 긴장고조로 인한 우발적 사고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남북 당국 모두 서로를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어 "남과 북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공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갈등과 긴장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 조계종 각종 법령 입법예고

### 원로 장례, 승려 분한신고 등

조계종 원로와 중진스님에 대한 장례 기준과 절차가 명문화된다. 또, 지난해 승려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제적된 스님들을 위한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최근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제정안과 '승려분한신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은 종단장을 비롯해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등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에 대한 주체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장은 총무원에서 주관하며, 전현직 종정스님과 현직 원로회의장, 현직 총무원장은 7일장 이내로 전직 원로회의장과 전직 총무원장은 5일장으로 장례가 진행된다.

'승려분한신고 시행령' 은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제적된 스님의 승적 회복 신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은 15일까지, '승려분한신고 시행령' 은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55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2012 빛고을 선교율禪敎律 대법회

큰스님들이 전하는 깨달음과 행복의 메세지

불기 2556(2012)년 5월 8일, 15일, 22일(화)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3층대강당

주최 | 호남지역교구본사협의회(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송광사, 선운사)
주관 | 광주불교승보회,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전남포교사단
후원 |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법보신문,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TV
대상 | 관심있는 모든 분(동참금 무료)
문의처 | 무등산 증심사 ☎226-0108



5월 8일(화) 오후 7시
현응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前해인사 주지
敎,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우는 행복



5월 15일(화) 오후 7시
혜국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禪, 수행으로 행복하고 열린 삶



5월 22일(화) 오후 7시
지현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律,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

# “가족끼리 대화늘고 화목 다져요”

## 가족법회 운영사찰 불자들 한 목소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위기 상황이다. 가족 간 소통 부재로 빚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이 4월 26일 내놓은 ‘2010 ~ 2035 장래가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0년 1천7백36만 가구였던 가구수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2035년 2천2백26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는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나 부부 가구로 가족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전통적 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해체 시대에 불교계의 역할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현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조계종의 경우 가족법회 운영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행정 입안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유탁 포교원 신도팀장은 “물리적으로는 사찰의 공간적 제약이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 등 상황이 달라 개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몇몇 사찰들을 중심으로 가족법회를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초청 가족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사찰인 인천불교회관은 1층 어린이 법회, 3층 청소년 법회, 4층 가족 법회가 진행된다. 이들 법회를 위한 승합차 4대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 정토회는 매주 일요일 가족 함께 만들어 가는 법회를 진행 중이다. 오전 11시 열리는 일요법회는 스님 없이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법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부모들이 가족법회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법회에 참석한다.

이은주 지도교사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20명 가량 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부모들이 법회를 보는 동안 율동 레크리에이션과 독서, 도심 야외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 한국 사회 가족해체 현상 뚜렷
### 월1회 가족법회 의무화 해야
### 인식 개선 · 법회 모델 개발 시급

하지만 일선 사찰의 가족법회는 가족이 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 이에 대해 고명섭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현재 가족법회는 형식이 딱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사찰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법회를 가족법회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역시 2009년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 조사 세미나에서 가족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11년에는 지도자 육성 교육 과정도 진행했지만 별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한주영 지혜로운여성 사무처장은 “2011년 포교원 지원을 받아 가족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인 애착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어린이법회 교사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월 1회에 가족 법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지만, 교육만 될 뿐 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임 어린이법회 교사들이 극소수인 불교계 상황에서 법회 봉사자들이 일요법회 외에 토요교육에 참여하는데 난색을 표한 것이다. 또 상담형 가족법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을 찾는 사찰도 없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단 차원에서 매월 1회 가족법회의 날 지정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타 종교도 치유, 힐링 개념으로 부자(父子) · 부부(夫婦) 클리닉 개념으로 신행활동을 접근하고 있는 만큼 일선 사찰 상황에 따른 법회 모델 개발부터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독거노인 이웃 절들이 보살피자

### 불교계, 온정의 손길과
### 정서적 문제해결도 나서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되면서 독거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 5백만 명중 독거노인은 1백만 명(20%)에 달한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서울 노원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증 및 자살 선별검사’ 결과 100명 중 15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5.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1개월 이내에 자살충동에 시달렸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다.

불교계는 복지관과 사찰들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지원되는 서비스는 도시락 · 밑반찬 · 김장 등 식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 서비스로는 목욕, 이 · 미용, 신체수발, 세탁 등 가사를 비롯한 개인 보조 활동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또 어르신들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서비스와 정서함양을 위한 효도관광서비스 등도 진행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과 주1회 밑반찬을 지원한다. 또한 이송목욕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발마사지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고 가정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을 직접 후원자와 연계해 지속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매주 40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고, 봉사자들은 지원 대상 어르신들에게 말벗 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은 매주 주말 무료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앞으로 노인 복지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한다. 사찰이 직접 독거노인 정서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 사상을 복지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계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 기관 및 사찰 | 서비스 내용 |
|---|---|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도시락 지원, 밑반찬 지원, 이송목욕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발마사지, 나들이 지원 |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밑반찬 지원, 의료기관 연계, 미용 서비스, 세탁 서비스, 가정봉사 진행, 생계비 지원 |
| 수효사 효림원 | 전화 상담, 밑반찬 및 간식 서비스, 야외나들이 지원, 가정봉사관리, 후원금 지원 |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상담, 가사 지원, 의료 지원, 나들이, 외식, 생신잔치, 후원금 지원, 차량지원 서비스 |
| 길음데이케어센터 | 무료급식, 도시락지원, 밑반찬지원, 당뇨반찬지원, 영양죽지원, 건강음료지원 |
| 금오노인복지센터 | 요양보호사 파견, 가정상담 및 안부전화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물품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 |
| 남양주시노인복지관 | 목욕 서비스, 가사지원,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서비스, 생활상담 등 |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 식배달 서비스 |
| 대전서구노인복지관 | 목욕도움, 가사지원, 시장보기, 밑반찬 지원, 개인활동 동행, 일상업무 대행 |
| 동여수노인복지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
| 두송노인복지센터 | 이미용 서비스, 목욕, 가사지원, 외출동행, 일상생활지원, 우애 서비스 |
| 마야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신체수발, 가사서비스, 개인활동 보조, 말벗 서비스, 밑반찬 지원, 생신 잔치, 나들이 지원, 물품지원 |
| 매화노인복지센터 | 밑반찬 지원, 간식지원, 식사배달 |
| 불광노인복지센터 | 밑반찬 지원 |
| 양양군노인복지관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김치지원, 난방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나들이 지원 |
| 여수시노인복지관 | 가정봉사파견, 상담 및 교육, 후원금 지원, 이미용 서비스, 목욕, 용변수발, 집수리 지원 등 |
| 역촌노인복지센터 | 밑반찬지원, 무료급식, 세탁 서비스, 물품지원 등 |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가정봉사 파견, 차량 지원, 주거환경 개선, 물리치료, 세탁지원, 이미용 서비스, 후원사업 지원 등 |
| 춘천시립노인복지회관 |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 서비스, 심리상담 등 |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도시락 지원, 사례 관리, 밑반찬 지원, 특식 지원, 김장 지원 등 |
| 창천노인복지센터 | 도시락 지원 |
|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 간병서비스,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나들이 지원, 병원동행, 청소 및 빨래, 안부전화 등 |
| 아현노인복지센터 | 도시락 지원 |
| 송파노인복지센터 | 시장보기, 청소 및 빨래, 외출보조, 생활상담, 말벗 서비스, 행정업무대행 등 |
| 효담채 | 도시락 지원, 안과진료, 무료급식, 어르신고운집만들기 지원 등 |
| 연천군노인복지관 | 무료급식, 밑반찬 서비스, 김장 지원, 이미용 서비스, 전화 말벗 서비스, 여행 지원 등 |
| 깨달음과 나눔 | 무료급식 제공 |
| 부곡종합사회복지관 | 이미용 서비스, 김장지원, 차량 지원, 빨래 서비스, 특식 지원, 밑반찬 서비스 등 |
|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 도시락 지원, 주거환경 개선, 세탁 지원, 차량 지원, 야외 나들이 지원 등 |
|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밑반찬 서비스, 김장 지원, 도배, 청소, 결연후원, 안부전화 및 상담 서비스, 생일 잔치 등 |
| 맑고향기롭게 | 밑반찬 봉사, 말벗 봉사 등 |
| 천안 각원사 | 무료급식, 목욕봉사 등 |
| 서울 봉은사 | 선재무료진료소 실시 |
| 서울 조계사 | 병불련 무료진료 실시 |

부부 · 가족법회 모범사찰은 어디?

# 사찰서 봉사하고, 아이들과 놀고…

**서울 법안정사**(주지 효신)는 1980년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며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주성한 파리공원 옆에 자리한 도심 사찰이다.

올해로 19년을 맞는 부부불자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 부부법회를 봉행하며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4~50대 부부들로 구성된 불자회는 600여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저녁예불 후 진행되는 부부법회에는 부부를 위한 법문, 기도정진 등이 진행된다.

부부불자회는 각 지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동지역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가족법회 외에도 가정 법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산행 · 성지순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동호회 등 사회활동이 필요한 이들이 신행활동과 신행을 돕기 위한 봉사분과, 상조분과, 홍보분과, 교육분과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www.buban.org)를 통해 수행 교류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노인복지회관, 승가원, 파주 치매센터, 양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02)2646-4975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40대 이상 전문직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실제 일요 법회도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가족법회로 이어지고 있다. 지하에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으며, 지도법사 스님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위한 법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센터의 문화강좌에서도 ‘가족’을 주제 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빠와 함께 하는 사찰음식’ 강좌는 많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주지 법정 스님이 지도하는 ‘마음의 길을 걷다’는 주말 가족과 함께 걷기 명상에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국제선센터는 “교육 환경이 뛰어난 곳이지만 청소년 문제가 많다”며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가족에게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소통과의 대화,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02)2650-2214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백천사**(주지 무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한 가족당 2~3명씩 30여 명이 매월 말 법회에 참석해 무구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스님은 〈불교를 알고 싶어요〉(우리출판사 刊)를 법문 교재로 불보살 · 경전 · 기도수행 · 불교 의식 · 문화 · 상식 · 교리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한다.

### 법안정사, 부부법회로 화합 도모
### 국제선센터, 가족 소통 강좌
### 백천사, 불교 궁금증 친절히 해소

법회에 참석하는 가족들은 108배 하기, 사경 등 무구 스님이 내주는 수행과제를 집에서 함께 한다. 과제를 하며 도반으로서 서로 격려해주니 신심도 깊어지고 힘도 난다.

무구 스님은 “가족 법회를 시작하고 가족들이 사찰 내 봉사활동, 연등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니 사찰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구 스님은 “꼭 일요일에만 법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족법회, 신묘장구대다라니 108 독송회, 하루철야정진팀 등 불자들이 어떤 수행과 법문을 원하는지 조사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031)577-6433

**신중일 · 노덕현 · 이나은 기자**



서울 법안정사 부부법회에 참석한 부부불자가 정답게 손을 잡고 경전을 읽고 있다.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敎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추서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 일 주 문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추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27일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성타 스님 제24회 충담재서 추모식**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8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문화원이 개최한 제24회 충담재에서 충담 스님 추모식을 진행했다.



**수원 용주사 효행백일장**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5월 19일 용주사 경내에서 제1회 효행백일장을 개최한다. (031)239-9391



**평창 월정사 천년의숲 걷기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2일 오대산 일대에서 천년의숲 걷기대회를 연다. (033)339-6800



**속초 신흥사 축구대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5월 12일 속초 종합운동장에서 신흥사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대구 수도암 사찰음식 전수**

대구 수도암 주지 승원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대구 소재사(주지 각만)에서 사찰음식점 '큰나무집 밥' 대표 등과 사찰음식 전수를 시연했다.



**성주 심원사 산신각 낙성식**

성주 심원사 주지 응관 스님은 4월 29일 3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각 낙성식 및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성흥사 보살계 수계법회**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군산 사암연합회장)은 4월 29일 보살계 수계법회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금강대 천태불교문화예술관 낙성식**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5월 6일 금강대 내에 천태불교문화예술관 낙성법회를 했다.



**대불청 전국임원전진대회**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4월 28~29일 수원 용주사에서 2012 전국임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 강남불자 힘 모아 보시행 펼칠 터

### 5월 10일 봉은사서 강남불자대법회 여는 정우 스님



강남지역 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

"강남 불자들의 힘을 모아 불자 자긍심을 높이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강남 지역 조계종 사찰을 모은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를 발족한 정우 스님은 사암연합회 첫 행사로 5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 지역 불자대법회'를 봉행한다.

"강남 지역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종단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고민에서 이번 불자대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자비나눔 정신 실천으로 이날 모인 기부금은 불교계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불자대법회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 조계종 35개 사찰 스님과 신도 6000여 명이 참석한다. 법회는 前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박칼린 한국예술원 교수, 손숙 前환경부장관의 진행 하에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 등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지난 1월 입적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아사리 친견 자리도 마련된다.

스님은 사암연합회 활동이 강남 지역 개별 사찰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강남지역의 경우 봉은사 외에는 큰 전통사찰이 없었고, 교류가 많지 않았다. 불자 의식 보다 절 신도라는 의식이 강해 대중 포교에 계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2011년 구룡사를 비롯한 자신이 창건한 모든 사찰을 조계종 공찰로 등재한 바 있다. 또한 정우 스님(포이동 구룡사 회주)은 도심포교 현장의 1세대로 서울 포이동 구룡사를 비롯해 일산 여래사, 문정동 법계사, 인천 보명사, 분당 연화사 등을 건립하거나 크게 도약시켰다. 미국 원각사, 캐나다 대각사, 호주 정법사 등도 세웠으며 인터넷 방송 붓다TV, 뮤지컬 '맘마미아' 제작사인 신시컴퍼니 설립해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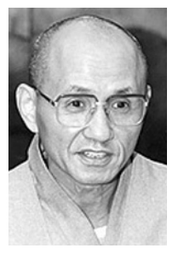
스님은 "조계종 사찰은 종지를 봉대하며 사찰을 공유해야 한다. 또 지역 사찰은 지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공동 법회와 행사를 정례화해 그 힘을 종단과 사회에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암연합회는 먼저 강남 지역 사찰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수도권과 지역민 포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발판으로 장차 아프리카나 북한 등 해외 원조에까지 발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우 스님은 "구룡사 등 강남 지역 사찰은 이미 지역 저소득 계층을 비롯해 해외 저개발 국가 등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합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불교계가 드러내지 않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금산사, 월주 스님 조실 추대법회



조계종 17·8대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이 전주 금산사 조실로 추대됐다.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 28일 금산사 방등계단 특별단에서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조실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명종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월주 스님 행장소개, 불자헌장, 예경삼배, 청법가, 법어, 축사, 축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행 스님은 금산사 본말사 사부대중을 대표한 추대사에서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수행의 이념으로 제시해 후학들의 이정표가 됐다. 어두운 세상에 큰 등불과도 같은 스님을 이제 조실스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며 "수행과 자비 실천이 으뜸인 모악산 금산사에 새 기운이 일어나도록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과 총무국장 원혜 스님이 조실의 상징인 주장자와 불자를 헌정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좌 위에 오르는 것은 '조실'이라는 이름뿐이요, 온몸은 세간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일이니 세간을 모르면 안된다"며 "과분한 일이지만 후학들과 같은 지향점을 향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일로서 받아들이고 부처님같이 말하고,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대중과 손 맞잡고 깨달음의 경전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바깥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자리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계 불교학 연구 중심 되도록"

### 제20대 한국불교학회 회장 선출된 김용표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를 한국불교학계를 대표하는 국제적 학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창립 40주년을 앞둔 한국불교학회가 4월 27일 임기 2년의 20대 회장으로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선출했다. 現한국불교학회장 김용표 교수는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20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용표 교수는 "교과부 우수학술지 선정과 학회 40주년을 앞두고 학회장을 다시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하지만 불교학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학자들을 대표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장 재임 소감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98년부터 시작한 학술지 등재제도를 2014년 12월 완전 폐지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학술지를 선별해 매년 1억 5000만원 씩 5년간 지원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학술지 선정 여부에 따라 학회 발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우수 학술지 선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수 학술지 평가는 세계 논문 인용회수 등 기준 등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이제 한국 불교학계를 넘어 국제적인 학회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1차 임기 동안 완성치 못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역량 집결 및 국제학계 교류활성화 △ 국제적 학술지 발돋움 △신진학자 발굴 위한 불교학진흥상 시상 △인접학문간 학제연구 강화 △전통사찰 제휴 이론기반 제공 △학회운영비 수주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학회는 감사로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최종남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을 선임했다. 신임 이사에는 묘주 스님(동국대),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고영섭 교수(동국대)를 각각 선임했다.

노덕현 기자

## 뉴욕타임스 '법륜 스님' 인터뷰



미국 뉴욕타임스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을 대북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인물로 비중 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28일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에서 법륜 스님은 어린 시절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고등학교 시절 도문 스님을 만나 사회활동에 눈을 떴다고 회고했다.

스님이 인도 등 제 3세계 국가 문제에 치중하던 스님이 대북지원 사업에 관심가진 것은 지난 1996년이다. 스님은 압록강변에서 누더기 차림의 야윈 북한 소년을 보고 대북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사연 등에 대해 인터뷰를 나눴다.

이를 계기로 탈북자들에게 식량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좋은 벗들'이 압록강을 건너다 익사한 탈북자들의 시신을 공개한 것은 북한 기아 사태를 알린 첫 공식 기록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정혜숙 기자

## 수불 스님, 일본 다이쇼대 간화선 특강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은 4월 27일 일본 도쿄 다이쇼대학(大正大學)에서 다이쇼대학 학생과 연구원, 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선종-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불 스님의 이번 특강은 일본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소장 高橋尚夫, 다까하시 히사오)의 초청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스님은 간화선 역사와 수행법에 관해 강연한 뒤 약 한 시간에 걸쳐 간화선 실습 시범을 보였다.

다이쇼대 관계자는 "한국 간화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정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참석해 진지하게 법문을 경청하고, 실제 간화선 수행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 "화합의 등불로 자비 전해"

### 구미사암聯 봉축연등축제

구미불교사암연합회가 4월 28일 구미송정공원 공연장 및 원평분수공원에서 봉축연등축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성 스님(해운사 주지)을 비롯한 이현희 구미경찰서장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구미불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개최됐다. 법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너와 나가 따로 없는 자비의 마음속에서 모든 중생이 화합하는 등불을 밝히자"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논산 육군 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 장면. 이날 낙성법회에는 5000여명이 운집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했다.

# 10만 군인 '마음 훈련소' 문열다

## 5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낙성…3500명 수용 최대 법당

"불심! 불심! 불심! 충성! 충성! 충성! 이날의 환희를 한국불교 중흥의 원동력으로!"

논산 연무대 넓은 들판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포교의 미래, 젊은 불자 양성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5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2009년 11월 27일 불사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총 공사비용 126억여 원의 대작불사인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힘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날 참석한 사부 대중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5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법당이지만 전국 각지서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불자들로 넘쳤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좌석이 가득차자 계단에 앉아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광주 신광사에서 온 김복심(성심월 · 84) 씨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법당이 완성되고 또 이곳 도량서 젊은 장병들이 수계 받고 신심 쌓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즐거워 했다.

의성 지장사서 온 김명화(51) 씨는 "오늘 호국 연무사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장엄한지 몰랐다"며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사 모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축법당 한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연무사 첫 수계법회에 맞춰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될 동참자 명단이다. 외부에 마련된 연등 및 원불 불사 모연 부스에는 동참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낙성법회에서 자승 스님은 "호국 연무사에서 법음을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채워갈 수만 청년 불자들을 생각하면 한국불교의 희망이 바로 군불교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며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고취된 신심을 갖고 전역 후에도 사회에 나가 다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를 대단히 밝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낙성법회 축사에서는 부족한 불사금 모연에 마음을 내달라는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불사금이 아직도 25여 억원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조금씩 보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5월 2일 낙성법회 5000여 명 운집
### 공사비 126억원 십시일반 모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장 원혜 스님(금산사 주지)도 "낙성이 끝이 아닌 만큼 불자들의 지속적인 불사 참여가 필요하다. 모자란 불사금을 모으기 위해 전국 교구본사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힘을 보탰다.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불교는 국가관 확립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당 신축으로 군포교 새장이 열리고 호국신앙 가치가 확산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축사와 함께 참석 대중에게 힘찬 거수경례를 올려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장의 군승들과 병사들은 신축법당 완공으로 인한 군포교 활성화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태호 법사는 "대부분 종교가 없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는 곳으로 도량의 장엄함도 중요하기에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의미를 더한다. 최신식 법당이 젊은 장병들에게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배희열 법사는 "교회 · 성당보다 큰 시설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의 모인 불심이 초심이 돼 군포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김민구 병장은 "훈련소 시절 목욕탕 의자를 놓고 법회에 참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최신식 건물에서 법회를 볼 후배장병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회 부의장 밀운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불국사 등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포함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안국선원 신도 등 5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인사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 치사, 원로의회 부의장 밀운 스님 격려사와 각계 축사 및 축하 영상물 등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삼존불 점안 및 복장의식이 진행됐다.

낙성법회는 수불 스님과 영진 스님(종정상) 등 공로자 표창에 이어 김의정 중앙신도회장(불사추진위원장)의 '불심', '충성' 삼창과 영상 축하 메시지, 한마음선원 등 불교 각계의 불사금 전달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논산 호국 연무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교 살린다는 마음에 화주 꺼려지지 않았다"

## 신축법당 산파 역할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불교계 행사마다 가서 화주를 청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60만 장병이 있기에, 또 400여 법당을 누비는 법사들이 있기에 마음을 내고 또 냈습니다."

매년 10만 수계불자 장병을 배출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된 총 126억 원의 대작불사가 완료되기까지 수많은 불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데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역할이 컸다. 수십년 군포교 현장에서 일한 군법사 출신으로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스님이기에 전국을 누비며 화주를 권할 수 있었던 지도 모른다.

자광 스님은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에서 감격에 겨운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자광 스님은 "절 행사 때마다 화주를 권하는 것이 폐를 끼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큰 스님들의 격려가 있었다. 또 현장의 법사들과 장병들 생각에 저어됨이 없었다"며 "하루하루 늘어나는 불사금을 볼 때면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불사성취를 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사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의 사연을 일일이 전했다.

스님은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반지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동참 때 마다 이 불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불사 초기 건설 시행업체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매일 이자만 54만원 이상 나오는 미납금 25억원 문제 등 스님의 교구장 임기 전 시작된 불사로 스님의 교구장 생활은 험난 그 자체였다. 주변 이들은 스님이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스님은 지난 1월 심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모두가 불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뤄졌기에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법당에서 신명나게 불법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노덕현 기자**

##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가보니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전경. 불사금 25억여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 극장식 좌석 구조, 대형 스크린 압권
### 에어컨 시설 완비해 무더위 법회 거뜬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대지 4만 6000m²에 연면적 4680m²(1415평) 규모로, 법당 3500명, 교육관 1500명 등 최대 5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법당에 들어서면 먼저 중앙에 자리한 4m 높이의 주불과 보현 및 문수보살의 협시불이 눈에 띈다. 삼존불 뒤와 양 옆으로는 원불 1560기가 모셔져 있다. 군종교구는 향후 비천상과 자모관세음보살, 포대화상 등을 장엄할 예정이다.

법당 입구는 3군데로 성인남자 10명이 나란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교육관으로 사용될 전 법당과 달리 극장식 부채꼴 구조로 구성돼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층건물에 사용되는 H빔기법으로 지어져 큰 규모에도 법단까지 기둥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없다.

이밖에 스님 대기실과 합창단실, 공연준비실을 무대 양측에 배치했다. 또 군장병들이 법회를 보고 공연을 즐기는 동안 이들을 인솔한 분대장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의료실 등을 갖췄다.

젊은 세대들이 찾는 법당인 만큼 문화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대형 스크린 2기와 초대형 스피커, 신디사이저 등 첨단 시설을 구비했다.

호국연무사에서는 이런 시설을 바탕으로 주 1회 정기법회, 큰스님 초청법회, 수요법회 및 재일법회가 진행되며 월 1회 문화 공연 행사도 진행돼 장병들의 신심을 북돋을 예정이다.

**노덕현기자**


분대장 휴게실서 TV를 보는 훈련소 장병들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겁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백응성 조사진영

회주 김 효 경
주지 윤 선 효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 요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 부 법 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청 년 법 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2646-4975, (02)2653-4888

횡성 大覺正寺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433-3754, (033)433-0992

# “스카우트가 사찰로 어린이 부른다”

## 어린이청소년법회 참여자 지난해 보다 1.5배 늘어
## 조계종 포교원, “올해 안에 불교연맹 출범목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의 불교스카우트 제도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찰법회로 동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의 학생 법회는 단순히 법문만 듣는 단순한 신행활동에 불과하지만 스카우트에 가입 되면 봉사활동 참여는 물론 열심히 활동하면 각종 포상도 뒤따르는 등 혜택이 많아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진상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팀장은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통해 실제로 사찰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각 지역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용숙 청계사 포교과장은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불교스카우트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먼저 찾아와 가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발대식을 처음 진행한 지난 해 5월에는 가입학생이 18명이었는데 현재는 3배 정도 늘어난 50여 명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계사는 한 달에 한 번 불교스카우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정각사, 운각사 등 인근지역사찰과 연합해 캠프, 법회 등도 열고 있다.

정성희 부산 홍법사 불교스카우트 지도교사도 “사찰에서만 이뤄지는 법회는 학생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불교스

### 불교스카우트, 26개 사찰 가입
### 6월 중으로 불교연맹 창립 가능


4월 28일 서울 경국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연합발대식이 봉행됐다. 행사에는 수국사, 약사사 등 5개 사찰에서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카우트는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홍법사 불교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산 제등행렬에도 참여한다.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참여도가 높은 이유를 진단했다.

유 팀장은 “불교스카우트에 가입하면 ▷봉사활동 참여 및 봉사시간 확보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용 가능 ▷외국대학 입학 시 추천서 발급 ▷선행 스카우트, 모범대원, 봉사대원 표창 등 각종 다양한 포상 등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교스카우트는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지역 등 전국 26개 사찰서 발대식이 이뤄져 창단됐으며, 84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불광사,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등 6개 사찰서 내달 안으로 추가 창단할 예정이다.

유 팀장은 “봉축행사를 앞두고 있어 발대식 진행이 연기된 사찰이 많다. 봉축행사가 끝나면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진행하는 사찰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포교원은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활성화 해 올해 안까지 불교연맹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연맹의 창립을 위해서는 5개 지역 사찰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돼야 한다. 유 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월 안까지 불교연맹 창립 조건이 모두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불교연맹 창립을 적극 요청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6월 중순 고불법회를 통해 각 사찰의 불교스카우트가 소속 ·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화랑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로 마련해 각 사찰의 불교스카우트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조직 활성화 및 ‘1인 1수행’에 전력”

## 공불련, 제8대 회장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 선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보다 더 탄탄한 조직체로 만들어 불교계 대표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가 4월 28~29일 충주 석종사에서 제21차 성지순례법회 및 대의원 총회를 실시하고, 제8대 회장으로 김상인 행전안전부 조직실장(56 · 사진)으로 선출했다.

김상인 회장은 前 제7대 설동근 회장의 갑작스레 사퇴로 그동안 어수선했던 공불련 분위기를 전환하고 조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취임에 대해 “처음 회장직 제의를 받고 부담이 컸다. 공불련에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년 공불련이 처음 창립할 때부터 활동했던 원년멤버다. 그는 창립 당시 공불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행안부 불자회를 통해 많은 신행활동을 펼쳐오며 공불련 일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행안부 불자회를 구성해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김 회장은 “당시 의욕이 넘쳐 서울 법련사에서 1주일에 1번씩 법회를 진행했다. 법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회장인 나와 총무 뿐이었지만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탓인지 20명이었던 회원이 현재 8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법련사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행안부 불자회 회원들과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12년 동안 공불련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비활성화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행정기관은 총 290개에 달한다. 그 중 150개 기관이 공불련에 가입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공불련 가입기관을 최소 200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공불련은 중앙을 비롯해 지자체모임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연합회가 중심이 돼 기관단위로 불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기관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되도록 힘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불련의 조직화가 안정되면 ‘한 불자 한 수행법 갖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기왕 불자가 됐으니 불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는 타종교와 달리 부처님만 믿는다고 해서 불도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각자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시절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김 회장은 3년 전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금강경〉을 읽고 108배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공불련은 1년에 수계법회, 창립법회, 송년법회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직 안정화가 되면

### 공불련 가입기관 200개 만들 것
### ‘금강경’ 독송하며 하루 시작해

템플스테이, 3000배, 경전독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끼리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을 통해 공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공불련 앞날을 위해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기초를 닦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불련 회원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1년차를 맞은 성지순례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등을 비롯해 공불련 회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입재식에 이어 석종사 성돈 스님의 참선실수, 철양정진 등이 진행됐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김상인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에 김우호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은정 기자

# 바쁜 현대인 위한 도심 속 참선 프로

## 국제선센터, 6월 6~10일 참선집중수행과정 실시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그동안 시간 · 공간적 제약으로 참선을 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6월 6~10일 참선집중수행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좌선과 습의, 다도, 자유 수행, 예불, 화두결택, 강의 등을 진행한다.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화두결택법문을 하며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이 ‘수행론’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선이란 무엇인가’ ‘좌선의와 발원’ ‘화두드는 법’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의 ‘생활속의 선’ 등을 강의한다. 또 금강 스님과 국제선센터 선감 법오 스님이 참선실수를 지도한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참선프로그램과 달리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 집중수행을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종교와 상관없이 참선을 체험해 보고 싶거나, 알찬 참선프로그램을 찾던 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4일까지 접수마감이며,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비는 35만원. (02)2650-2214

이은정 기자

#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1000여명 봉사자 참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2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4월 28일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 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종선 스님, 강동석 위원장(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결의를 다졌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사이버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한 소양교육 및 상황대처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4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11일 전야제부터 8월 12일 까지 종합상황실과 안내소, 시내 주요도로 및 행사장에 배치돼 시설관리, 교통안전,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박람회의 원만 회향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 봉축맞이 공모전 다채

## 파라미타, 등제작 공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5월 20일 서울 종각역 우정국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12회 파라미타 음악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서, 장르구분 없이 3분 이내의 공연을 펼치면 된다. 대상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상이 수여되며, 접수마감은 5월 13일까지이다. (02)723-6165

이밖에 파라미타는 5월 15일까지 제3회 전국 청소년 등(燈)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한국의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등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순수 제작한 등이어야 한다. 또 연등행렬시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가능하다. (02)2011-1744

이은정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조계종, 종단기구 운영에 에너지 소모”

## 법진 스님, ‘한국불교와 조계종’ 세미나서

“종단은 기구 운영에 너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종단의 에너지는 종도를 교육하고 새로운 방편을 개발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조계종 종헌 기구를 누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요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前 해인사 강주 법진 스님〈사진〉은 4월 28일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불교와 조계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통합종단 50년을 맞은 조계종이 나아갈 길을 전망했다.

법진스님은 “현재 종단은 정치, 권력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종단 행정수반이 총무원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구 실무자는 국가공무원 준하는 전문행정요원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가 생산한 막대한 양의 부동산을 조계종이 승계했음에도 전문 관리 그룹이 없다고 지적한 스님은 “전문 행정가를 양성해 종정기구의 업무를 맡기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출가 대중의 정치지향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종단의 종명, 종조, 종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특히 종명에 대해 법진 스님은 “조계종이 한국불교사를 송두리째 계승한 유일무의한 계승자지만, 선종으로 치우친 종명으로는 이를 담아낼 수 없다”며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종명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지에 대해서도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다보니 계율, 유식, 화엄과 같은 다양한 전통들이 종단 종헌에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유훈에 맞지 않다. 설사 종조를 내세우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 한국불교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분을 종조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진 스님


조기룡

**전문가 양성 등 대책 세워야**
**종명, 종지 변화 고민도 필요**
**불교 미래 위한 제언 쏟아져**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은 조계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조계종 통합종단 50년의 3대 사업에 대한 성찰’ 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승가교육, 포교, 역경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승가교육 현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조 교수는 “하지만 교과과정이 현대화에 치우치다보니, 종사(宗史), 종학(宗學)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대학에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을 반영하는 방안도 향후 마련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포교의 현대화를 위해 기복, 산중 불교를 탈피해 사이버 포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정의 성과를 이룬 역경사업은 완간된 한글대장경의 개역과 디지털화, 전문가 양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김경집(진각대학 겸임교수), 김용태(동국대 HK교수) 등이 전근대, 근대, 통합종단시기으로 시대를 나눠 각 시대의 종단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종교 간 대화로 평화 모색해야”

## 법현 스님 KCRP 심포지엄 기조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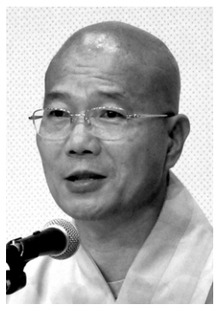
KCRP가 주최하는 이웃종교화합주간 심포지엄이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웃종교화합주간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윤열 유엔종교간평화추진한국협회 대표 ▷법현스님(열린선원장) 이 기조발표로 고 지정토론으로는 ▷박경조 성공회 주교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이상기 아시아뉴스 대표 ▷김진화 전 KBS 해외특파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새로운 옛길을 걷고자-한국종교 대화운동 바라보기’ 라는 주제로 발표한 법현 스님은 “한국 사회는 삼국시대부터 다종교 사회였고 종교간 대화의 한 틀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200여 년 전에 가톨릭을 시작으로 유일신교가 본격적인 상륙을 해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 인사들이 연대해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러 종교인들이 연대해서 조국의 광복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님은 현재, 불교와 기독교 등 한 종교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스님은 “기독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투고 불교는 한국이와 대한이가 다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종교 간에 다툰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유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에 대해 ▷종교간 대화인가 종교대화인가 대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인가 ▷교리개념의 같은 느낌과 다른 이해 ▷구체적 목표와 종교 교리의 관련문제 ▷기독교도들의 이웃 종교 배척과 불교 등의 적은 노력 ▷참여자와 재원의 문제 등에 대해 얘기했다.

스님은 이런 문제를 위해 각 종교는 다름의 존재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전통 신념과 교리체계가 다른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화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합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특정 정당 아닌 자질 · 공약 평가”

## 손혁재 교수, 불교사회硏 세미나서

### 불교계 선거감시운동 참여 역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는 무슨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종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이 아닌 각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먼저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짚었다. 손 교수는 “불교계는 역대 선거에서 공략하기 쉬운 표밭이었다”며 “정치권에게는 ‘총무원만 잡으면 끝난다’ 는 인식이 있다. 후보자들 역시 불교계 공약과 정책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영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 교수는 “불교계가 특정 정권과 정치인에 매달림으로서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쉽게 보고 불교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18대 대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대한 자질과 공약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한 공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



엇보다 후보자들이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 능력 △민주성과 개혁성 △일관성과 책임감 등을 갖춘 인물인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불교계가 시민사회와 함께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불교계는 중립적 입장에서 바른 대통령 만들기 운동이나 부정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가 ‘2012년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와 전망’ 을 주제 발제했으며,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퇴휴스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 “관행 버리는데서 포교 시작된다”

##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 전법단 2주년 토론회서 강조

“불자 전체가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4월 30일 포교원(원장 지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법단 출범 2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포교현장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는 그 무엇보다 원력이 중요하지만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법단 참가자들의 포교현장에서의 변화를 주문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현장 관계자들에게 포교원 차원에서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했다.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님부터 매년 통계로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인사고과가 시행중이지만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지는 미지수다.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분산돼있는 포교전력을 중앙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포교예산을 합하면 수천억 단위다.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힘을 모아 종단 공통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DB구축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전법단 2주년을 맞아 전법단 활동이 포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전법단은 1단계 구성의 단계를 넘어 조직 강화와 활동을 펴는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포교원의 전법단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스님은 전법단 활성화 계획으로 △불교임상전문가 지속 배출 및 병원법당 영역확대(병원전법단) △경승 지도법사 일체화 및 상근자 확보(경찰전법단) △민간성직자와 군승 유기적 결합 유도(군전법단) △파라미타 등 연계 및 법사 네트워크 조직(대학생전법단) △불자교도관 양성(교정교화전법단) △장애인 법회 시설 확보 및 템플스테이(장애인전법단) △체육인 신행지도 및 홍보(직능체육전법단)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고판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성료

한국고판화학회(회장 한선학)는 4월 28~29일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1차 춘계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차미애 박사의 중국화보의 한국회화와 판화에 끼친 영향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스님, 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소장, 소재구 문화재연구소 보존실장, 정병모 경주대 교수, 박도화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20여 관련학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보 유물인, 중국 명 시대 고씨화보와 팔종화보, 방시목보, 십죽재화보를 비롯한 중국화보와 일본과 한국의 화보가 공개됐다.

한편, 이어 진행된 고판화학회 회의에서는 8월 경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삽화판화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고판화학회 차원의 적극 참여가 결의됐다. 또 6월 말 동경 마치다시 국제판화박물관에서 제2차 해외 학술답사를 진행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문화재위 발족 50년 회고 기념식 열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4월 30일 서울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문화재위원회 발족 50주년 기념식’ 을 열었다.

기념식은 ‘문화재위원회 50년, 그 고귀한 열정과 울림’ 을 주제로 전직 문화재위원장 등 전 · 현직 문화재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활동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선언문’ 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육임 각 활용서, 각 CD프로그램 10일간 50% 大 할인

◆ 할인기간 (5월8일 – 17일) 선택하신 정가에서 50% 금액만 입금 하십시오 ◆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정가
2011완결최종판 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 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 자전거 타며 신행 · 봉사를 한 번에

### 대한불교자전거연합회 창립 발대식 봉행

전국 자전거 인구는 500만 명 시대. 친환경적이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님과 재가 라이더를 중심으로 불교자전거연합회가 출범돼 화제다.

대한불교자전거연합회(총재 성문, 이하 불자전거연합회)는 4월 2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에서 창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불교자전거연합회는 자전거 안전 홍보와 지역 학교폭력 감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폭력 방지를 위한 순찰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지역 청소년 폭력 감시 활동 전개**
**인근 사찰 돌며 신행 · 봉사도 함께 할 터**
**자전거 사찰 순례코스 개발할 예정**
**서울 · 경기에도 지부 개설 계획**



대한불교자전가연합회가 4월 29일 대구 동화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전거연합회는 지역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교자전거연합회 사무총장 효신 스님은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사고로 지역이 큰 내홍을 겪었다. 학교주변과 우범지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청소년 폭력 신고 전화인 '117'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단순한 동호회가 아닌 사회적 역할까지 함께 하려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부분 산악자전거를 타다보니 산에 많이 오른다. 산불 예방 캠페인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자전거연합회인만큼 신행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인근 사찰을 중심으로 당일 순례와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는 라이딩 순례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과 사찰을 잇는 산길을 산악자전거로 순례하는 5일 일정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뚜르 드 프랑스' 와 같은 장기 레이스 대회도 유치하거나 개발한다는 게 연합회의 복안이다.

현재 불교자전거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58명. 하지만 비등록으로 참여하는 대구 지역 불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향후 울산, 구미, 영덕, 김천 등 경북지역에 지부를 신설하게 되면 회원 수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연합회는 예상하고 있다.

효신 스님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로 만들겠다. 환경을 지키며, 신행 · 여가 · 사회봉사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이끌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서울, 경기에도 지부를 만들어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같은 방안을 현재 포교원과 각 지역 전법단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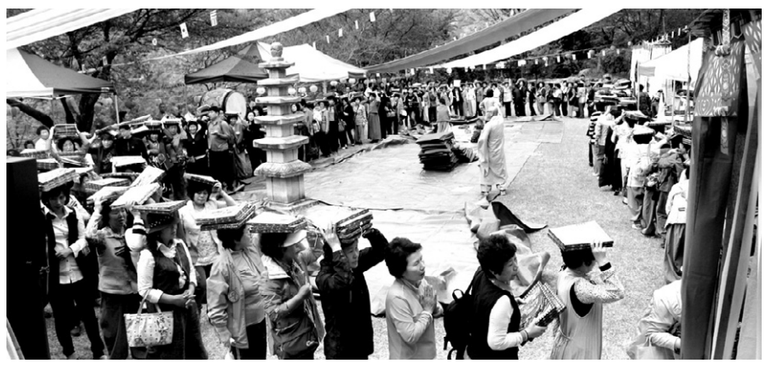
## "자기 자신부터 닦는 연습해야"

### 무량종 4월 29일 생전예수재 봉행

대한불교무량종(종정 혜안)은 4월 29일 지리산 칠보정사 극락보전에서 생전예수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회의장 보인 스님, 교육원장 보산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혜안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행업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항상 자기를 관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자비신행회, 어버이날 바자회 개최

### 1000여 점 물품 판매금으로 이불보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시하고,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면서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니 1석 3조네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지난 5월 2~4일 2일간 어버이날 독거어르신 지원과 나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후원자와 차봉사팀의 물품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바자회는 여름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 전체 1000여점의 물품을 1000~3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금 전액으로 봄 이불을 구입해 지역 어른들에게 80채를 전달할 예정이다.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월희 팀장은 "바자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쁜 행사인 것 같다. 물건을 보시하는 분들과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보여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물품보시를 한 이춘엽 봉사자는 "이웃들에게 물품 보시를 권했더니, 모두 반갑게 물품을 내주었다. 물품을 내준 분들의 의미를 살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5월을 맞아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12일 광주공원 자장면 밥차, 15일 어르신 봄 나들이, 19일 전통시장 점심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

### 조동종 행운사 부처님 점안식 봉행



(사)대한불교조동종 양평 행운사(회주 덕룡 법공)는 4월 28일 이운식 및 석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서는 종정 덕찬 지명 스님과 총무원장 덕우 대은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과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이날 "어둠과 번뇌 망상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 수행과 교화를 결행하는 용기를 갖자"며 "행운사가 불자님들께 마음의 안식처가 돼 불법홍보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은 스님은 "회주이신 덕룡 법공 스님과 주지 행천 스님의 노력으로 오늘 불국토 도량이 장엄됐다"며 "중생제도로 정토구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해가자"고 격려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봄날 사찰음식의 향연 펼쳐

### 참꽃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마련

대구 수도암 주지 승원 스님은 4월 28일~5월6일 대구 소재사(주지 각만)에서 사찰음식 운영전문점 대표들과 함께 사찰음식 전수를 시연했다. 이 행사는 달성군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비슬, 백년의 약속 천년의 사랑'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사찰음식전문점 '큰나무집 밥' 이 사찰음식을 시연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승원 스님은 지난해부터 달성군에서 사찰음식 운영 지도 법사스님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어르신 건강과 행복 기원

### 무심사 새마을 경로잔치

대구 무심사(주지 무심)는 4월 29일 '제14회 이방면 새마을경노잔치' 를 열고 1000여 명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무심사는 지역 어른신들에게 밥 떡 과일 등을 대접하고 법고 시연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무심사는 5월 13일 제5회 수륙대법회 및 경로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소외된 이웃 위해 전액 기부"

###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 자선바자회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이근재)는 4월 29일 전주 옥성문화센터에서 화엄불교대학 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불교용품과 약초, 청국장, 된장, 고추장,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됐다.

이근재 회장은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금산사 복지원, 서원노인복지관,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회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산서 한국불교중흥 위해 노력"

### 율종)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장 취임

율종)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4월 27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산종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종무원장에는 옥성사 주지이자 부산 동부경찰서 경승인 월봉 스님이 취임했다.

월봉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심의 고장 부산에서 새롭게 한국불교 중흥의 큰 그림을 율종)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이 그려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경남 포교의 중심사찰로 발돋음"

### 거제 대원사 육화당 낙성 및 사리친견법회 봉행

거제 대원사(주지 자원)는 4월 29일 교육관인 육화당 낙성식과 부처님 진신사리 십대제자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및 십대제자 사리는 국제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이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의 오랜 인연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육화당 교육관은 향후 지역주민과 불자님들의 템플스테이 및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주지 자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관인 육화당을 잘 활용해 경남 포교의 중심사찰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원사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및 국제선불교조계종(종정 목탁)의 종찰이다. (055)632-1028

**노덕현 기자**




## 세계 조리대회서 선보인 사찰음식

###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홍보

**'2012 대전조리사대회' 서 사찰음식 홍보관 운영**
**사찰음식전문가 42가지 음식 전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5월 12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WACS Congress 2012 Daejeon)' 에서 한국사찰음식홍보관을 운영한다.

2012 세계조리사대회에는 세계 97개국 39개 요리종목에 890여 요리사들이 참가해 각국 요리를 선보였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발효 사찰음식'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사찰음식홍보관에서는 대안, 선재, 우관, 적문, 정관, 홍승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42가지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전시한다.

5월 1일 개막 이후 5일째와 6일째날에는 제2전시관 카페테리아 무대에서 사찰음식 조리법을 현장에서 배워보는 '한국 사찰음식 시연회' 도 펼쳐졌다. 5일에는 선재 스님이 '연잎밥' 을, 6일에는 대안 스님이 '버섯된장찜' 을 시연했다. 스님들의 각 사찰음식 조리과정과 함께 한 강연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찰음식홍보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며 먹을 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체험마당' 도 열렸다. 또 명원문화재단이 한국전통다도 체험을 통해 차례 및 올바른 식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부산聯, 2대회장 수진 스님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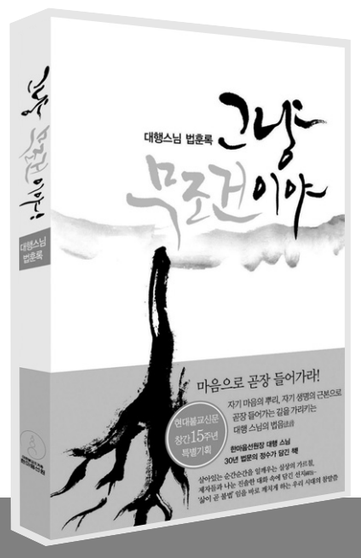
### 1일 코모도호텔서 지역별 조직

조계종 부산연합회 제2대 회장에 해운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5월 1일 코모도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수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산에는 3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산재해 있는 만큼 조직 강화와 화합에 힘쓰겠다"며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연합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초대 회장 수불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연합회 회원 사찰 모두 합심해 불도(佛都) 부산이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가꿔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 〈4〉사부중 종단 참여

# 신도참여 '사찰운영위' 등 인식 개선 과제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조계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아직 종단운영에 있어서는 사부대중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사부대중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분야의 과제를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8. 15 광복 후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하려는 종도들의 원력에 의해 불기2498(1954)년 정화운동이 일어나 자정과 쇄신으로 마침내 종단의 화합이 이룩되어 불기2506(1962)年 3月 22日 종헌을 제정하고…(중략)"

현행 조계종 종헌 전문 중 일부다. 종헌의 대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문에는 종헌 제개정의 주체가 종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종단 구성에 대한 종헌에도 승가(비구·비구니), 재가(우바새·우바이)의 자격 요건이 기술돼 있다. 이는 사부대중이 종단 구성의 근간을 의미한다.

종헌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종단 현실은 비구 중심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원로회의, 호계원, 법규위원회와 같은 종정 기구에는 비구 스님만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종단기관을 비구 스님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다. 재가자의 경우 신도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단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은 "조선조 가부장적 전근대적 권력구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종단 권력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효탄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은 "비구니 스님 참종권도 확대가 안되는 상황인데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부대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관습과 관행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역시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는 시대적 과제"라며 "비구스님 위주의 종단 운영은 결국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사람 위에 스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대한 논의와 시도들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혜덕 이상의 본말사주지 비구니 스님들을 포함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지난 3월 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탁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비구니 승가의 종단 운영 참여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무작정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시대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가 종무행정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종법 마다 제한돼 있는 '비구' 한정 조항을 '승려'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승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이 출가 목적이 마음공부라 종단 운영에 잘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종단의 종도라면 종단 운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진다"며 비구니 승가의 변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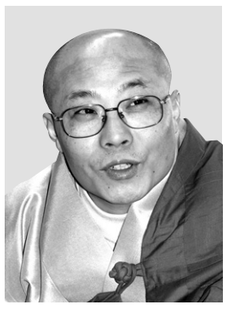
재가자들의 종단 참여 역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찰운영위원회다. 1994년 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은 각 사찰은 실정에 따라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은 당해 사찰 승려와 신도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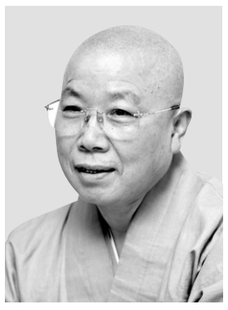
**비구니 참종권 확대 시대 흐름**
**종법 '비구' 한정조항 '승려'로**
**'사찰운영위' 法 있어도 사문화**
**운영위 의무화 등 종법 개정 필요**



사부대중이 조화롭게 함께 할 때 한국불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종단 운영에 대한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스님



탁연 스님



효탄 스님



성태용 교수

법안 스님은 "아마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제대로 운영되는 사찰은 전체의 15%정도 안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만 잘 운영돼도 사부대중의 참여는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스님의 역할이 수행과 전법, 교화에 있다면 재가불자의 역할은 이 법을 실천하고 발전하는데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경제가 중요하듯 일선 사찰의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법안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재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각 사찰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주지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제재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찰운영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부대중의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법안 스님은 "이제 종단도 수평적 리더십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역시 중앙신도회를 파트너로 종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연 스님도 "사부대중 참여의 키는 사실상 비구스님들의 쥐고 있다. 비구 스님들의 종법 개정 의지와 더불어 비구니 승가의 종단 운영 참여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 역시 "사찰운영위원회법이 개정 등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의식이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승가와 재가가 서로의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그 틀이 변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가신도 역시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받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門下
釋迦如來正法眼藏 七十六世
萬翁道一大禪師 傳法弟子 建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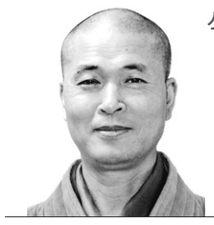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석가여래로부터 한국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법맥을 이은 만옹당 도일대선사의 전법을 전수받을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전법을 전수받는 대덕큰스님들은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제5조로 인가 받으셔서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가 되어 법통을 보존하고 법을 전수하는 큰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년 6월 9일(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접수 후 개별 통보
◈ 자 격 조 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 법납 20년 이상 비구, 비구니
◈ 접수준비물 | 신청서 1매. 수계첩. 증명사진 1매. 건당비.
◈ 신청 우선순위로 법제자 서열등록
◈ 접수마감일 | 2012년 5월 23일 오후 5시
◈ 건당하실 스님들께 내리는 다섯가지 法物
(1) 25조 가사 (傳統 上品25條 祖衣 傳衣) (2) 발우 (此如來應量器 三輪淸淨具 傳鉢)
(3) 법권 (鏡虛禪師法脈 韓國佛教中興祖第5祖로 認可) (4) 계보 (釋迦如來正法眼藏 祖師原流七十七代 系保)
(5) 전법계 (歷代相傳之 咐囑法 偈誦)

* 당일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들께서도 증명사로 동참바랍니다.

문 의 처 / 053)325-5288 팩 스 / 053)325-4848
문도회장 / 010-3900-3050 총 무 / 011-586-4648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 제5조
만옹당도일 법통보존회 문도회장 혜강능인 합장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도는 밖에도 안에도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아무개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함원전 속, 금곡원 가운데로다."

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云 你名什麼 云某甲 師云 含元殿裡金谷園中

함원전은 장안(서울)에 있는 당나라 궁전 중의 하나인데 그 건축 작품이 빼어났고, 금곡원은 낙양(洛陽) 가까이에 있었던 진(晉)의 석숭(石崇)이 만든 진귀한 명원(名園)을 말한다. 당시 함원전과 금곡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학승이 자기 이름을 말하자, 조주 선사는 이 두 작품을 하나로 보태어 함원전 속에 있는 금곡원이라고 평한 것이다. 매우 훌륭하고 시원하다는 평이다. 도대체 조주 선사는 학승의 무엇을 보았기에 당대에 유명한 두 작품과 같다고 평한 것일까? 조주 선사의 뜻을 아는 납자가 있는가? 만일 나에게 조주 선사의 뜻을 묻는다면, "조주 선사는 앞으로 7걸음 나갔는데, 그것은 뒤로 7걸음 나간 것이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7불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려고 생각하면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 곧 일어나는 자이다."

問 如何是七佛師 師云 要眠即眠 要起即起

7불은 석가모니불을 포함하여 과거에 성불한 일곱 부처를 말한다. 과거만 아니라, 현재 부처의 스승이며, 미래 부처의 스승이며, 모든 부처의 스승이 누구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성인의 진정한 스승인가?

조주 선사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은 적으니 어찌된 연고인가? 납자의 구도열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렇다. 열망이 깊으면 한 마디에 깨어나는 법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좌선 생활을 청산하라. 지금 즉시 선사를 찾아가서 생사대사를 결판을 내고 바로 붓다의 수행을 하라. 그대의 눈은 이미 붓다의 눈임을 명심하라.

학승이 물었다.
"'도는 사물 바깥에 있지 않다. 혹은 사물 바깥에 도가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사물 바깥에 있는 도입니까?"
조주 스님이 곧 때렸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저를 때리지 마세요. 이후로 잘못하면 사람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용과 뱀은 구별하기 쉬우나 납자를 속이는 일은 어렵구나."

問 道非物外 物外非道 如何是物外道 師便打 云和尚莫打某甲 已後錯打人去在 師云 龍蛇易辨衲子難瞞

원래 견공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던지는 자의 눈빛을 본다. 조주 스님은 도가 안 · 바깥에 있다느니 하는 허망한 말을 쳐내었고, 학승은 사악한 것은 일제히 쓸어내 버렸다.

도는 사물 바깥에도 없고 사물 안에도 없다. 도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작용한다. 조주 선사는 한 대 때렸고, 학승은 조주 선사의 뜻을 알아채고 그렇게 때리다가는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 어찌 용과 범이 한 판 벌리는 결투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조주 스님은 낚싯줄을 내렸고 학승은 낚싯줄을 거두어들였으니 진정한 조실과 대중의 자리이다.

선원에 앉아있는 참 납자는 조실과 한판 승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입실하여 조실의 첫 법문에 즉시 깨닫고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짓밟아버린다. 그후 대중방에서 조용히 부처의 행을 수행할 뿐이다. 조실과 선방의 구분만 다를 뿐 누가 조실이고 누가 대중인가? 용과 뱀은 구별하기 쉬워도 이것은 구별하기 힘들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3〉

**팔정도-⑤정명(正命)**

# 바른 직업 통해 바르고 규칙적 생활 하는 것

'대기설법 응병여약(對機說法 應病與藥)' 은 부처님이 사부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의 방법론이다. 즉 듣는 이의 수준에 맞게 마치 의사가 병자에게 약을 처방하듯 법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팔정도의 각 덕목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에 의해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 있고, 그때 마다 당연히 재가자보다 출가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게 된다.

이번에 설명할 정명(正命)은 특히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켜야할 기준 차이가 큰 덕목으로 부처님의 '대기설법' 이 잘 드러나는 수행법이다. 팔정도에서 정명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처럼 보이지 않는 의식 세계와 관련 있는 덕목은 수행자가 얼마만큼 체득했는지 그 척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은 실생활 속에서 항상 드러나는 덕목이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쉽다.

이중에서도 정명은 가장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덕목이다. '바른 생활법' 을 뜻하는 정명은 재가자들에게 있어서 바른 직업을 통해 바른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는 것으로 나뉜다.

첫째, 바른 직업은 바른 수단에 의해 의식주 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도박이나 투기 등 요행을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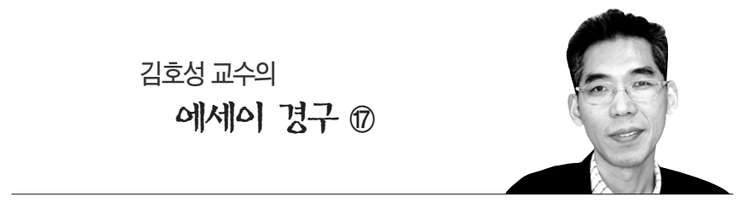
둘째, 바른 규칙적인 생활은 취침과 기상 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과 횟수, 식사의 양, 직장 등으로의 출근시간 및 공부, 운동, 휴식 등 그 밖의 모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을 유지시키고,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도 된다. 수면 식사 업무 운동 휴식 등에 관해 규칙적인 생활을 보냄으로써 건강과 일의 능률을 높이고,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정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2500여 년 전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도의 재가자들이나 지금의 재가자들이나 속세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삼보에 귀의한 불자라면 정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번번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도 다시 발심해 도전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출가자의 정명은 어떨까? 원시불교 시대에서 출가자의 바른 생활은 걸식(乞食), 즉 탁발하는 생활을 의미했다. 무언가를 소유하겠다는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규칙적인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제한된 생활을 보냈다.

부처님은 또 출가자들에게 정명은 사명(邪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사명은 출가자의 신분으로 훌륭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거나, 교묘한 말로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말하거나, 신(神)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숭배하게끔 하거나, 신통력을 빙자해 점술이나 예언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는 것 등이다. 정명은 이러한 사명이 없는 생활을 뜻한다.

재가자들 중에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명을 수행할 수 있냐며 어렵다고 손사래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불도를 닦으며 수행정진하고 있는 고승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승대덕들도 처음엔 우리와 같은 속세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몇 가지 규칙적인 작은 실천정도는 못할 것도 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⑰

#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순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율장 마하왁가(大品)〉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해 대만불교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사실 지금은 대만에서 불교의 위상은 매우 높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린 것은 아니다. 겨우 60년 정도 된다. 그럴진대 어떤 요인으로 대만불교는 그 사회에서 주류의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답을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중간지도자 양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예컨대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최고지도자는 증엄(證嚴, 1937~ )스님이지만, 스님이 직접 400만 이상의 회원들을 다 만날 수는 없다. 스님을 대신하여, 스님의 뜻과 원력을 전하는 중간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자제공덕회에서는 자제위원이라 부른다. 4만 명이다. 1명의 자제위원이 40명의 회원을 담당한다.

우리는 대개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아직 멀었다. 공부를 더 하고 나서,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되면, 그때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만약 자제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날 자제공덕회의 갖가지 불사(사회복지사업이나 재난구호 활동 등)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포교위기 역시 이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이여! 포교는 스님들만이 아니라, 재가불자 역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재가불자는 주저하고만 있는 것 아닌가. 아직 나는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좀더 알아야 해. 내가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다.

이렇게 주저하기만 하고 용기있게 길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최초의 다섯비구 중의 한 분인 아삿지(Assaji, 馬勝) 비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묻는 사리불과 목련(이때 이들은 외도인 '산자야' 의 제자였다.)에게 아삿지 비구는 겸손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벗이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에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일아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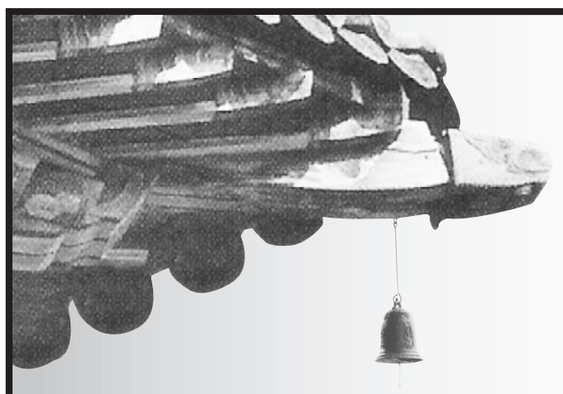
아삿지 비구의 태도가 정답이다.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벗이여, 나는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에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부처님으로부터 「전법선언」, 즉 전법의 명령을 받은 60명의 제자들이 길을 떠났을 때 그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리라.



그림 · 박구원

아삿지 비구가 전한 내용은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고 여래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80쪽)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 아삿지 비구처럼, 우리 역시 오늘 듣고 배운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간단히 그 뜻"만이라도 전해주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중간지도자가 된다. 그러한 중간지도자들로 넘쳐날 때 우리나라 불교가 다시 태양처럼 높이 솟아오르게 되리라. 마치 대만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 속세 떠나 불국토로 간다는 의미

## 다리(1)

다리는 물이나 계곡을 건너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옛 다리는 재료와 구조 그리고 형식에 따라 그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형편에 맞는 적당한 구조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리를 재료에 따라서 구분하면 흙다리, 나무다리, 돌다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구조와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섶다리,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널다리, 매단다리, 배다리, 무지개다리, 누다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구조 그리고 심미성보다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만든 섶다리,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다리들은 여름철에 큰물이 나면 일시에 유실되어 한동안 통행이 되지 않았고, 다리를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술력이 좋아지고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다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기술적 우월성이 다리에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옛 다리는 일본이나 중국의 다리와는 형식적 측면에서 같지 않았으며, 나름대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적 경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정원에 설치한 다리를 보면 무지개다리나 널다리 형식이 많은데, 널다리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판을 덮어 만든 평교로, 대부분 꺾인 다리의 형식으로 설치되어있다. 또한, 무지개다리는 우리나라의 무지개다리가 홍예를 틀고 그 상부를 평지로 만드는 것과는 달리 다리 상부까지도 무지개모양으로 둥글게 하여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목교가 많은데,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목판을 덮어 만든 널다리 형식이 많으며, 조그마한 다리의 경우에는 통 돌을 깎아 만든 경우도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경우 조경공간에 조성한 방형의 못에는 둥근 섬을 만들어 음양오행적 개념을 부여하기는 하되 다리를 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섬은 저 멀리 이상적 세계로서 사람이 쉽사리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섬과 더불어 다리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한중일 삼국의 조경원리는 그 나름대로 차별화되는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다리 놓는 공덕을 꽤나 중요하게 여겼다. 다리를 놓는 것이 그만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사찰 가는 길에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해주는 것은 그 공덕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른바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넘겨주는 월천공덕(越川功德)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찰 가는 길에 놓인 다리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담겨있어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의 신앙심을 볼 수 있다.

사찰의 다리는 여타공간에서 만든 다리와 달리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 디자인 조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산지사찰의 경우에는 사역의 좌측 혹은 우측으로 계류가 흘러내려와 사역 전면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형식을 가지는데, 이 경우 계류너머에 일주문을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성의 영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미산세계의 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사찰전면의 계류는 향수해로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때 일주문 전면을 흐르는 계류에는 다리를 놓고 도피안교(到彼岸橋), 해탈교(解脫橋) 등의 이름을 붙인다. 속세를 떠나 불국토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찰은 깊은 산속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다리도 많이 만들어졌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다리의 유형을 보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섶다리, 외나무다리, 징검다리와 비교적 구조적으로 안정된 널다리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는 무지개다리와 누다리에

**사찰 다리 상징성 중요한 디자인 조건**
**다리놓는 일 '월천 공덕'이라 여겨**
**한국인의 미적 감각 다리에서 발견**


백양사의 계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였다.

섶다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통나무를 얹은 후 잔가지를 덮고 흙을 덮어 만드는데 현재 아산 외암리마을 들어가는 입구나 봉평장터 앞 섶다리, 무주 남대천 섶다리가 남아있으나 사찰주변에서는 남아있는 섶다리가 많지 않다.

외나무다리는 굵은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폭이 넓지 않은 계곡이나 연못에 걸쳐두고 사람들을 지나게 만드는 것인데, 난간을 세우기 힘들어 간단하게 건널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서산 개심사 연못에 걸어놓은 외나무다리는 비록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외나무다리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징검다리는 얕게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자연석을 듬성듬성 놓아 다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큰물이 나면 물에 쓸려 내려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서 마을이나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만들어졌다.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순천 송광사에서 계담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보위에 놓은 징검다리는 그나마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징검다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널다리는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판재를 놓아 만든 다리이다. 널다리는 나무로 만든 보다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점차 교각과 판재가 돌로 변화되었다. 함평 영산강 고막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놓은 일명 떡다리는 길이가 20m이며, 폭은 3.5m, 높이는 2.5m로, 5줄의 교각에 멍엣돌을 올리고, 상판은 장방형의 판석을 우물마루 형식으로 결구했다. 이런 방식은 널다리의 원시형식인 목조 보다리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년쯤 전에 부여의 백제사지에서 폭 2m의 배수로 바닥에 길이 2m, 직격 20~30cm의 자연석 받침대 4개가 1.9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받침대에 목재교각이 세워진 다리유구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 다리는 발견된 구조와 형식으로 볼 때 목조 보다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단의 견해로는 이 다리가 567년쯤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일찍부터 선진적 구조를 가진 다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단다리는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진보된 현수교의 원시형식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지금과 같은 현수교는 만들지 못했지만 길을 내기 어려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이나 쇠사슬을 가로질러 줄의 지탱력으로 한사람이 간신히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매단다리이다.

배다리는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놓고 그 위에 가로목을 질러 놓은 다음 널을 깔아 바닥을 만든 다리로 부교 혹은 주교(舟橋)라고 하는데, 깊고 폭이 넓은 강가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부력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개심사 외나무 다리


송광사의 계담 조성을 위해 만든 보 위에 놓은 징검다리


쌍계사 외청교는 승속을 연결하는 도피안교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 교토 초안지(용안사)의 섬으로 가는 목교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회주 김 효 경
주지 윤 선 효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횡성 大覺正寺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433-3754, (033)433-0992

## ② 산청 대원사(大源寺)



대원사 전경



순례단 300여명이 두번째 순례지인 산청 대원사에서 성철 스님이 42일 만에 동정일여를 이룬 탑전 자리를 돌아보고 사리탑(대원사 다층석탑)을 돌며 탑돌이를 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이 마음 '心' 자 한자에 있다"는 스님의 법어를 되새겼다.

# 청년 이영주 '증도가' 읽고 무릎을 치다

3월 30일 첫 순례를 시작했던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 3백 여명이 두 번 째 순례길에 나섰다. 산청 대원사다. 스님의 생가인 겁외사에서 100리 길이다. 스무 살 청년이던 성철 스님은 이곳에서 처음 불교와 만났다.

4월 28일, 각지에서 출발한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의 참가자들이 산청 집결지에 모두 모였다. 버스에서 내린 순례단은 대원사까지 약 2km의 숲길을 걸었다. 신록이 우거진 4월의 태양은 제법 따사로웠다. 순례자들의 발걸음도 이에 질세라 자못 뜨거웠다. 마치 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순례단 뒷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도량에 들어선 순례단은 이곳 저곳을 둘러보느라 분주했다.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584)때 연기조사가 창건했다. 창건 연대는 확실치 않다.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대원사 다층석탑(보물 제1112호)이 있다. 석탑 앞에는 사리전이 있는데, 성철 스님이 재가자의 몸으로 40여 일만에 '동정일여(動靜一如)'를 이룬 자리다. 그 땐 당우의 이름이 탑전이었다.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 10년 전 불사를 통해 규모가 커졌고, 지금은 비구니 선원이다. 대원사는 잦은 전란과 사건에 휩쓸려 소실과 불사를 거듭했다. 1955년 이후 비구니 법일(法一) 스님의 중창불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회가 시작됐다. 증명 법사이자 성철 스님의 시봉 상좌였던 원택 스님이 법문을 시작했다. 성철 스님이 대원사와 인연 맺을 때의 이야기다. 스무 살 청년이던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힘들었던 청년은 약보따리를 들고 절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청년의 낙서장에는 삶의 근원적 문제들로 가득했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동서양의 많은 철학과 사상을 공부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의 길을 모색한 공부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영원'의 문제가 사실 상 스님의 '무(無)'자 화두 이전의 진정한 화두가 아니었을까. 화두 아닌 화두 속에서 고뇌하던 스님은 우연히 영가(永嘉; 665~713)대사의 〈증도가〉를 읽게 된다.

〈증도가〉는 대표적인 선 수행 지침서다. 원택 스님이 〈증도가〉의 첫 구절을 읽었다. "1.君不見,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2.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배움이 끊어진 할일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3. 無明實性 即佛性 幻化空身 即法身,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증도가〉를 읽어 내려가던 성철 스님은 무릎을 쳤다. "아,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충격이었고 기쁨이었다. 어떤 공부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해결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불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 스님은 대원사 탑전에 방을 얻어 그 날로 정진에 들어갔다. 스승도 없이 스스로 '무'자 화두를 든 스무 살 청년은 42일 만에 깨달음을 이룬다. 스님은 그렇게 대원사 탑전에서 그 해 겨울을 났다.

### '영원에서 영원으로' 답찾던 20세 재가자
### 탑전서 '무' 자 화두 42일만에 '動靜一如'
### 출가전 인생의 대전환 이룬 도량

원택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독송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할 터인데 누가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방대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심(心)'자 한 자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똘똘 뭉치면 '심'자 한 자 위에 서 있어서, 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1981년 음 6월 15일. 해인총림 방장 대중법어와 '백일법문' 중에서 화두법문 정리 분〉 스님의 법문이 지리산 자락으로 퍼졌다. 각지에서 새벽잠을 물리치고 먼 길을 달려온 순례단이다. 마음 심(心)자 한 자를 읽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다. 스님의 발자국 위에서 읽는 스님의 법어가 먼 길을 달려온 고단함을 씻어냈다.

법회를 마친 순례단이 탑전(사리전) 앞에 모였다. 원택 스님이 석탑 앞에 섰다. "스님께서 동정일여를 이룬 자리입니다. 대원사에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스님으로서 생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원사는 스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의미 있는 도량입니다. 스님께서 해인사로 출가하시고 동화사에서 오도송을 내실 때까지 3~4년이 걸렸습니다. 스님처럼은 아니어도 우리도 한 10년 열심히 하면 동정일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원력을 세워 가신다면 두 번째 순례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택 스님과 순례단은 석탑을 돌며 성철 스님의 첫걸음을 조용히 더듬었다. 스님은 24세 때, 범술 스님으로부터 해인사로 갈 것을 권유받는다. 제 3차 순례는 5월 26일 합천 해인사다.

산청 대원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택 스님이 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례단이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특송하고 있다.


## 성공적인 12만 5천등 불사 달성

불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연등 접수는 부처님 오신날까지 계속됩니다. -

영산불교 현지사는 부처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신
## 세계적 5대 보물이 있는 영산불교 현지사

【대적광전】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
부처님의 무량의 지(智)가 우주 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대지(大智)의 광명체(光明體)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위신력이 발휘되는 지구촌 보물 1호.

【석 가 탑】
인도 영축산 영산궁에 있는 부처님의 빛의 설법탑을 그대로 재현.
정법의 팔정도를 상징하는 8각형태로 조성.

【다 보 탑】
삼계지존이신 다보부처님께서 수많은 본화보살님들을 거느리고 계신 탑 중의 탑.
불교의 핵심진리인 사성제를 상징하는 4각 형태로 조성.

【고성 약사성전】
중생 병고치유의 원력을 지니신 의중대왕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과
각기 해당 질병 치유를 담당하시는 98분의 대보살님들이 상주하시는 성소.

【대전 미타성전】
아미타부처님 상주하시는 서방극락정토의 또 다른 이름.
미타 염불의 중심지이며 보살 탄생의 관문.

http://www.hyonjisa.co.kr 현 지 사 춘천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분원 Tel 051)554-5150 / 대전분원 042)525-5325 / 고성분원 033)681-5515 / 서울포교원 02)453-5953 / 대구포교원 053)654-5557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8)

# 날란다大 터에서 '종교의 의미'를 깨닫다

라즈기르 역시 아쇼까왕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기르의 옛 이름은 라자그리하이고 한자로는 왕사성(王舍城)이다. 라즈기르에도 아쇼까 스투파가 여러 개 있고 11킬로미터쯤 떨어진 날란다에는 아쇼까왕이 건립한 사원이 있다. 그 사원이 큰 승가람으로 번성하여 굽타왕조 때 날란다대학이 된 것이다. 현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구법승들이 찾아가 공부했던 승가람이기도 하다.

일행은 보드가야에서 라즈기르로 이동한다. 먼저 날란다대학 터를 가볼 예정이다. 날란다마을은 사리불 존자의 고향이다. 그래서 날란다에 사리불 스투파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고승이 입적한 곳에 세우는 것이 묘탑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 출가 · 입적 함께 한 사리불과 목련의 우정

사리불이 입적한 까닭은 참다운 종교에 귀의한 수행자의 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왕사성에는 데바닷타를 추종하는 무리도 있었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장외도(執杖外道)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교세를 넓혀가는 불교승단을 자주 위협했다고 한다. 특히 불교승단의 두 기둥인 사리불과 목련은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하루는 목련이 그들에게 잡혀가 몽둥이질을 참혹하게 당했다. 팔다리의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겨 나갈 정도로 맞았던 것이다. 사리불이 곧 죽을 것처럼 누워 있는 목련에게 달려가 안타깝게 물었다.

"벗이여, 그대는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맞기만 했는가."

목련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업으로 돌렸다.

"사리불이여, 나는 전생에 부모님을 괴롭힌 적이 있다네. 이제야 그 과보를 받고 있을 뿐이네. 나는 곧 입멸에 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사리불은 출가도 같이 하고 깨달음도 같이 얻은 목련의 입적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출가도 같이 하고 부처님의 제자도 같이 되었지. 그리고 부처님 제자가 돼 깨달음도 같이 얻은 친구지. 그러니 입멸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리불은 부처님에게 가 사정을 얘기하고 허락을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세연(世緣)이 다했음을 살펴보시고 허락했다. 사리불은 날란다마을로 가서 마을사람들에게 설법한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목련도 날란다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의 고향 코리가마을로 돌아가 입적했다.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출가도 같이 하고, 깨달음도 같이 얻고, 입적도 같이 한 사례가 또 있을까. 단 한 번의 반목과 질투 없이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면서 불교승단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던 그들의 우정에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더욱이 날란다대학 터 부근 호숫가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성소가 있다. 일행은 그곳으로 먼저 가 참배한다. 사리를 모신 곳에는 예전부터 원형의 양철지붕이 씌어져 있다. 아마도 사리는 어디론가 이운돼 갔을 것이다. 그러나 참배객들이 날란다대학 터를 오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성소이다. 일행은 탑돌이 하듯 한 바퀴를 돌고 나와 바로 날란다대학 터로 간다. 라즈기르가 고향인 인도 청년에게 날란다(Nalanda)의 어원을 묻자, '날'은 연꽃 혹은 지혜이고 '란다'는 주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의 말이 옳다면 날란다는 '지혜를 주는 곳'이다. 그러나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르다. 부처님이 전생에 이곳의 왕이 되어 보시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이를 찬양하여 시무염(施無厭; 하염없이 주다)이라 불렀기에 '날란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 학식 깊은 승도만 입학한 날란다대학

예전에 왔을 때보다 날란다대학 주변이 더 번성해진 것 같다. 가게가 들어서 있고 참배객들이 북적인다. 마치 무슨 대학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인도 어디를 가든 티벳 스님들이 눈에 많이 띈다. 진홍색 승복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사리불 스투파를 참배했듯 일행도 그쪽으로 먼저 가 살핀다.

날란다대학을 거쳐 간 고승으로는 먼저 용수(龍樹)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인도 말로는 나가르쥬나라고 하는데 2세기경 그는 7살 어린 나이로 날란다대학에 들어와 공부하여 나중에 고승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5세기경에 유식학을 완성한 무착(無着; 아상가), 세친(世親; 바수반두) 등도 날란다대학을 빛낸 고승들이다.

날란다대학이 대가람으로 번성한 시기는 5, 6세기경의 굽타왕조 때인데 하르샤왕조(606-648)가 들어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르샤왕은 스스로



날란다 대학에 자리한 사리불의 스투파. 목건련과 깊은 우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날란다 대학을 순례중인 인도 학생들. 그들도 최고의 상아탑에서 공부의 의지를 다진다.



세계 최고 · 최대의 불교 명문 상아탑 날란다 대학터. 교정의 크기가 가로 11km, 세로 5km였던 날란다 대학은 1199년 무슬림의 침공으로 파괴돼 황폐한 터만 남았다. 그릇된 종교관이 빚어낸 아픈 역사의 상징이다.



황폐해진 날란다 대학이지만 지금도 티베트 스님들의 구법 순례는 이어지고 있다.

**당시 최고 상아탑 날란다대학**
**수천명 학승중에 신라 구법승도**
**아쇼까왕 건립 사원이 '날란다大'로**
**1199년 무슬림 침공으로 황폐화**
**종교가 파괴 도구 된 아픈 역사**

'나는 날란다 승원 스님들의 종'이라고 자처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다. 왕은 100개 마을의 세금을 날란다 승가람에 공양물로 보냈으며, 200세대가 쌀과 버터 및 우유를 공급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그러니 스님들은 탁발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구법승들도 날란다대학으로 유학을 가 공부했다.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나온다.

신라 구법승 아리야발마는 율과 논을 공부하고 여러 경전을 사경했는데 귀국하지 못하고 70세에 입적했다. 또 혜업(慧業)도 오랫동안 공부하다 60세에 입적했다. 날란다대학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신라의 구법승들의 학문을 짐작해 볼 만한 근거가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온다.

'유학하러 온 후진의 학자로서 학문이 깊은 사람도 10명 중에 7, 8명은 물러가게 마련이다. 나머지 2, 3명의 박식한 사람도 승도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밀려 명성을 실추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토론하는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불허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니 입학생도 불학에 통달했다는 것인데 그 숫자가 수천 명이었다고 현장을 말하고 있다.

'승도는 수천 명인데 모두 재능이 있고 학식이 높다. 덕행이 당대에 존중받고 명성이 외국에까지 뻗치고 있는 사람만도 수백 명이다.'

그러니 날란다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디를 가든 일반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다. 날란다대학 출신이라고 사칭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말이다. 세계 최고이자 최대 불교 명문 상아탑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교정의 크기도 장관이다. 가로 11킬로미터, 세로 5킬로미터에 이르렀으니 대공원처럼 어마어마한 넓이다. 시설도 다양했다. 사원과 강당, 지하선원, 지하도서관, 노천극장, 계단교실, 공동식당, 음식창고, 운동장, 산책로 등의 시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게 했을 것 같다. 실제로 나부터 대학 터를 이리 저리 답사하는 동안 공부하고 싶은 신심이 솟구친다.

### 종교를 파괴와 증오의 도구로 쓴 무슬림

이러한 날란다대학이 황폐화된 것은 무슬림 침공이 결정적이었다. 1199년 무하마드 휘하의 장군 바크티야르 칼지에 의해서 날란다대학의 승가람들이 철저하게 파괴됐던 것이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승도들은 무슬림 군사들의 칼에 죽고, 승가람의 모든 시설들과 대학의 장서들이 3개월 동안 연기를 내며 불탔다고 한다.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다. 도서관으로 이용된 방으로 들어가 보니 까맣게 그을린 벽돌 벽이 보인다. 무슬림들이 1199년에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던 불행한 역사의 산현장이다. 아쇼까왕의 상생의 담마통치와 달리 무슬림처럼 종교를 파괴와 증오의 도구로 이용할 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매년 발굴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이제 겨우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일행은 발굴 중인 승방들을 둘러본다. 요즘말로 하자면 전학년 장학생들의 기숙사인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직사각형의 귀퉁이 방들은 원로나 중견 승도가 사용했고 각방에는 침대를 두 개씩 놓았던 것 같다. 침대자리가 하나는 크고 또 다른 것은 작다. 선후배가 이용한 침대자리이다. 귀퉁이마다 중견승도 방을 배치하여 대중생활의 기강을 바로잡았을 것이고, 침대자리를 두 개씩 배치한 각방들은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도록 하여 절로 탁마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던 것 같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수로를 만들어 물이 흐르도록 한 수세식 화장실이다.

일행은 사리불 스투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참배를 한다. 아쇼까왕도 이곳까지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님과 사리불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그랬을 것이다. 현장의 기록에 의하면 날란다는 본디 망고동산이었는데 5백 명의 상인이 돈을 모아 사들여 부처님께 보시했고, 부처님은 3달 동안 설법을 했다고 한다.

석양이 기울고 있다. 날이 저무니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마음이 급해진다. 날란다 승가람에서 서남쪽으로 8, 9리 가면 코리카마을이 있는데 아쇼까왕이 목련존자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스투파를 세웠다는 기록을 〈대당서역기〉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목련존자의 사리탑일 텐데 지금은 스투파의 흔적도 찾을 길이 없다고 한다. 땅이라도 밟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는다. 석양은 사리불과 목련의 고향을 그들의 우정만큼이나 붉고 장엄하게 물들이고 있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봉 축

불기 2556년 임진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사)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 총 무 원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원장 : 인산
포교원장 : 각정
교육원장 : 일공
참선원장 : 소운
홍보원장 : 해암
연구원장 : 보월
역경원장 : 관도
참선부원장 : 선담
총무부장 : 대광
사정위원 : 지안.대광.강명
포교부장 : 선명
교육부장 : 혜각
재무부장 : 선혜
홍보부장 : 법성
연구부장 : 선경
역경부장 : 법화
사회부장 : 법산
문화부장 : 법연
교무부장 : 성운
복지부장 : 지공
호법부장 : 선우
총무국장 : 관보
포교국장 : 관지
교육국장 : 수운
재무국장 : 법성
홍보국장 : 법은
연구국장 : 무상
역경국장 : 임오
사회국장 : 관덕
문화국장 : 법지
▣ 지방교구 종무원
서울종무원장 : 지선
부산종무원장 : 혜명
대구종무원장 : 강명
인천종무원장 : 원각
대전종무원장 : 송암
울산종무원장 :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상
강원종무원장 : 불통
경남종무원장 : 일공
충남종무원장 : 경천
충북종무원장 : 강월
▣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장 : 천웅
중앙종회부의장 : 경천

미륵세존을 주불로 십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도의를 앙양하고 사회복지를 개척함으로써
지상천국 용화세계를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법사,포교사)를 모십니다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paran.com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심지 해월



봉 행

불기 2556년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전야 법회 및 생전예수재 회향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전야법회 및
임진년 윤 3월을 맞아 중생들의 다겁생에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 보살님과 염부제시왕에게 선법을 닦아
성불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 회향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 1 부 : 오전 11시 - 불기 2556년 임진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전야 법요식
2 부 : 오후 1시 - 불기 2556년 생전 예수재 회향 대법회
3 부 : 오후 3시 - 린포체 마정수기 및 스리랑카 무용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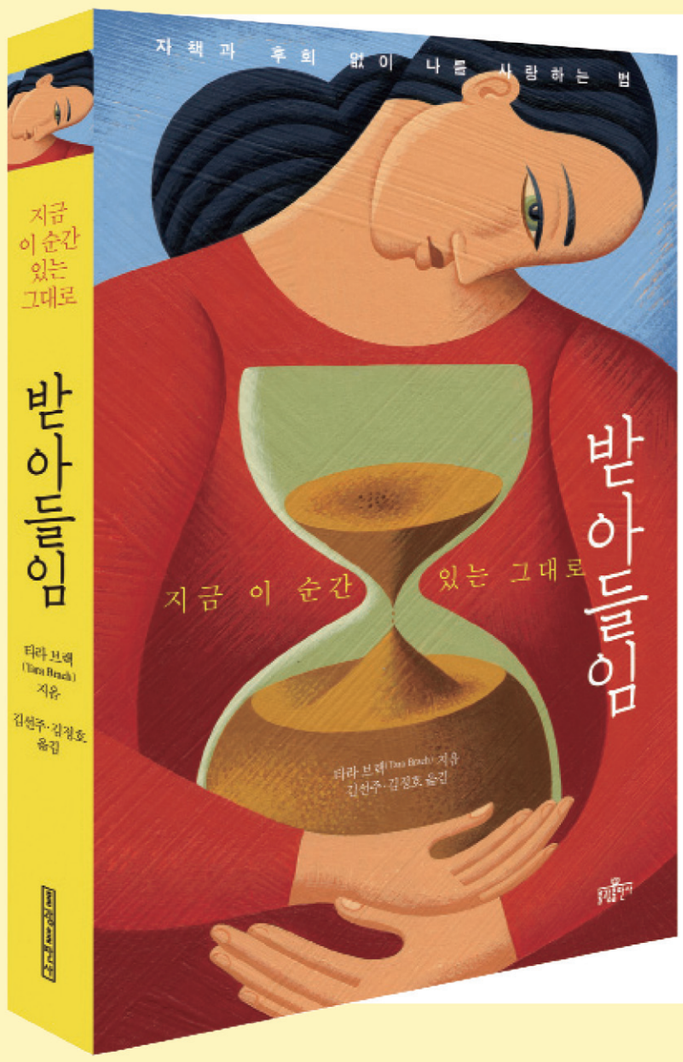
◑ 행사일자 : 불기 2556년 5월 12일 (음, 윤 3월 22일 토요일)
◑ 장 소 : 총본산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 및 경내
◑ 문 의 : 총무원 031)677-9950-1

전종도님들은 해당 사암별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

틱낫한 스님과
혜민 스님이
강력 추천한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456면
19,800원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2004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갈망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틱낫한 스님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 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 “한암의 공부가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㉚ 인가제자 한암 스님

1898년 경허 스님은 만공 스님을 시봉으로 삼아 부산 범어사에 머물며 영남지방 최초의 선원을 개설했다.

그 다음해인 1899년에는 합천 해인사 조실로 초빙돼 팔만대장경 간행불사를 증명하는 한편 참선모임 ‘수선사’를 창설했다.

이 무렵 경허 스님은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한 명의 제자를 만나게 됐다. 바로 한암 스님이다.

당시 경허 스님은 청암사에서 〈금강경〉을 강론하고 있었다.

청암사에는 많은 선객들이 정진하고 있었는데 한암 스님도 그 중 하나였다. 경허 스님의 물 흐르듯 막힘없는 강론은 젊은 선객들의 미혹을 일거에 거두었다.

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24세의 나이였다.

경허 스님의 강의가 끝난 어느 하루 저녁 무렵이었다. 경허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객실로 한암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 스님께서 소승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다시 또 눈을 뜨게 해달라니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내 본성이 소라고 하여 참선을 하며 찾던 중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어찌해 소를 타고 앉아서 또 소를 찾는고?”

“하오면 스님”

“일찍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그 때 여래를 보게 될 것이니라!”

“오! 스님, 이게 대체 몇 백 년 만이옵니까?”

경허 스님은 죽비를 한번 내리쳤다.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암 스님은 1876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중원이었다. 경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신뢰는 각별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 주는 글을 통해 한암 스님의 성품과 행실이 정직하며 학문 또한 높음을 칭찬했다. 한암 스님 또한 경허 스님에 대한 존경과 사모의 마음이 깊었다.

한암 스님은 어릴 때 영특했으며 한번 생긴 의문에 끝까지 의문을 풀고 마는 집념을 보였다. 22세 때 금강산의 명찰인 장안사에서 수도를 시작한 한암 스님은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즐겨 읽었다. 한암 스님은 〈수심결〉의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는 구절을 통해 발심했다.

한암 스님이 도를 구하기 위해 입산한지 3년째 되던 가을이었다. 그 해 가을 경허 스님이 여러 수좌들을 모아 놓고 차를 마시며 담론하던 중 이런 말

**경허 스님, 성주 수도암서 ‘금강경’ 강론**
**24세 한암 스님, 강의 듣고 깨달았으나**
**그 후 통도사서 화두 ‘일체불위’에 걸려**
**평안도 우두암서 용맹정진 활연대오**




그림 · 박구원

을 했다.

“옛 조사의 〈선요〉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어떤 것이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빙 둘러앉은 수좌들 중에서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를 마시고 앉아있던 한암 스님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왓장이 앞에 와있습니다.”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통하고 스승과 제자의 도가 통하는 경지였다.

“이제 한암의 공부가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경허 스님의 한마디는 곧 한암 스님의 깨우침을 정식으로 인가한다는 선언이었다.

이어 경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함께 해인사로 돌아갔다. 해인사에 도착한 한암 스님은 선방에서 큰 미혹과 맞닥뜨린다.

〈전등록〉을 읽으면서다. 한암 스님은 〈전등록〉 중 약산과 그의 스승 석두가 남긴 선문답에서 깊은 수렁과 같은 무명을 만났다.

스승 석두가 한가로이 앉아있는 약산을 보고 물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일체불위(一切不爲), 이것이 한암 스님이 타파해야 할 새로운 화두가 됐다. 30세가 되던 해 통도사 조실로에 간 한암 스님은 5년을 지냈지만 끝내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 한번 의문을 가지면 해결을 보는 스님의 집념은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선원을 폐쇄한 한암 스님은 마침내 평안남도 두미산에 있는 우두암에 보임처를 마련하고 용맹정진했다. 그해 겨울 한암 스님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부엌에서 불 지피다
홀연히 눈 밝으니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만일 누가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바위 밑 샘물소리
젖는 일 없다 하리

활연 대오한 후 묘향산, 금강산 등 암자에 머물던 한암 스님은 서울 봉은사 조실로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 동족끼리의 아귀다툼을 지켜보던 한암 스님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암 스님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촌(三春)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는 말을 남기고 1925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산문을 나서지 않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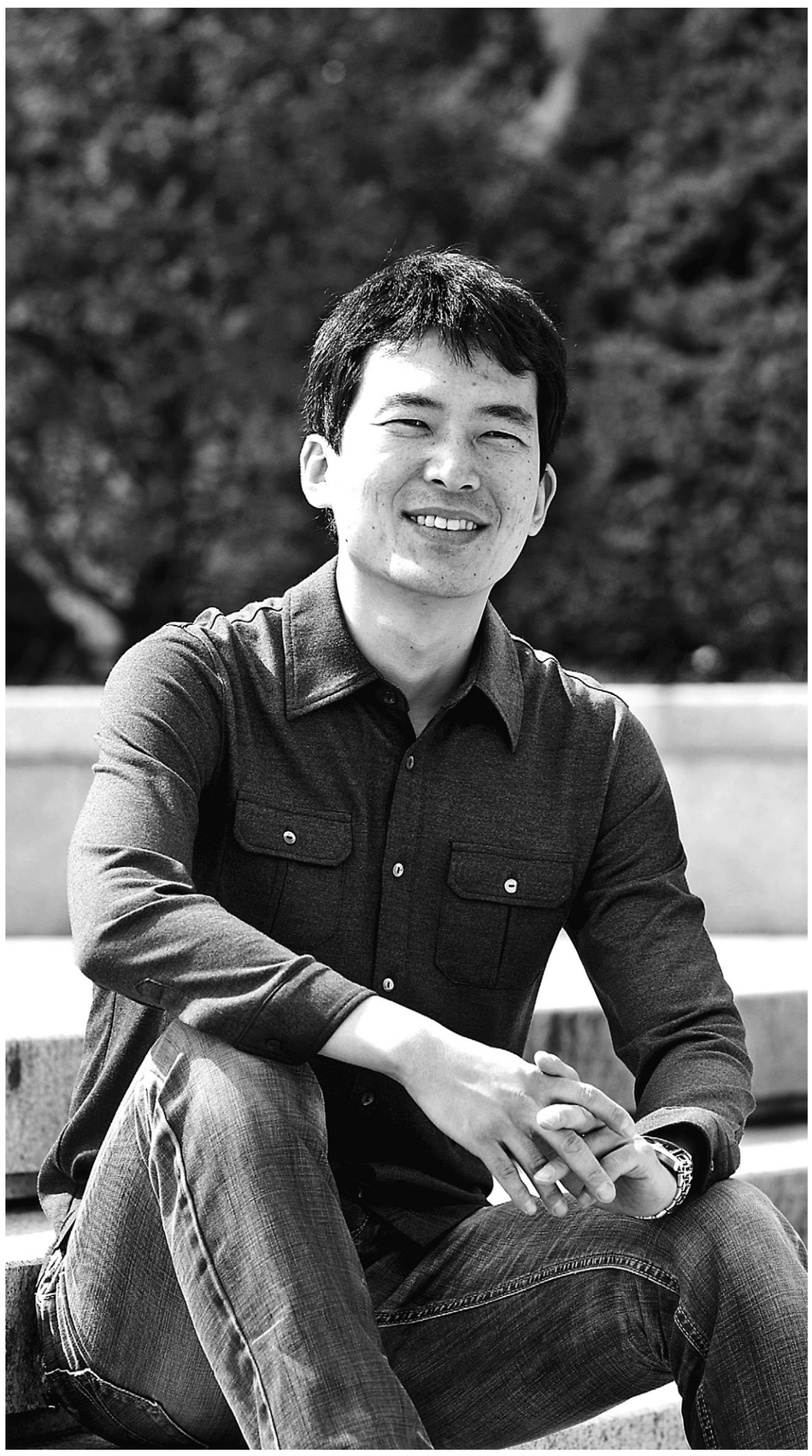
# “천직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 나석정 거사

“부처님은 마음이 열린 분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칠 텐데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따라가지 마라. 흘러가는 강물이고 해를 가린 구름과 같다. 그러니 내가 행복해 하는구나. 불행해 하는구나. 바로 알아차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늘 같지 않다.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이나 행복도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에게 형뻘인 나석정(32) 거사,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 3층 법당에서 두 해 남짓 매주 군인법회를 이끌고 있다.

“사홍서원은 네 가지 넓은 서원이란 말인데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비전, 꿈, 희망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나와 남을 함께 위한다는 뜻에서 넓은 홍洪를 썼습니다. …… 이번 주에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공양을 하면서 잠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법회 마칠 때 늘 나누는 말씀 ‘서로가 있어 살 수 있습니다.’에 담긴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법회를 이끌고 마무리하는 품이 푸근하다.

**행복과 불행은 흘러가는 강물**
**늘 같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사홍서원, 네 가지 큰 꿈과 희망**
**서로가 있어서 살 수 있다**



삶의 절망속에서 만난 법정 스님의 말씀 〈무소유〉는 나석정 거사에게 삶의 희망이요, 소중한 에너지가 됐다. 나 거사는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피력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일요일에는 법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절에는 어린이법회부터 다녔지만, 간절하게 마음공부를 받아들이게 된 데는 갑자기 몰아닥친 시련 때문이었다고 돌아본다. “고등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말이 되면서 마음 가누기 힘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만히 있어도 괴로웠어요. 병원을 찾았더니 정신분열증이라더군요. 약을 먹어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휴학계를 내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마침 집에 아버지가 읽던 자그마한 문고판책자 〈무소유〉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에 끌려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창 마음이 괴로울 때였는데 신기하게도 스님 책을 읽을 때만은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글에 담긴 알 수 없는 독특한 향기를 낼 때까지 스님이 기울이셨을 수고에 늘 고마워합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외로움과 고통에서 헤매기를 여러 해, 스무 살 석정 손을 잡아 끈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법정 스님이 길상사란 절을 여셨는데 그곳에 가서 네 또래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을 추스르라고 했다.

“이 사회는 공부 잘하고 번듯한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않아요. 병이 시작되자 누구도 제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정신보건센터에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이 되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자고 무척추 동물처럼 흐느적거렸어요. 한번 망가지니까 와르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길상사 청년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외로워서 갔습니다.” ‘늑대와 양치는 소년’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는 이 이솝우화를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만 여기고,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너무 외롭고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랬을 텐데.

**세상은 외로운 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
**너무 외로워서 길상사에 나가**
**법정스님 법회 날 겅중겅중 뛰어다녀**
**그 덕분에 자살하지 않고 건강하게**

“청년회에도 여느 모임처럼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섞여서 이런저런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행복에 젖어도 보고 보람도 찾았어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조금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청년 나석정을 참하게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청년이구나 싶어 훈훈하게 바라 보면서도 외롭고 답답함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실체와 만나기 어려움을 새삼 깨닫는다. “어른스님 법회 날에는 스님이 법문하신다는 의미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겅중겅중 뛰어다녔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스님 말씀에 힘이 솟아 길상사 가는 일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요. 이젠 군인법회를 매주 진행하다보니까 길상사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길상사에서 받은 소중한 에너지 덕분에 고통 가운데서도 자살하지 않고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정은 길상사에 다니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저녁마다 108배를 하며 나무아미타불 염불했다. 그러기를 무려 여섯 해. 그러나 아무리 108배와 염불을 열심히 해도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 저를 엄청나게 혼내면서 산에 다니라고 호통을 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도봉산을 오르내리며 망월사라는 절에 들러 염주 200개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미타불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염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온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했더니 집착이 덜해졌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매달려서 옴짝도 못하던 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힘이 붙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몽중가피夢中加被를 받으면서 고통이 천분의 일로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청화스님이 말씀하신 간절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염불선이 이런 모습일까.

두 해 남짓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길상사로 되돌아와 청년회 반야부장을 맡으면서 살 길을 찾았다. 남보다 늦은 사회생활, 제빵훈련원에서 빵 굽는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다. 그런데 바쁘고 일이 몰리고 엉키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바람에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몰렸다. 잠시 힘들어 하다가 커피를 좋아하는 석정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커피전문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또 손님이 몰리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메뉴를 만드는지도 모르고 실수를 연발해 또 밀려났다. 살려고 온 힘을 쏟았지만 길이 없었다. 벼랑 끝이었다. 새로 도전하기가 겁이 났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병리검사센터에 나가 각 병원에서 혈액 · 내척 · 체액 · 소변 · 대변 따위 검사물을 거둬오고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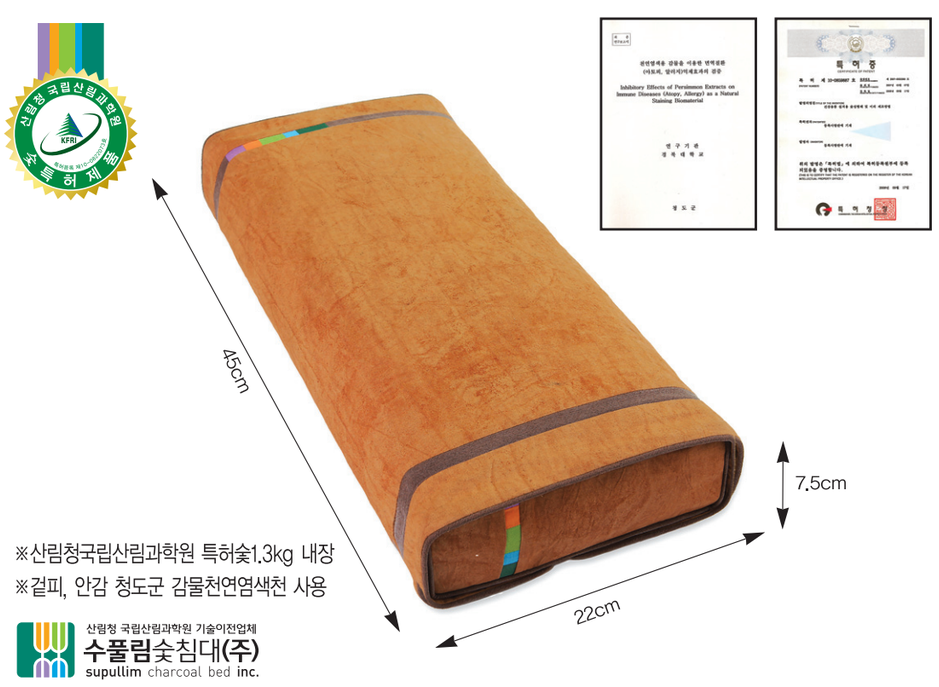
“단순한 일이지만 이 길을 가다보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아무도 제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데도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15층이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을 대할 때 언젠가 이 분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부처님은 ‘이해심, 이해하는 마음 덩어리’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했는데 월급은 어떻게 쓰나? “150만원을 받는데 다달이 50만원은 적립식펀드에 넣고 20만원은 주식청약부금을 붙고 있습니다. 몇 만원은 할머니께 드리고, 몇 만원은 의정부에 사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 모임’에 내고, 또 몇 만원은 군법회 간식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해서 노후대비 장기노령보험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용돈하고, 그리고 조금씩 남는 부스러기 돈은 아플 때를 대비해 모으고 있습니다.”

한창 젊은 청년이 어떤 인연으로 군인법회를 이끌고 있을까. “제가 자라고 사는 곳이 의정부에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 가서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의정부 절들이 떠올랐어요. 원래도 절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도심에 절들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려서 다니던 절도 중고등학생 법회가 없어지고 이어서 청년회 법회도 없어졌어요. 이곳 정혜사도 중고등학생 법회가 잘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청년회법회도 없고, 가족법회와 어린이법회 군법회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불교가 활기를 찾는데 작으나마 도


수풀림 천/연/감/물/염/색
대나무숲베개
supullim bamboo charcoal pillow

일곱가지 대나무숲의 효능이
님의 숙면을 책임집니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특허숯1.3kg 내장
※겉피, 안감 청도군 감물천연염색천 사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supullim charcoal bed inc.

수풀림대나무 숯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대나무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제조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숯 1.3kg을 넣어 효능을 극대화 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겉감과 안감 모두 천연감염색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허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연감염색은 아토피에 탁월하다는 연구 분석이 나와 많은 분들이 천연감염색을 찾고 있습니다.

포근함을 유지시키며,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굴피나무 껍질을 300g 넣어 빠른 피로회복과 목디스크 예방 및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1개 110,000원 / 2개 세트 20만원

제품신청 080-300-1080
http//www.supullimbed.co.kr

■입금계좌 : 농협 121078-56-121535 (예금주: 류정애)

원적외선 음이온 향균 수분흡착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아토피

수풀림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대나무숯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 잠 잘 때 흘리는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베개 주변의 전자파를 흡수 중화시키는 차폐 효과로 전자파 걱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 직접 머리에 닿는 겉감과 안감 모두 청도군 특허제품인 천연감염색(특허 NO.10-0852606)천으로 제작하여 아토피예방과 숙면을 유도하는 건강베개로써 기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피나무 껍질을 넣어 알맞은 경도로 제작하여 빠른 피로회복과 목디스크 예방 및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 ▶선물용/혼수용 ▶만성피로/목디스크 ▶수험생/직장인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에서 2년동안 군인법회를 열고 있는 나석정 거사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군불자들에게 자주 소개한다.

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길상사를 떠나 의정부로 돌아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참 진리를 전하려는 에너자이저 나석정, 일요가족법회에 나오는 불자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절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를 찾아가 군인법회를 돕는다. 부처님은 진리를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둘도 말고 꼭 혼자서 가라고 했고, 법정 스님도 후학들에게 배웠으면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아무리 설법을 많이 듣는다 해도 제 마음은 제가 열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하며 제 마음 제가 열고 나서 길상사에 돌아가 청년회 반야부장을 2년 했던 경험이 군인법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회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절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구성만 알면 누구나 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자들이 겸손한 게 흠이에요. 법회를 운영할 분이 모자란 데도 선뜻 나서서 운영하거나, 운영에 힘을 실어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군부대에 법당이 없고 절들이 도심에서 밀려나 겨우 명목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뜻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히기를 바라겠는가. 스스로 주착主着,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팔만사천경전이 무슨 소용인가. 내 불교 내가 하고 내 불성 내가 찾아서 내 땅 내가 디디고 살면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살펴야 한다. 세상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왔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세상을 위해 참 가치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가.

"제 지갑에 신문에서 오린 글이 하나 있는데 단순합니다. '절대 잘못된 길은 없다.'는 문구인데요. 길상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그 토양 위에서 산엘 다니겠다고 마음을 굳힐 수 있었고, 산에 다녔기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건강해졌기에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높다란 벽에 부닥쳤을 때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벽에 부딪쳐봤기 때문에 지금 제 직업이 소중한 줄 알고, 어떤 직업도 소중하지 않은 직업은 없음을 알았기에 평온하고 행복해요. 결국 길상사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에 맞물려, 이어지는 의미들을 싹틔우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상사에 다니면서 큰 깨달음은 없었지만, 거기서 배우고 익힌 바탕 위에서 제 나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요." 넋 놓고 듣다가 문득 떠오른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도종환 시 '담쟁이'. 나석정 거사가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데는 법정 스님 책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에 나오는 '직업인가 천직인가'라는 꼭지 힘이 컸단다. 그 꼭지는 이렇게 열린다. "무슨 서류를 만들 때 직업란을 두고 나는 망설일 때가 더러 있다. ……불교승단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라 하는 수 없이 편의상 '승려'라고 쓰긴 하면서도 석연치 않다. ……승려가 과연 직업이 될 수 있을지 늘 갸우뚱거려진다."

"어른 스님은 그 꼭지에서 윤오영이 쓴 '방망이를 깎던 노인' 이야기를 하세요.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주문한 손님이 차 시간에 쫓겨 더 깎지 않아도 좋다며 대충 달라고 하니까 다른데 가서 사라며 안 팔겠다고 내뱉는 고집쟁이 영감님이야기인데요. 스님은 비록 그 영감님이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고 있을 망정,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 데는 일이 생활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며 삶 그 자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사람사회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저마다 몫몫이 필요한 일이 주어져 있다며, '천직을 가진 사람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날로 성숙되어간다.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꾸준히 하면 그 일이 바로 천직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스님께 직접 들은 듯이 귓가에 생생해요."

**마음에 새긴 법정 스님 가르침**

**"일은 생활 방편 아닌 목적이며 삶 그자체 긍지갖고 전심전력 꾸준히 하는 일이 천직 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관계를 이뤄야"**

스님은 그 꼭지 끝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그것이 한낱 생계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사는 소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관계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알차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만, 또한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남을 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내 일이고 내 사는 몫이다."

"제가 길상사에 다니고 몇 해 되지 않아 길상선원에 몇 달 다녔는데요. 아는 누나도 함께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하안거 결제 날이었는데 그 누나하고 선원 둘레 꽃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침 어른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제게 말씀을 한 마디 건네셨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겠구나.'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던 스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스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나서 곱씹어 보니까 '마음이 생각에 묶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말을 할 때 해야 하겠지만 생각에 묶여 집착에서 나온 말은 분명 번뇌가 되겠지요. 어른스님 말씀하신 진의는 알 수 없지만 스님 마음속에는 생각을 잡는 말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할 때 스님은 언제나 자식 손을 들어줬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꽃을 보는 청춘에게 말을 건네심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꽃에 팔려있는 청춘을 향한 정情가름이 아니었을까. 온 누리가 파르라니 싱그러운 오월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 5월의 눈꽃



동국대 명예교수

5월은 푸르름의 대명사이다. 주변 어느 곳이던 눈길이 닿는 곳이면 녹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연초록은 시계(視界)를 훌쩍 넘어서고 만다. 오욕에 찌들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담아내기 버거운 광활한 녹색천지이다. 저 향연에 취해 잠시라도 갖은 시름을 떨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인간계를 탈출한 축생 정도의 사고력이 아닐까 한다.

저 창공도 온통 그 모양이다. 이따금 그곳에는 희한한 연주자들이 공연하고 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이다. 야들야들한 사금파리 모양의 구름이 생긋 웃고 지나간다. 그런가 하면 테석테석하고 윤기 잃은 이질가미 구름이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저 하늘의 조화라니.

그들은 와락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구름과 바람은 모종의 뎅걸뎅걸하는 소리도 없이 이 푸른 대지에 눈을 뿌린다. 그 눈은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푹 집어 넣어야 하는 눈도 아니다. 그렇다고 옷깃을 세우거나 두툼한 외투까지 꺼내 입어야 하는 눈 또한 아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대지의 푸르름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눈일 뿐이다. 이런 상념은 기우이다.

음풍이 몰고 온 눈은 온갖 시름을 준다. 출근길 교통걱정, 난방걱정, 낙상걱정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걱정들. 그러나 오월의 눈꽃은 순한 양과 같다고 할까. 발길에 닿아도 밟는 자체가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계곡에 쌓인다 해도 무슨 동맹이라도 하듯이 꽁꽁 얼어붙어 강인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난해의 낙엽과 쉽게 동화되기도 한다. 행여 새순이 동상 피해가 있을까 빗겨 앉는 여유도 지닌 낙화이다. 요란하게 존재의 오고 감을 알리려고 법석을 떨지 않는 모습은 가히 군자의 도를 오래 전에 익혔던 게 분명하다. 가뭇없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군자의 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연못에 맴도는 낙화는 조각배가 되기도 한다. 수면 위에 작은 물결이 일면 웬 물여울이 치는가 하여 가로 가로 줄행랑치는 모습은 재식훈련을 받은 훈련병 같기도 하다. 그들에게 전복이란 말은 당치도 않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이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면 수초에 의탁하여 정박하기도 한다. 아마 저리 가벼운 꽃잎은 이 춤을 모를 일이다. 이춤은 욕심꾸러기가 모여 사는 인간세상의 불편함일 터이니.

불현듯 고려시대의 문학 유산 '청산별곡'의 노랫말이 스친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누가 이 시심을 깰 것이며, 누가 이 시심을 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느 포악한 사람이라도 깰 수 없으며, 어느 불한당이 떼지어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직 마음 작용에 의해 깨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을 뿐이다.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헛일하는 셈치고 에멜무지로 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듯이 그런 바램없는 마음으로 살수는 없는 일일까.

루소는 '에밀'에서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게, 자유롭게, 또 행복스럽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제 손으로 인간 자신을 악하게, 부자유스럽게, 또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루소가 주장하는 것은 문명의 질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자는데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면 갈수록 자연의 본성이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오월의 눈꽃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본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자연애호사상의 원천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램 없는 마음으로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이 행보다 앞서면 인생 불균형**
**인간도 정품과 불량품이 있다**

사람을 평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말하기도 한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한다. 사물로 표현하자면 상근기는 스스로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다. 중근기는 불에 가까이 대면 타는 가연성 물질이다. 그리고 하근기는 불에 가까이 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으로야 상근기가 되길 바라지만 행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생활이 항상 엇박자로 가기 마련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항상 마음이 행 보다 앞서가는 데서 오는 불균형이다. 불연성 물질이야 말로 불 가까이 가도 타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교육현장에서 자주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리저리 구스르고 타일러 봐도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과 같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이 따르기 마련이다.

물건을 고를 때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세심하게 고른다. 인간에게도 정품인간이 있고 불량품인간이 있다. 자기성찰이 따르는 사람을 정품인간이라 하고, 자기성찰이 미진했을 경우 불량품인간이라 하는 것이다. 청산에서 머루, 다래 먹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출세니 부귀 따위는 있을 리 만무하다. 그에게는 오월의 눈꽃이 반려자로서 길동무가 되고 말동무가 될 수 있다.


당뇨가 있으십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부인병이 걱정되시나요?



홍삼좋은것은 아는데, 체질에 안맞아서,,'
'산삼 좋은 것은 아는데, 비싸고 산삼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한약(보약)을 지어먹자니 중국산 약재들이라...'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약명으로 전호(前胡)라 하여 약재로 쓰입니다. 미나리과의 약초라 체질에 상관없이 효능을 발휘하고 최근 당뇨병을 근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삼의 뿌리에서 산삼보다 높은 사포닌이 검출되었으며 항암작용, 암, 당뇨 같은 만성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해 졌을 때 뿌리를 달여?복용하면 기력을 회복하며 혈당을 현저히 내리며 또 항암 작용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연삼에는 자궁 기능조절 및 진정, 진통, 항균, 설사 및 비타민 E 결핍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노다케닌(nodakenin)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염, 관절염, 혈액순환,빈혈, 각종 부인병, 생리불순, 두통에도 특효입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 시키는 효과도 있어 신경쇠약 치료약으로도 쓸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인삼이나 산삼을 훨씬 능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귀한 약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성분으로 암을 유발하고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피부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수많은 약리작용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 증진 중단과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혈액이 맑지 못한 당뇨병을 근치합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 자란 연삼 (軟蔘)을 직접 캐고 말리며 정성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2F
담당 : 김종관 051)741-3312, 010-8440-109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438-427755 김태우(010-4759-5152)

국내산 100% 연삼액
30개입 14만원 → 12만원
60개입 28만원 → 23만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달라이 라마, 인도 뉴델리 방문

### 中 · 印 국경 분쟁 등 '조용한 전쟁' 서막

히말라야 산맥의 광대한 초지를 국경으로 21세기 최대 라이벌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달라이 라마의 지난 4월 7일 뉴델리 방문을 기점으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허프포스트(Huffpost · www.huffingtonpost.com)는 5월 1일 "뉴델리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기조연설을 한 것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인도 북동부에서의 국경 분쟁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국경분쟁의 불씨가 달라이 라마의 뉴델리 행보로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18일 국경 분쟁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제한 허프포스트 지는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며, 실무협의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붓다가 태어나 자라며 깨치고 가르친 곳, 인도와 인구의 40%가 불자인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행보에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를 연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와 중국 베이징이 국제불교컨퍼런스 개최지 경쟁을 할 때부터 이미 징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개최지 선정 회의에 참석했던 900여 명의 불교 지도자들은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라는 점에 주목, 인도 뉴델리를 국제불교컨퍼런스 개최지로 확정한 바 있다.

허프포스트 지는 "이때 중국과 인도 간의 신경전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전하고, "인도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4월 8일 뉴델리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종교적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는 데 주목했다.

인도 뉴델리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는

**달라이라마 보려고 2만5000명 모여**

**中 "방문 허용 양국외교 해치는 일"**

**지난해 12월부터 中 · 印 대립**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보기 위해 약 2만5천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몰려들었으며, 인도 정부도 국빈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뉴델리 방문을 인도 정부가 허용한 것은 양국 외교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지난달 23일 "중국과 인도는 가끔 협력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경 분쟁은 물론 교역, 에너지 투자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인도 뉴델리 방문은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 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불교컨퍼런스(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중국 정부는 뉴델리 불교행사 개최에 앞서 인도 정부에게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중국이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를 침략한 이래 시작된 국경 분쟁이 자자들고 있지만, 달라이 라마의 인도 뉴델리 방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용한 전쟁(quiet war)의 서막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1956년 이전까지 우호적이었다. 인도는 중국 공산정권 수립 시 이를 승인하였고, 중국의 티베트 합병을 묵인하였으며, 반둥 회의에서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점차 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로 돌변하게 되었고, 중국이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지역에 대해 중국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영토 분쟁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을 인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양국은 긴장 관계로 돌입했고, 급기야 1962년 두 나라 군대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국경 문제를 놓고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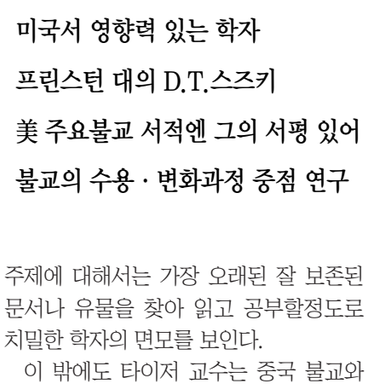
이후 인도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티베트의 독립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나섰고,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던 파키스탄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과 인도는 외교적, 정치적으로 여러 차례 충돌하며 대립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古 문헌 세밀히 고찰 중세 불교 연구

### 세계의 불교학자(17)

### 스티븐 타이저 美 프린스턴대 교수



스티븐 타이저 (Stephen F. Teiser)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불교학자중 한 사람이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미국 주요 불교 서적들에는 스티븐 타이저 교수의 서평이 항상 있다. 그만큼 미국 학계에서는 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

타이저 교수는 1978년 미국 중부 오버린 대학에서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을 전공으로 졸업한 뒤 프린스턴대에서 1986년 석 · 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대만에서 2년간 연구한 '중세 중국의 우란분제(盂蘭盆齊) 연구(The Yu-lan-p'en Festival in Medieval Chinese)'를 졸업논문 주제로 했으며 졸업 후 미들베리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강의를 하다 1988년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다.

타이저 교수는 1990년대 말 하버드대 불교학 교수로 임명이 됐지만 프린스턴대에 남기로 결정한다. 프린스턴대에서 그는 동아시아 불교학을 가르치면서 '프린스턴대의 D.T. 스즈키'로 불린다. 서양에 불교를 알린 주요인물인 D.T. 스즈키처럼 프린스턴대에서의 그의 역할은 중요하다.

스티븐 타이저 교수의 연구는 사회 안에서 불교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해 왔는가에 맞춰져 있다. 전통적 종파 중심의 불교 교리나 사상을 위주로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관점에서 시작한다.

기존 학자들은 중세 중국 불교의 철학적 사고나 체계에만 중점을 둔 반면 타이저 교수는 중세 중국 불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사회, 문학, 예술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즉 인도서 출발한 전통불교가 어떻게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통해 전파됐는지 연구하는 대신 중국 사회 안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정치, 미술, 문학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초점을 뒀다.

그는 또한 중국 불교가 도교나 민간 신앙,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고, 중국 중세 정치와 불교 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연구도 한다.

타이저 교수는 프린스턴대 졸업논문 주제였던 〈중국 중세사회의 우란분제 연구(The Ghost Festival in Medieval Chaina)〉라는 책으로 미국 학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그는 불교 경전이나 위경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중세 설화나 의식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했다. 현재 이 책은 미국 대학에서 중국 종교나 중국 중세사를 공부할 때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됐다.

또한 그는 중국 불교인들이 내세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중국의 〈십왕경(십왕경)(The Scripture on the Ten Kings)〉을 통해 다뤘는데, 책에서는 둔황 자료를 비롯해 미술 자료, 일본, 중국, 한국, 프랑스에 흩어져 있는 2차 자료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았다. 미국 아시아 연구 모임인 구로다 학회에서는 이 책을 1994년 '중세 부분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타이저 교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0세기에 쓰여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둔황 문헌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그는 연구하기로 정한

**미국서 영향력 있는 학자**

**프린스턴 대의 D.T.스즈키**

**美 주요불교 서적엔 그의 서평 있어**

**불교의 수용 · 변화과정 중점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잘 보존된 문서나 유물을 찾아 읽고 공부할정도로 치밀한 학자의 면모를 보인다.

이 밖에도 타이저 교수는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로 고고학, 사회 · 역사학 관점에서 중세 사찰 건축 구조와 미술을 분석한 책 〈바퀴의 재창조: 중세 불교 사원에서의 윤회륜화 연구(Reinventing the wheel: Paintings of the wheel of Rebirth in Medieval Buddhist Temples)〉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묘법연화경(The Lotus Sutra), 2009〉를 펴내 중국, 한국, 일본 문화에 불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배경을 추적했다.

한편 스티븐 타이저 교수는 2008년 서울대가 주최한 국제하계강좌(ISI)에 참여해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 강의했다.

2013년 까지 프린스턴대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할 예정인 타이저 교수는 "현재 중국불교 수행과 중국 중세의 불교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욕을 수 놓은 봉축 물결

### 조계종 미동부특별교구, 뉴욕봉축퍼레이드 개최

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는 오는 5월 6일 뉴욕 맨하탄에서 제24회 뉴욕 불교국제봉축퍼레이드를 개최했다.

1989년 시작돼 금년 제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ICCBB, 이사장 성해) 주최로 진행돼 왔으나,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가 행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에 이양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맨하턴 유니온스퀘어 파크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맨하턴 15번가-6애브뉴-18번가-브로드웨이-14번가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동부 교구와 지역 불교위원회(Buddhist Council)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법요식에서는 교구장 휘광스님과 일본 측 나가사키 스님, 스리랑카 측 삿다지와 스님이 축사를 진행했다.



2011년 뉴욕에서 열린 불교국제봉축퍼레이드에서 법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부처님 두개골 사리, 홍콩·마카오에 이운

### 中·香港불교연합 공동 주최… 제3회 세계불교포럼도 열려

중국 치샤사(Qixia Temple · 난징 소재)의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가 4월 25~30일 홍콩 콜리세움(Hong Kong Coliseum), 5월 1~4일 마카오 동아운동회체육관(Macao East Asian Games Dome)에서 각각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불교연합과 홍콩불교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문헌상에 '불정진골(佛頂眞骨)'로 표현되어 있는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는 2008년 중국 난징 금릉대보은사 터 지하궁전에서 발굴되어, 현존하는 유일한 두개골 사리로 평가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석가모니 치아사리만이 1999년과 2004년 두차례 전시되었을 뿐이다.

한편 중국불교연합은 4월 25일 제3회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11대 판첸 라마를 비롯해 50여 개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 '불상 보존', '불교 교육', '불교 복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와 금도금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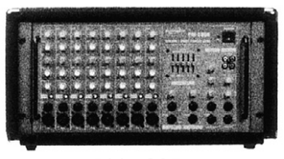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br>●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br>●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br>●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br>※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8주 과정<br>토요일반 |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 금강저 108염주

##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요!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토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 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

# 믿음과 정직의 산실!

##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3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2,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 (100개)
- 비 단 접 등(12㎝) 350,000원 (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 65,000원 |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05,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봉

# 국제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성주사 개산의식
# 청명 진성스님 주지 진산식 및 산사음악회

행

불교계 대덕큰스님 그리고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큰 어른들을 모시고
국제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개산의식 및
초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법석에 오시여 자리를 빛내주시라며
옷깃을 여미고 합장배례하며 초청의 글을 올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6년 5월 12일 9시 부터
  1부 : 개산의식 / 2부 : 주지 진산식 / 3부 : 산사음악회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1165-4번지
  성주산문 성주사
- 연락처 : 031)886-5560. 010-3566-3019

현담 송광. 불도 천장. 송몽. 성해. 남륜. 보현. 종문. 혜성. 무운. 자원. 심오. 자명. 정안 문영석
초대 주지 : 청명 진성 종 정 : 목탁 혜은 합장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유불도 화합 위해 허구 전해"

###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소견(所見)


보하의 호계삼소도

대표적인 중국의 삼대사상은 불교와 유교 도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불교적 변용(變容)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사상과 종교와의 타협이다.

중국의 불교는 인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그야말로 중국적인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점차 변해가다가 완전히 정착한 상태의 불교를 한반도로 전해준다. 현재 한국의 불교는 사실 당(唐)나라 방식의 선불교(禪佛教)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를 토착화시키려는 중국의 승려들과 불자들은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도전(挑戰)하기도 하고 엄청난 분량의 중국적인 불교 위경(僞經)을 지어내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지배하에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종교로서의 현재를 만들어냈다.

### 혜원 · 도연명 · 육수정 가상 만남
### 新사상 수용 및 전파 보여줘

그런 과정에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호계삼소(虎溪三笑)이다. 남송(南宋)의 진성유(陳聖俞)가 지은 〈여산기〉(廬山記)에 보면 동진(東晋)의 유명한 학승인 혜원(慧遠)이 사는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귀거래사(歸去來辭)로 유명한 당대의 시인인 도연명(陶淵明)과 도교(道教) 교학을 대성한 도사(道士) 육수정(陸修靜)이 찾아온다.

당시(當時) 혜원 화상은 동림사에 살면서 서원하기를 평생 산문(山門)밖을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한다. 적어도 30년간 혜원스님은 속세(俗世)와 산중(山中)을 가르는 경계인 호계(虎溪)넘어간 적이 없었다. 혜원스님이 호계를 넘으려 하면 호랑이가 크게 울어 경고(警告)를 하기에 혜원스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유교(儒教)를 대표하는 선비인 도연명과 도사(道士) 육수정이 찾아와 종일 차담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교유(交遊)를 즐겼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호계에 걸친 다리를 지나버렸다. 그 순간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서원을 깬 것을 알고도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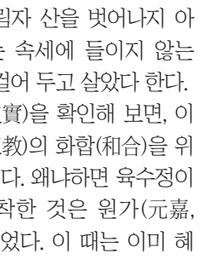
여산(廬山) 혜원(慧遠)은 유교를 어릴 때 익히고, 이어서 노장(老莊)의 도를 닦다가 20여세가 넘어 출가해서 여산에서 불교역경(佛教譯經)에 전념했다.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모아 염불결사인 '백련사(白蓮社)'라는 결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스님은 평소 '影不出山 跡不入俗 '(그림자 산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발자취는 속세에 들이지 않는다)는 글을 써서 걸어 두고 살았다 한다.

그러나 사실(史實)을 확인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삼교(三教)의 화합(和合)을 위한 위조된 이야기다. 왜냐하면 육수정이 여산에 처음 도착한 것은 원가(元嘉, 424-453) 말년이었다. 이 때는 이미 혜원이 입적(入寂)한 30년 후이며 도연명이 죽은 20년 후이기에 세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한 · 중 · 일 동양 삼국의 나라에서 그 이후 계속해서 그려지고 감상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이 그린 그림이 전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웬만한 대가들은 다 한 번씩 그리는 인기 있는 주제다.

그리하여 최근에 종교간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비구니, 원불교 교무, 가톨릭 수녀회가 모임을 갖이 하면서 그 이름을 딴 '삼소회(三笑會)' 라는 만남도 이루어졌다.

그건 그렇고,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호전적(好戰的)이고, 배타적(排他的)인 두 가지 특성을 지닌 미국식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이 상황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구도의길서 만난 '무념처'…렌즈에 담아

### 박연희 첫 사진전…5월 29일까지

수행승들의 공간을 찾아다니던 작가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졌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선지식들을 찾아 다니며 의문을 풀어가던 작가는 자신의 구도 과정을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래서 텅빈 공간 덩그런히 접힌 좌복, 열려진 방문으로 보이던 뒤뜰은 단순한 배경 사진이 아닌 구도의 길에 선 선승들의 오롯한 삶을 담아냈다.

박연희의 무념처 (無念處)전이 5월 29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트렁크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처 등을 담은 작품 15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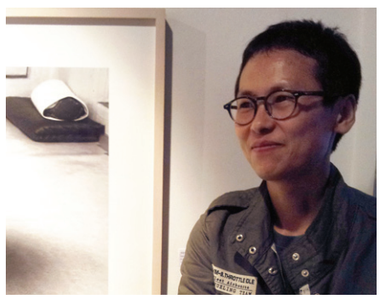
트렁크 갤러리는 "신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들이 선의 세계를 통해 허무함 허탈함 덧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에 쉬어 가는 기분으로 찾아와 위로받고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획 취지를 말한다.

박 작가는 2007년 늦깎이로 계원 예술대에서 사진 전공을 시작할 때부터 불교를 작품 속에 담아 보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히 불교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발원을 하니 어느날 불교적 소재가 나한테 오더라"며 4년 전부터 기획된 작업의 시작을 이야기 한다.

이후 그는 전국의 사찰과 토굴을 돌아다니며 수행 스님들의 삶과 사상이 깃든 공간을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수행하는 스님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녹아날 정도로 위로가 됐어요. 한 분 한 분이 모두 선지식이었죠"

4년 여 촬영 기간 동안 그는 불교의 본질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불교가 막연한 신앙이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삶이 왜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발심을 하게 됐죠"

이제 새로운 구도의 길에 들어선 박 작가는 매일 좌선으로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삶들을 다음 작업에서도 녹여내고자 한다.


박연희 작가가 자신의 작품앞에서 웃고 있다.

**선지식 수행처 담은 작품 15점 선봬**
**4년 촬영기간 불교 본질 공부**
**매일 좌선으로 수행정진 일과**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 화두를 작업 기간 내내 물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이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겁니다. 다음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저의 작품이 돈이나 명예를 갈구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는 그의 작품이 불교를 알리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렌즈 속에 禪적인 삶을 담아낼 것이다. (02)3210-1233


박연희 작가는 5월 29일까지 스님들의 수행처를 담은 사진전을 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무위자연' 섭리 50년 화폭에 펼쳐

### 민경갑 화백 33년만에 개인전
### 6월 3일까지 시립미술관서



"도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도가 곧 자연이며 자연이 움직이는 것이 도이자 섭리죠. 작가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과 시대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 자신만의 유니크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50년 동안 제 정신 세계의 변화를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 동양화 1세대인 민경갑 화백 〈사진〉의 개인전 '자연에서 길을 묻다'가 5월 8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본관(6월 3일까지)과 남서울미술관(7월 8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민 화백은 50년 동안 그려온 자신의 작품 107점을 선보인다. 1979년 첫 개인전 이후 33년만에 여는 전시다.

"그동안 부스 개인전 형식의 아트페어는 간간이 참여했지만 개인 전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33년만에 전시를 열게 되었네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을 찾아 가려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1969년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출품하는 등 해외서도 주목을 받았던 민 화백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연과 한국적 정서의 결합을 화폭에 담아왔다. 현대와 전통을 오가는 그의 작품은 화선지와 묵 천연안료 재료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무중의 세계-자연과의 조화-공존-자연속으로-무위자연-진여의 세계 등으로 지난 50년 작품 세계를 펼쳐낸다.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동양화의 매력에 푹 빠졌죠. 전공을 동양화로 선택하고 난 이후 새로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했어요. 침봉으로 화선지를 너무 두드려서 장판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다리미도 다려보고 인두도 지져보고 온갖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질감을 내보려고 노력했어요"


민경갑 화백은 33년만에 두번째 개인전을 연다. 6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작품 107점을 선보인다.

그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일체의 기교와 인위가 작용하지 않는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과 예술 세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민 화백. 특히 '자연속으로'라는 작품은 성황당의 깃발을 모티브로 비상과 비구상으로 표현해 냈다.

한국인만의 정서를 찾고 자연과의 합일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작업들은 불교와도 맞닿아 있다. 민 화백은 90년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탑, 미륵반가사유상, 연꽃 등을 소재로 한 불교적 세계를 작품에 담아왔다.

민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교적 소재로 된 작품도 다수 그려왔다. 전통과 자연이라는 정신적 사상을 찾다보면 결국 불교와도 만나게 돼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60부터라며 현재 자신이 스무살이라고 말하는 민 경갑 화백은 앞으로도 한국인만의 유니크한 세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양철학은 천지만물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합일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신은 무가 혹은 도의 사상 불교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앞으로도 자연의 섭리를 표현하고 자연이 지닌 본질적인 세계를 표현하며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경갑 화백은 서울대 미술대를 졸업하고 쌍 파울로 비엔날레에 초대 출품했고 ▷서울올림픽 현대세계미술제 운영위원회 위원 ▷불교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회 위원 ▷동덕여대 · 영남대 · 원광대 교수로 재직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각 사찰에 불사포교에 도움이되도록 액자용. 족자용.
부처님 점안시 복장용. 부처님오신날 선물용.
특별히 제작 원가 보급합니다.

화엄진리의 세계를 함축한
대승경지의 정수. 법성도.

삼라만상의 진리와 영원한 대승법이
담겨 있는 법성도는 수지독송함은 물론
가까이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며.
무장무애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장애와 걸림을 없게 합니다.




일체 번뇌망상, 괴로움과 슬픔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법성도!

수승한 영험과 공덕.기와 법이 살아있는 화엄 일승 법성도의 바다에서
일체만법과 지혜공덕을 구족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법 성 원 ☎ 전화 1688-7671
홈페이지 www.bswon.com

# 사찰의식 국악예술로 승화…감동 '선사'

## KBS국악관현악단 봉축 특집 무대 마련
## '국악, 불교와 通하다'… 5월 17일 오후 8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 예불의식이 국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KBS국악관현악단은 5월 17일 오후 8시 KBS홀에서 '국악, 불교와 通하다'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상음악과 종교음악의 교차점에서 새로움을 탐구하는 작곡가 김영동씨(서울예술대 한국음악과 학과장)가 지휘를, 봉은사 선불 남성합창단(단장 민선희)이 합창을 맡았다.

KBS국악관현악단은 "김영동 교수의 지휘로 사찰 예불의식을 공연장으로 옮겨와 불교의 신세계를 국악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예부터 국악과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졌다는 불교음악 범패는 널리 국악의 범주에 속하는 음악이었고 지금도 애창되는 판소리나 민요에는 불교음악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있다.

KBS국악관현악단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영임 명창의 소리로 유명한 '회심곡'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은중경'이라고도 불리는 회심곡은 원래 불교 포교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국악과 불교는 오래전부터 서로 '通하는 사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찰에서 새벽 예불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만드는 의식인 도량석과 우리음악 생소병주 수룡음이 만난다. 여기에 만물을 깨우는 의미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범종(梵鐘)이 차례로 무대에 선보인다. 또한 예불소리를 주된 소재로 고요한 새벽 사찰에서 들리는

### 김영동 지휘·봉은사 선불합창단
### 불교음악의 신세계 보여줘

모든 사물의 소리를 예불의식 과정 속에 녹여내 화제를 모았던 김영동 작곡의 '화엄'을 감상 할 수 있다.

합창을 맡은 봉은사 선불 남성합창단은 지난 2005년 창단 ▷서울 불청대회 거리행사 참여 ▷봉은사 송구영신 제야의 밤 행사 ▷경기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 2007 나라음악큰잔치 공연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송년음악회 등에 참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단장 민선희 씨는 "교수부터 대기업 사원까지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구성된 남성 단원 스물 다섯 명이 모여 목탁을 치면서 지심귀명례와 예불의식을 무대에서 펼친다. 신심이 강한 분들로 구성된 만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휘를 맡은 김영동 씨는 1980년대부터 불교의 세계를 음악으로 탐구했다. 영국 뉴그로브 음악사전 뉴밀레니엄 판에 '세계의 작곡가'로 등재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명상음악과 종교음악을 통해 새로운 우리 가락과 소리를 모색하고 있다. 김 씨는 서울대 국악과 졸업을 했고 대한민국 작곡상, 벨기에 국제영화제 음악상, 아시아 태평양영화제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지휘자 역임했고 2012 여수 EXPO 문화예술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티켓은 S석 25,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02)781-224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KBS국악관현악단은 5월 17일 봉축 특집 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김영동씨가 지휘를 맡아 화엄 등의 공연을 펼친다.

# "팔만대장경, 천년 지혜로 새 미래 열다"

## 금산사 · 전북도립국악원 초청 공연
## 5월 15일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모악홀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며 기록문화의 보고인 팔만대장경. 편찬 천년의 해를 맞아 지난해 초연됐던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현창)관현악단과 전북불교연합합창단의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근심 없는 나무들의 합창'이 봉축을 맞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와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5월 15일 오후 7시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홀에서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초청 특별기획 '팔만대장경'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우리 민족의 성보(聖寶)인 팔만 대장경 안에 담긴 이야기를 관현악뿐만 아니라 피아노, 사물놀이, 합창, 무용, 서예,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장르를 넘나들며 때로는 유려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표현해낸다.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팔만대장경에 깃든 무수한 이야기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지게 된다.

총 6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부처님 생애서부터 깨달음, 초조 및 재조, 팔만대장경 제작 배경과 과정, 의미와 가치 등에 이르기까지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대장경 역사를 다양한 연주 형태로 풀어낸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진옥 연출로 석상훈스님, 임동창, 여태명, 영산작법 보존회, 전북불교연합합창단 등 총 223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2시간 동안의 웅장하고 장엄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관객들은 팔만대장경에 담긴 가치와 정신 그리고 지혜와 진리를 되새기길 것으로 보인다.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은 이번 공연에 대해 "팔만대장경은 중생구제 차원을 넘어 호국과 애민을 담은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금산사 또한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의승병 스님들의 원력이 살아 있는 호국도량"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5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민족의 혼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차경자 바라밀 합창단장은 "전 단원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바라밀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무주 향산사 부루나 합창단이 참여한다. 또한 이들은 오는 6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WFB) 총회기간 동안에도 공연하게 된다. (063)277-3497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와 전북도립국악원은 공동으로 5월 15일 '팔만대장경'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모습

# 연당 조해종 불화 초대전…55점 선 봬

## 6월 3일까지 통도사박물관

연당 조해종 불모의 불화초대전이 6월 3일까지 통도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그동안 불모의 혼을 담은 불화 작품 55점을 선보인다.

통도사박물관은 "우리나라 불화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불모로서의 사명과 오늘에 맞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열정이 담긴 조해종 불모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불화를 공부하고 익히는 수많은 젊은 불모들에게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해종 불모는 동국대와 동대학원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대구무형문화재 제 14호 단청장 송곡 조정우, 본연 전연호 선생의 문하에서 사사했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999년 불화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괘불 전시 및 불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해왔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 불교문화를 전파해왔다. (055)382-1001



조해종의 석가모니 후불탱

# 신비의 땅 앙코르, 34개 작품에 담아

## 심상 23주년 특별 기획전

불교문화사진 동우회 심상(心像)이 23주년 특별 기획전 '심상 Angkor 유적에 서다' 전시를 연다. 5월 18일~23일 부천시 문예홍보관(부천역사내)과 5월 27일~28 부천 석왕사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앙코르를 배경으로 한 34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심상 고외숙 씨는 "특별 기획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비의 땅 캄보디아 앙코르를 담았다. 앙코르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수십 개의 불교사원을 건설한 앙코르 문화의 꽃을 피웠던 불교 유적지다. 그러나 힌두교가 세력을 잡은 후 많은 불교 예술품이 파괴되어버린 그곳을 작가적 시선으로 담아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쁘레아칸 바이욘 앙코르왓 등을 담은 34개의 작품에 18명 회원이 참여했다.

심상 고외숙 씨는 "1989년 심상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해외불교문화 유적지 탐방이었다. 세계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보호하는데 있어 심상의 사진이 조금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010)3226-7047 **정혜숙 기자**



사진은 앙코르와트 전경

# 사방에 연꽃 피니 중생 근심 녹아

## 이순이 연꽃전 5월 16일부터

"연꽃을 보고 있으면 환희롭습니다. 연밭에서 날마다 연꽃이 피는 것처럼 나의 그림 작업도 날마다 연꽃이 핍니다. 머리 깎고 먹물옷 입은 수행자는 아니지만 연꽃을 그리는 동안만은 수행자가 됩니다"

이순이 작가의 '연꽃'전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안마을 내 학수정사에서 열린다. 미술 교사로 활동해온 작가는 퇴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연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 작품 스물 한 점이 선보인다.

이 작가는 "오늘 아침에도 나의 화폭에 연꽃이 피고 있다. 부처님 앞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수행 끝에 환희에 이르는 경지가 이런 것일까 어렴풋 짐작할 뿐"이라고 전한다.

그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모두가 연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33)744-7666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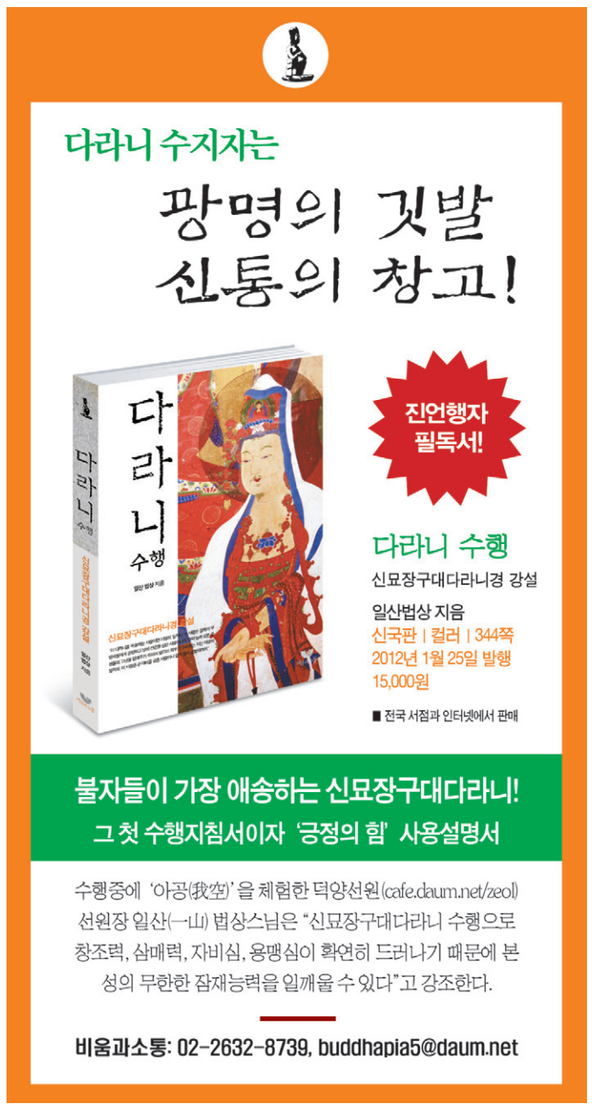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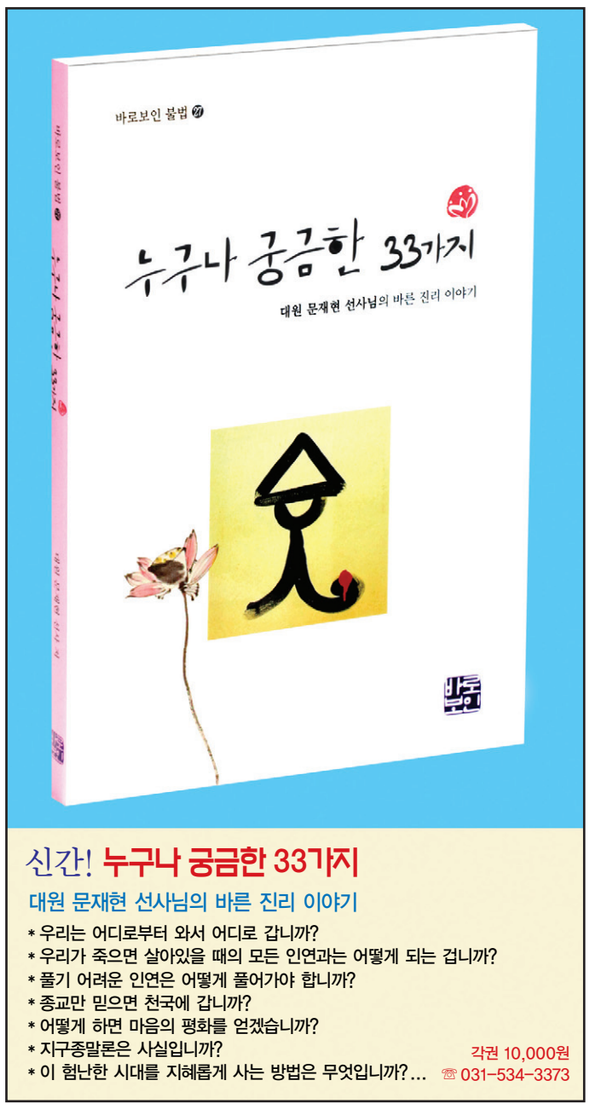
이순이 作, '연꽃'







# 또 한 편의 '중생 걱정'

## 달마어록

**김호귀 편역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어록이다.

선(禪)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인도의 역대 조사들을 통하여 부처님의 깨침인 정법안장이 면면히 계승되면서 보리달마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달마의 어록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중국의 돈황 지방에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서 달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최고(最古)의 문헌이다. 제1장에서는 보리달마의 선법과 그 특징, 보리달마와 중국의 선종, 보리달마 선법의 전승에 대해 서술하고 하고 있다.

"선이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고 나서부터는 그 행적(行的0인 문화성격과 결부되어 일찍이 인도에서 볼 수 없었던 특색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에 있어서 처음 독립적인 한 계통을 이룬 선종은 보리달마의 서래(西來)에서 기인한다. 물론 달마가 서래한 당시의 교학계는 이와 같은 특이한 선자(禪者)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제2장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묻는다. 여래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진여를 깨쳐서 중생세계에 대응하는 것을 여래라 말한다. 묻는다. 불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여법하게 깨쳤지만 깨친 것에 대하여 깨쳤다는 상이 없으므로 불이라 말한다. 묻는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마음이 여법하여 발생할지도 않고 마음이 여법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법이라 말한다. 묻는다. 승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여법하게 화합하므로 승이라 말한다." 제3장에서는 〈소실육문집〉에는 '안심법문', '오성론', 혈맥론을 수록하여 또 다른 달마의 법어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보리달마는 중국선의 초조다. 달마가 전승한 선법을 조사선(祖師禪)이라고 한다. 조사선의 가풍은 달마조사로부터 유래한 가르침이란 뜻으로서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붓다와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내세운다. 따라서 여기서 소개하는 달마의 가르침은 지극히 일상적이면서 그 일상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는 가르침인 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달마의 민낯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읽어내는 안목이다."고 했다.

책에서 보리달마는 "내가 일부러 이 땅을 찾아온 것은 전법하여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다."고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이나 보리달마가 동쪽을 찾아간 이유나 모두 '중생 걱정'이였다. 중생을 걱정하는 보리달마의 어록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일본의 현대판 다경(茶經)

## 다도의 철학

**히사마츠 신이치 지음 | 김수인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펴냄 | 1만2천원**



차 문화의 근간이 선불교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형식에 치우친 일본 다도문화를 비판하는 일본의 현대판 다경(茶經) 〈다도의 철학〉이 번역되어 나왔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차 문화의 사상적 근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선과 차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하여 독특한 다도철학을 형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다인이다. 그리고 역자인 수인 스님 또한 우리나라 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다인이다. 저자는 다도 문화를 본질적으로 종교의 화현이라고 보고 있다. 그 종교는 불교이고, 그 중에서 선불교다. 선은 모든 형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형상의 부정이 선의 출발이며, 선에서 말하는 무상(無常)의 인간이 인간의 진실한 본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형상이 없는 인간, 즉 '무상의 자기'를 자각하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무상의 자각이 형상화 되어 나타난 것이 다도(茶道)라고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다도론〉에서는 형식에 치우쳐 새로운 다도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현재 일본의 다도 문화를 통렬히 비판하고, 무상의 자각을 추구하는 다도 본영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두 번째 〈다도의 잠언〉에는 다도 본연의 깨달음에서 출발한 다도철학의 영역을 15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사상과 문화를 다루고 있다.

수인 스님은 이번 책이 우리나라 다인들에게도 각성과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적 다도철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박재완 기자**

서재탐방 |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 불교는 마음대로 안되는 '마음 해결'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72)는 명강사다. 특히 스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불교와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수업을 잘하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학담 스님 등 교계의 웬만한 스님까지도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그의 강의는 유명했다.

이 교수는 또 논쟁이 많은 학계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최근까지 불교학회에 참석한 그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논쟁이 벌어질 때도 상대를 인신공격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만큼 이 교수는 온화한 인격자로 실리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범을 보여 동료학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의 삶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대전 충남대 앞에 살고 있는 이평래 교수를 찾았다.

이 교수는 방 2칸을 서재로 쓰고 있다. 한 방은 모두 책을 쌓아놓는 서재로, 나머지 한 곳은 원고 작업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5000여 권을 갖고 있는 그의 서재에서 금방 눈에 띄는 책이 있었다. 독일 동양철학자 막스 뮐러(Max Muller)가 편집 출판한 〈동방성서(The Sacred Books of the East, 1879)〉 전집 50권이다. 〈동방성서〉는 첫 권 우파니샤드를 시작으로 불교의 경전과 율장, 중국의 〈사서삼경〉, 힌두교의 여러 성전들을 번역해서 총 50권으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펴냈다.

이 밖에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한 학자답게 그의 서재에는 일본어로 된 〈신수대장경〉 〈대승기신론〉 등이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시기 속에서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겨우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이 교수는 학비가 들지 않는 전주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철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쇼펜하우어, 니체, 칼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 실존철학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한계상황에 반응하는 의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했다.

"불교에서 하는 참선 일주일만 하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불안, 실존철학에 나오는 사유는 모두 해결된다."

서양철학서를 탐독하던 이 교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서관으로 가 불교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이 교수가 처음 접한 것이 〈금강경〉 〈반야심경〉 이였다. 이 교수는 룸비니회에 가입해 불교운동을 하며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를 비롯해 불교 수필책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이 교수는 교편을 잡고 있었지만 불교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친구들의 권유로 서울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한 그는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했던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막노동 일과 학원강사로 생계를 꾸렸다. 이때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에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평래 교수는 공부를 하면서 독서도 꾸준히 한다. 한 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읽는 그는 현재 〈최무영의 교수의 물리학 강의〉를 읽고 있다.

**〈동방성서〉 50권 등 5000권 소장**
**룸비니회 가입 불서 읽으며 불교운동**
**日 유학 후 충남대서 '불교개론' 첫 수업**
**현재 〈대승기신론〉 주해서 작업 중**

주경야독으로 불교공부에 매진하던 그는 동국대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장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37살에 곧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고마자와 대학에는 여래장 연구의 일인자인 다카사키 직기도(高崎直道) 동경대 교수가 출강하고 있었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영어 한문 일본어에 능통한 다카사키의 여래장 삼부경 강의는 이 교수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 교수는 다카사키 교수의 지원 덕분에 '신라불교 여래장 사상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스승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1981년 충남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평래 교수는 '불교개론'을 첫 수업으로 가르쳤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명료하게 다가왔고 개신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번은 동학사 강주 스님이 이 교수의 집에 찾아와 '인도불교학'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요청에 응하자 이번에는 운문사의 명성 스님이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수는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방학에는 동학사 운문사 해인사 봉녕사 금산사 송광사 등 학승이 모인 곳에서 〈대승기신론〉 〈법화경〉 등을 강의했다. 1984년 금산사에서 이 교수가 강의한 〈대승기신론〉 녹취테이프는 아직도 승가에서 공유될 정도로 유명한 강의가 됐다.

2007년 충남대 철학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그는 여전히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길상사에서는 불교요가를 가르치고 그의 자택에서는 1991년부터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 바르게 읽기 운동'과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보급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문으로 중역(重譯)된 경전대신 원어로 쓰인 경전을 통해 불교를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다.

이 교수는 2004년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선임됐다. 1973년에 창립된 한국불교학회에서 동국대가 아닌 외부 학교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 된 것은 이평래 교수가 처음이다. 2008년까지 연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그는 한국불교학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2005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해 매월 100만원 씩 모연을 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주석과 해설을 달고 있다. 1/3정도 진행한 상태다.

"〈대승기신론〉 주해서를 펴내고 나서 〈여래장 삼부경〉 주석서를 달 계획입니다. 제 생명이 다할 때 까지 저술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려면 체력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요가와 108배를 하고 있지요."

전쟁과 가난의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불교학을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해온 이평래 교수. 그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면모는 자연스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5~5/1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2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출판 |
| 3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4 | 탄허록 | 탄허 | 휴 |
| 5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 공감 |
| 6 | 친절한 간화선 | 월암 | 담앤북스 |
| 7 |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 원택 | 글씨미디어 |
| 8 | 걱정말고 기도하라 | 법안 | 은행나무 |
| 9 | 경허 | 일지 | 민족사 |
| 10 | 당신은 행복한가 | 달라이 라마 | 문학의숲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분별타파 경계 초월하는것이 '무아'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지음**
**그린비 펴냄**
**1만9천원**

장타이옌(1869~1936), 어떤 이는 청대 학술의 대가이자 국학대사로, 혹은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루쉰 스승으로 그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를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그는 청말을 대표하는 고문경학자이자 국학자였던 동시에 유식불교에 정통한 불교학자였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시대에 구멍을 뚫어야했던 당시 젊은이들의 스승으로서 그들 앞에 서야 했던 혁명가였다. 당대에 닥친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했던 중국 근대불교와 고승들에 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젊은 학자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이 책을 통해 가장 오래된 종교이자 학문이었던 불교를 통해 현실을 구제하려 했던 장타이옌의 생애와 혁명이론을 정밀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무'라는, 근대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부정 혹은 거부'다.

'무'는 불교의 옷을 입고 장타이옌에게 왔고 그것은 그의 정치활동에 원동력이 됐다. 무가 있었기에 그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서구의 침략을 거부할 수 있었고, 무조건적인 진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었다.

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그런 것 없다고 말해 버림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을 식혀 버리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대 시기 중국불교가 수행한 역할이었다.

장타옌은 "불교는 결코 사회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과감한 폭로와 철저한 부정은 인류에게 자아 인식의 거울을 끊임없이 제공하였고, 인류가 부단

**장타이옌, 유식불교 정통한 불교학자**
**'무'의 불교로 현실 구제 탐색해**
**근대시기 진화론 지식인에게 핫이슈**

히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고 시정하도록 격발하고 자유와 행복의 참된 길을 찾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장타이옌이 마주하고 실천했던 그 '무'를 살피고 있다. 소보 사건으로 인한 3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쑨원이 있는 도쿄로 향한 장타이옌이 그 해에 처음으로 발표한 글의 제목은 '구분진화론'. 근대 시기 세계 어디서나 진화론은 지식인들에게 핫이슈였다.

그것은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한 장타이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당대 중국의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진화론의 허점을 비판했다.

장타이옌은 진화는 상반된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선도 진화하지만 악도 진화하며, 쾌락이 진화하면 고통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과 달랐던 점이었다.

"옷 입고, 밥 먹고, 잠잘 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이 부족하면 서로 다투고 죽이는 행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혹론'이라는 글에서는 유식불교(세계는 오직 의작용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것의 공함을 깨닫는 것을 수행목표로 삼은 불교)의 개념을 빌려 '진화란 없다'고 주장한다.

"진화란 본래 아뢰야식의 미망이 구성한 것이지 실제로 진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식으로 봐도 일체 물질은 근본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쪽에서 보면 진화할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보면 퇴보일 뿐"이라며 도대체 뭘 진화라고 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장타이옌이 이 글을 쓴 지 100년이 넘게 흘렀고 량치차오의 바람처럼 중국 인종이 백인종에 매우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장타이옌의 질문은 계속된다.

장타이옌이 내세우는 개체는 그의 글 '인무아론'이나 '오무론'에 보이듯이 초월하는 개체, 즉 '무아'를 말한다.

이는 선언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식론·존재론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에야 가능하며, "통념적 인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한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취락, 인류, 중생, 세계를 모두 '무'화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무아'다. 무아는 '나'를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철저한 타자가 됨으로써 윤리가 된다.

분별을 타파하여 지혜를 획득하는 것, 단절과 불연속을 통해 새로운 차이를 만들

**유식불교 개념빌려 '진화없다' 주장**
**무아는 불연속 통해 새 차이 만들어**
**결국 '나'도 없다, 불교 무아의 윤리**

어 내는 것,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장타이옌이 주장했던 무아의 윤리였다.

그리고 장타이옌이 가리키는 윤리의 지점에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윤리'라고 하는 것의 빈약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공도덕이니 법이니 하는 이름으로 적절한 선에서 대중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그 윤리를 계속 그러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혁명가 장타이옌은 묻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빠알리어 연구의 친절한 길라잡이

**전재성 박사, 巴韓韓巴-빠알리어 사전 발간**

## 빠알리어사전

**전재성 편저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12만원**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도구는 바로 '사전'이다. 부처님 당시 사용됐던 빠알리어도 마찬가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근본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언어이지만, 이를 다룬 사전을 많지 않다.

빠알리어 사전은 1875년 칠더스가 집필한 빠알리어 사전을 최초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전이 나왔지만 집필이 중단되거나 보완할 점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1994, 2005년 〈빠알리어 사전 상, 하〉와 〈빠알리어-한글사전〉을 각각 출간했다. 전 회장이 최근 다시 발간한 〈빠알리어 사전〉은 앞서의 두 사전을 합쳐 보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빠알리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휘 뿐 아니라 빠알리어 자체에 대한 문헌적인 지식과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출판된 다른 나라의 모든 사전에서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전은 이런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12만여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어휘들이다. 여기에 기존 사전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빠알리경전에 사용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휘를 모았고, 근현대적으로 성립된 빠알리어도 추가했다.

또한 기초편과 문법편, 어원편을 신설해 기본적인 문법과 빠알리 어근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문법편에서는 기본적인 문법뿐만 아니라 난해한 불규칙 명사·형용사 변화와 동사활용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원편은 빠알리어근활용사전 등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쉽게 추적하고, 활용된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수록된 '빠알리어한글표기법', '불교의 세계관', '빠알리대장경 구성' 등도 빠알리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번 사전의 구성에 대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누락된 복합어 부분을 보완하고 교정하면서 중요한 법수적 어휘와 아비달마적 용어를 새롭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붓다닷따(Buddhadatta)의 〈영어-빠알리어 사전(English- Pali Dictionary)〉을 참고로 현대어의 빠알리어적 표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석 선장의 못다한 297일간 이야기



**그들은 나를 캡틴이라 불렀다**
**석해균 지음**
**플러스81스튜디오 펴냄**
**1만2500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다. 이를 석 선장의 회고록 형식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비화와 해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배를 지켜냈던 석 선장의 저항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또한 갑판원서 출발, 선장이 되기까지 석 선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여정과 남다른 조국애가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2011년 1월 15일 오전 8시. 삼호 주얼리호는 인도와 오만 사이의 인도양 북부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이틀 전인 1월 13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港)서 연료를 보충하고 목적지 스리랑카 콜롬보항(港)로 운항 중이었다.

피랍 위치는 인도양의 공해상,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 영해까지 7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14노트의 정상속도로 운항한다면 이틀이면 닿을 거리였다. 피랍선이 일단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하면, 최영함(艦)은 군사작전은커녕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갈 수도 없다. 타국의 군함이 자국의 영해로 들어오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기 때문이다.

석 선장은 해적들의 방심을 틈타 이메일로 청해부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청해부대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달라"고 회신했다. 석 선장에게 새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언론에는 석 선장이 배를 '지그재그'로

**비공개 된 '아덴만' 작전 공개**
**신념과 기지로 극복한 위기들**
**바다와 함께 한 인생 역정도 소개**

운항함으로써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만 보도했다. 하지만 석 선장은 지그재그 운항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삼호 주얼리호의 운항을 지연했다.

엔진 고장을 위장한 저속 운항은 물론, '청수(淸水) 버리기'도 그 중의 하나다. 청수는 배의 연료를 가열하는 보일러에 사용되므로 청수가 없으면 배는 멈출 수밖에 없다.

그 밖에 기관실 화재, 엔진에 물 넣기, 피랍 후 위급한 선내 상황을 알리기 위한 'Un~ 신호 보내기', 신호발사기로 구조신호 보내기 등 석 선장은 작전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었는지 석 선장은 피랍 며칠 전 '방향지시기(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지그재그 운항법을 3등 항해사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석 선장이 해적에게 감금돼 감시 당할 때는 3등항해사가 지그재그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주얼리호가 피랍된 뒤 약 6일간 펼쳐진 청해부대의 교묘한 허위 작전과 함께 석 선장이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던 순간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아덴만 여명작전의 여러 비화를 사실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우리 직면 문제 '화해' 하면 다 풀려

## 화해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

**정공 스님 지음 | 바람과 우레 펴냄 | 1만2천원**



중화권 불교계를 대표하는 정공 스님의 대담집이다. 정공 스님은 5년간의 수행 중 1일 1식(만두 2개)을 실천한 참 수행자이며, 출가 후 50여 년 한결같이 불경을 강의해 온 큰 스승이다.

일생 TV와 신문, 잡지를 접하지 않았지만, 정공 스님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답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금융위기, 기후변화, 자연재해, 기근, 에너지 부족, 전염병 등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해법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해법과 대안에서 스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화해의 마음이다. 나와 나, 나와 남, 나와 자연, 나와 우주가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정공 스님은 중화권 불교계 최고의 선지식으로 통하는 큰 스님이다. 올해 86세의 노스님으로 출가 이후 50여 년을 오직 불경 강의에만 전념해 온 진정한 학승이다.

중화권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정공 스님이 아직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이번에 법문집이 번역되어 한국 불교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공 스님 법문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성에 있다.

**김주일 기자**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2쪽
각권정가 10,000원

吳 熙 奎
· 백암 철학원 원장
· 전남 도민신문 이주일의운세 담당자
· 월간 직업뉴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호남인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웨딩센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작은소리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예향 생활철학 이야기 연재
· 전남 매일신문 오늘의 운세 담당자
계간 "행복채널" 발행인
2005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선발대회 심사의원
2005 엘리트모델 광주, 전남북 선발대회 심사의원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내림이야기
주벽이야기
의처증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우리음식 궁합이야기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운명의 대부분은 욕심의 반대쪽으로 휜다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 책을 구입하신 분께는 가시오가피 1박스(1만원)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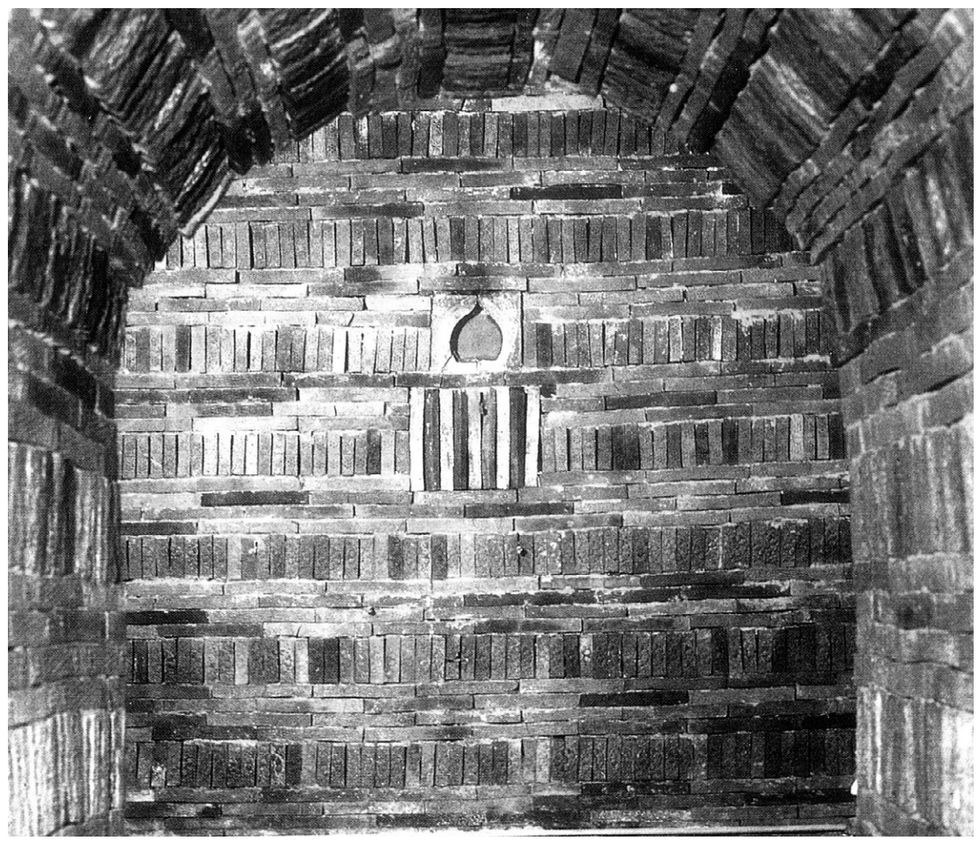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사마왕 즉 무녕왕이 왜국에서 태어난 까닭은?

# 곤지가 무녕왕 데리고 왜국으로 건너가



무녕왕릉으로 인해 존재가 드러난 무녕왕은 당시 국력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국제전을 전개한 장본인이다.

### 사마(무녕)왕의 귀국

1971년 7월 어느 날에 공주의 무녕왕릉이 발굴되었다. 무덤은 수만 장의 벽돌로 지은 정교한 집과 같았다. 하지만 이 낯선 형식의 벽돌무덤 속의 주인공이 무녕왕일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25대 사마왕이 무녕왕임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서기』는 이 무덤의 신분과 출생을 알려주었다. 주인공은 사마(무녕)왕과 그 왕비였다. 이 왕릉은 많은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곳이다. 발굴 당시 이 무덤의 문은 매우 단단하게 회칠이 되어 있었다.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화려한 백제미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을 열었던 당시 발굴단(단장 김원룡)은 발굴 도중 200밀리미터의 장마비를 만났다. 이들은 무덤 속의 108종 3000여 부장 유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었으며, 왜 이런 유물들이 안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하룻밤에 발굴을 끝냈다. 최초의 위대한 발굴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발굴이 되었다.

백제의 아신(阿莘)왕은 가야에 이어 왜국과 화친을 맺고 맏아들인 태자 전지(腆支, 直支)를 왜국에 보냈다. 왕이 죽자 둘째 아우 훈해(訓解)가 정사를 대행하며 태자의 환국을 기다렸는데, 막내 아우 첩례(첩禮)가 훈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전지는 왜국 군사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해도(海島)에 기다렸는데 나라 사람들이 첩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아 즉위하게 하였다. 그를 이은 구이신(久尒辛)왕은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다시 비유(毗有)왕이 왕위에 올랐다. 비유왕이 29년을 재위한 뒤 승하하자 아들인 개로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위와 신라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고구려와는 전쟁을 끊이지 없었다. 고구려는 개로왕(蓋鹵, 近蓋婁)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둑의 고수인 승려 도림(道琳)을 첩자로 삼아 백제 왕실에 침투시켰다.

개로왕은 재위 21년 이래 도림의 꾀임에 넘어서 바둑으로 일관하였다. 바둑으로 신임을 얻은 도림의 꾀임에 의해 국민을 동원하여 궁실과 누각과 대사를 굉장하고 화려하게 마련하자 창고가 텅비고

**日 가당도에 '무녕왕탄생지' 신위 모셔져**

**무녕왕른 규모 대왕으로서 권위 보여줘**

백성이 곤궁하여 나라의 위태함이 알[卵]을 포개 놓은 것 같았다. 도림이 고구려로 도망하여 이 정황을 장수왕에게 알리자 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개로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으나 고구려 군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성을 태우자 궁박했던 개로왕은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문을 열고 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에게 살해당했다. 결국 개로왕은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이로써 한성백제는 문을 닫았다. 그의 아들인 문주(文周, 汶洲)왕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문주왕이 재위 4년 만에 실권을 잡은 병관좌평 해구(解仇)에게 시해되자 그 맏아들인 삼근(三近)왕이 재위에 올랐다. 하지만 삼근왕 역시 재위 3년 만에 승하했다. 문주왕의 아우 곤지(昆支)의 아들인 동성왕이 재위에 올랐다. 담력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았던 동성왕은 재위 23년에 신라와 전투를 벌이던 중 가림성(加林城, 임천 성흥산성)을 지키라고 명했으나 가기를 싫어하고 사직을 한 장군 백가의 자객에게 시해당했다. 동성왕은 왜국에서 태어난 동성왕의 둘째 아들 사마(隆)를 왕위에 올렸으니 그가 바로 무녕왕이다.

### 무녕왕의 즉위와 국제화

개로왕(기록은 문주왕?)의 아우였던 곤지는 461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곤지는 여인은 돌려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왜국의 오오사카로 건너갔다. 하비키노시 아쇼카 마을에 남아있는 아스카베 신사(飛鳥戸神祀)에서는 기금도 '백제의 곤지왕(琨知王)이 죽어서 조상신으로 추대되어 추앙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곤지가 일본 열도내에서 기반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곳의 신사에는 사마가 '섬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온 아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섬은 큐수 후쿠오카 북쪽에 있는 가카라시마(各羅島)이며 가당도(加唐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섬은 현재에도 약 100호 정도가 살고있는 조그마한 섬이다.

이 섬에는 동쪽 끝 절벽의 계단 아래에는 '오비야'(オビヤ)라는 해안동굴이 있다. 이곳 마을에서 20미터 앞에는 우물이 있으며 무녕왕이 이곳에서 태어나 우물에서 씻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무녕왕생탄지'(無寧王生誕の地)라는 신위가 모셔져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무녕왕이 '바람에 의해 여기에 와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백제본기」'문주왕 3년' 조에는 그해 가을 7월에 내신좌평 곤지가 죽었다 적고 있으며, '동성왕' 조목에는 동성왕이 문주왕의 아우인 곤지(昆支)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다. 반면 『일본서기』는 무녕왕을 곤지의 형인 개로왕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곤지가 아내로 청한 여인은 개로왕의 왕비였다. 그렇다면 곤지는 왜 임신한 형수를 아내로 삼으려 했을까? 그리고 『일본서기』의 기록처럼 곤지는 과연 개로왕의 동생이었을까 아니면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문주왕의 아우였을까?

무녕왕은 고구려가 말갈과 공모하여 자주 침입하자 이에 맞서 여러 차례 군사를 내어 격퇴하였다. 재위 12년에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어 조공하면서 국제질서에 대응해 갔다. 재위 21년 겨울 12월에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어 조공하고 "이에 앞서 고구려에게 패전을 당하여 여러 해를 쇠약하게 지내다가 이에 이러 여러 번 고구려를 부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稱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고 표를 올렸다. 중국 사서 역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리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累破句麗, 百濟更爲強國]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렸다는 것은 국력을 크게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굴된 합장 무덤인 무녕왕릉의 규모는 대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무녕왕은 23년 동안 재위하면서 강력한 백제를 꿈꾸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 왕에 오른 것처럼 그는 즉위 이후부터 국제적인 시선과 감각을 보내주었다. 무녕왕릉의 양식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탑묘(塔廟)제를 원용한 것이다. 부장된 유물들 역시 최고의 재질로 만든 것으로서 양나라의 무덤 속에 안장된 부장품들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발굴된 기와는 양나라의 기와 양식을 모방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백제와 긴밀한 교류를 했던 양나라가 무녕왕릉의 부장품 목록을 만들고 건네준 것으로 짐작된다. 무녕왕의 무덤 속에 부장된 왕과 왕비의 유물들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백제가 지녀왔던 위상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감각을 지녔던 무녕왕은 재위 중 '국제화'라는 전략으로 백제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 백제 통치자들의 세계 인식

한반도 서남쪽에 자리했던 백제는 국제성을 지향해 왔다. 백제는 한성백제를 잃고 웅진백제로 도읍을 옮긴 지리적 조건에서부터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북사』에는 "동쪽으로는 신라에 닿았고, 서남쪽은 큰 바다와 닿아 있으며, 북쪽 끝은 한강에 다다랐는데, 그 군은 거발성(居拔城) 또는 고마성(固麻城)이라 하며, 그 밖으로는 오방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통전』에는 "남쪽으로 신라에 닿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경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당서』에는 "부여의 딴 종족으로 동북쪽은 신라요,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면 월주(越州)요,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면 왜국에 이르고, 북쪽은 고구려이다. 그 왕이 거처하는 곳은 동·서 두 성이 있다"고 하였다. 『신당서』에는 "서쪽으로는 월주로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왜국인데 모두 바다 건너편이고, 북쪽은 고구려이다"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처럼 백제는 삼국 중 가장 길게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이면서 신라와 고구려와 왜국과 접해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백제가 일찍부터 반도 밖으로 시선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해서 가야에 이어 왜의 열도로 나아갔는가 하면, 근초고왕 대에는 여광에 의해 산동반도로부터 하북성 등에 이르는 요서백제를 경영하여 백제의 강역을 확장시켰다. 서해와 남해는 백제의 앞마당이었고 그 결과 백제 문화는 신라와 고구려에 견주어 국제성을 띠었다. 이러한 국제성은 지리적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강성한 고구려와 가야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라와 달리 남해 바다를 앞마당으로 삼았던 가야는 일찍부터 왜 가야를 경략하면서 반도와 열도를 지배하였다. 고구려 역시 경기만 일대를 앞마당으로 삼으면서도 중원과 만주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고구려와 가야의 이러한 확장은 백제에 많은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계기는 아신왕이 왜국과 화친 관계를 맺으며 태자 전지를 파견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즈음 왜에 대한 가야의 영향력은 반도의 임나 가야 뿐만 아니라 왜 가야로 뻗어나가면서 크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가야가 백제와 왜와 연합하여 신라 정벌을 도모하자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구원을 요청한 신라를 지

**23년 재위한 무녕왕 강력한 백제 꿈꿔**

**무녕왕릉 5C초 백제-왜 관계 지남돼**

원하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가야와 백제와 왜 연합군을 공략하면서 부산 대성동 전투에서 최종 승리하였다. 고구려 신라 연합군에 패한 금관가야의 응신(천황)은 왜로 민족을 대이동시켰다. 응신을 뒤이은 인덕(천황)은 30여년 뒤 가와치 왕조를 창설하면서 가야는 다시 왜 가야로 이어졌다. 왜 가야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신은 태자 전지를 왜국에 볼모로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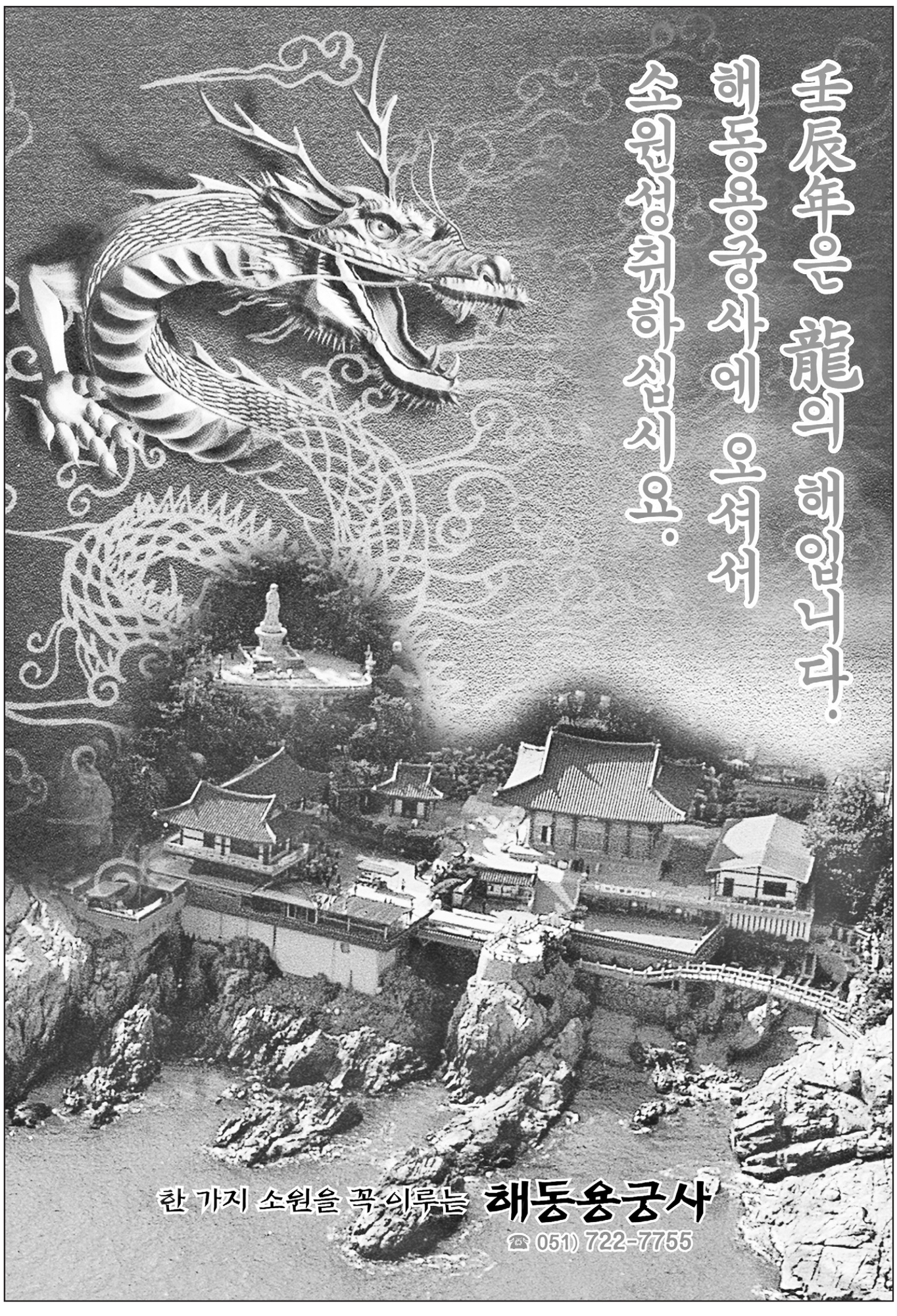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백제는 왜국으로 시야를 열었고 이후 백제는 국제적 인식에 있어 삼국 중 가장 앞서가기 시작했다. 왜국에서 태어난 사마왕 즉 무녕왕은 이러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영명한 군주였다. 무녕왕릉에서 나온 왕과 왕비의 관재(棺材)는 일본에서만 나는 최고급 목재로서 일본 황궁을 기둥을 비롯해 귀족과 임금의 관재로 쓰였던 특산품이다. 이것은 왜국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지석(誌石)의 탁본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죽 무녕왕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일본 고고학계의 쟁점이었던 마법의 거울 인물화상경의 주인공이 무녕왕임을 밝혀준 것이었다. 이처럼 무녕왕과 무녕왕릉은 5세기 초엽 백제-왜의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지남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역사스페셜, 「무녕왕릉 발굴 30주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다섯 가지 의문」2001)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 부른다. 다른 마부는 그저 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 법구경 –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부산 태백정사

##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대전 100km 이내지역
한성음향
010-4440-8687

##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 금 강 송 안 내

- 11년생 금강송 (3m ~ 3.5m)
- 10그루 이상 분양 (선착순 분양)
- 1그루당 15~20만원
- 경북 봉화지역
- 당일 현지 선별 채목

016-573-2032

##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승납 10년 전후, 40대)
경주 017-206-0113

##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30~5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9416-7743

##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전스님(사찰) 안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또는 스님 사찰행사 전문
사주, 명리 영가 찾는법 속성지도
(사)대한전통불교 예술대학 010-5511-7000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공양주 구합니다

(충북 괴산, 비구니스님 사찰)
043)832-9921
010-8916-0408

## 대중 불자 스님께!

도현 스님의 기통(氣通)찬
① 심신 병고 (비만, 혈압, 당뇨,
암 · · 고민) 근본 치유 예방
② 염불 · 간화선 · 수행 성취
③ 신속 정확한 운신수 철학
묘법 전수 불사 해결 바람
신불산 불국토 건강도량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 사찰(32평) 철거한 원재료, 그대로 인연있는 분께 저렴하게 보시하고자 합니다

010-5008-9684

##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055)863-4143
011-392-6885

## 행자(출가 비구니) 모집

본 사찰에서는 출가수행의 뜻이 있는
신심깊은 불자 행자(비구니) 를 모집합니다.
학력, 나이 무관하고 오직 올바른 수행을 원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심심해서 하는 전화는 사절)
지장기도 성지 제왕산 지장사 010-6429-5076

##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 |
|---|---|
|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 190,000 |
|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 290,000 |
|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 120,000 |
|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 15,000 |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하실 분 모십니다

(마산, 55세미만)
010-3428-6665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조그마한 암자입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 불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실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8711-2391

## 병 에 서 해 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범 용 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 운전하시고 농사일 도우실 거사님 모십니다

(강원도 횡성)
033)342-3372

##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니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지리산)
017-569-3722

## 불사에 동참하실 비구니 스님, 행자,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2)584-8844
010-5354-8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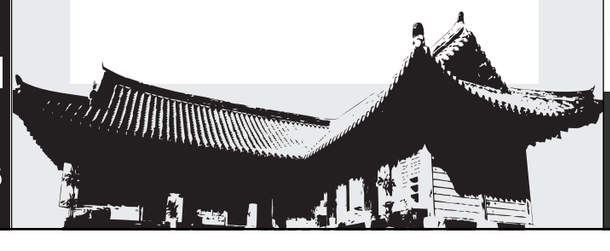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강 화 고 려 사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 차량운행 : 조계사앞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차량기사 : 010-4941-5713 예약 필수)

###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 참 금 : 10만원 (전화접수 가능)
■ 전 화 : 032) 932-3525 / 010-5282-3550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33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2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5천

### ♣ 사무실 이전 안내 ♣

연산부동산 사무실을 3월 중순 만덕동 지하철 1번출구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금와산방이라는 조그만 방도 마련하였으니 마음 편히 오셔서 하룻밤(숙박은 무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 사찰, 수련원, 요양원(연수원)
- 강화도 (투자 가치있는 명당터)
- 평수 : 1만 2천평
- 가액 : 12억

주인직접 011-372-7744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 평수 : 100평
- 방 4칸, 주방, 욕실
- 법당, 산신각
- 사글세 : 1년에 200만원 전세가능
- 뒤에는 산

011-9370-7513

##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 전원주택 겸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거창리
- 평수: 396평
- 가액: 2천 5백만원

010-8852-1479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7억(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사찰 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 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 면적: 약 5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텃밭
- 고속도IC 인근 교통편리
- 해운대 30분 울산 20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 건 물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 송도 최고의 바다 조망권
- 주거밀집지역
- 대지 107평
- 건물 370평
- 가액: 11억

010-8676-277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7천만원

011-571-8961
010-2739-3816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9417-6633
043)275-0667

## 대구최고포교원

시작하는스님, 보살, 불사하고싶은분

- 법당15평, 삼존불(금.동불) 후불도, 각단탱화
- 신중, 칠성, 극락, 방2개, 공양간, 상담실, 욕실
- 50평, 옥상50평, 소각장1 (최고시설)텃산
- 앞 큰대로 전철 3분시장 3분

010-6892-3999

##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7억(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 포교원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 1, 방 3, 공양간 1, 창고방 1, 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함)
- 신용과 능력있는 스님 원함

010-5495-4678

##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검단 신도시
- 2층건물에 2층(기와기붕)
- 법당: 50평
- 요사채: 38평(방3, 거실2,공양간, 욕실2)
- 삼존불, 신중, 소불, 영단(만년위패), 인등
- 보증금 : 5천만원에 월 60만원
- 4차선대로변,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5282-3550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4천 9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1-9588-5923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전세가능, 시설비 협의

031)791-9022

##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 사찰(급)안내

- 포교하기 좋은 곳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대지 80평
- 요사채 실 평수 30평
- 법당 15평
- 가액: 1억 7천만원
- 당일 포교 가능함
- 절충 불가 주인직접

011-792-8969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 사 찰 안 내

- 위치: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 평수 37평
- 법당, 방 4개 등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150년 역사
- 몸만 오시면 됨

02)914-5214
010-4722-7157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3층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찰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 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27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절 터 안 내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 27번지
- 면적: 117.635 회배
-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마애불상군 보물 1401호 지정되어 있으며 오래전 절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임야임
- 가액: 회배당 3천원

011-745-6139

## 사찰 또는 전원주택 부지 안내

- 경북 영주시에서 부석사 중간(산 100~200m 고지)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 진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 계단형 부지 토목공사 완료, 바로 건축 가능
- 백두대간이 보이며, 경치가 좋고, 아늑함
- 가액 : 3.3억원

016 - 573 - 2032

## 포 교 원 안 내

포교원을 개원하실 비구니 스님 보살님 도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위치: 대구시내 •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
- 법당, 공양간, 다용도실, 욕실, 시설완벽
- CCTV등 보안 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2017)
- 시설비 2천 1백만원(답사 후 상의 절충)

053)526-0108/010-3693-5543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지하철역 바로 앞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석가관음, 지장, 삼존불, 호신불 약 300불
- 주방, 방2, 화장실 별도
- 보증금 6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A급

051)632-5933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5백만원 (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 별장식암자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대지 290평 , 요사채 별장 (40여평)
- 법당 17평 남향, 조경 최상
- 가액: 3억 5천만원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지장,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집기,가구일체=오천만원 (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몸만 오시면 됨

070-4142-4927

긍정의 뇌 -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질 볼트 테일러 (하버드대 뇌과학자)

㊦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기

# 분노 회로 가동하는 것 만큼 행복 회로 가동도 쉬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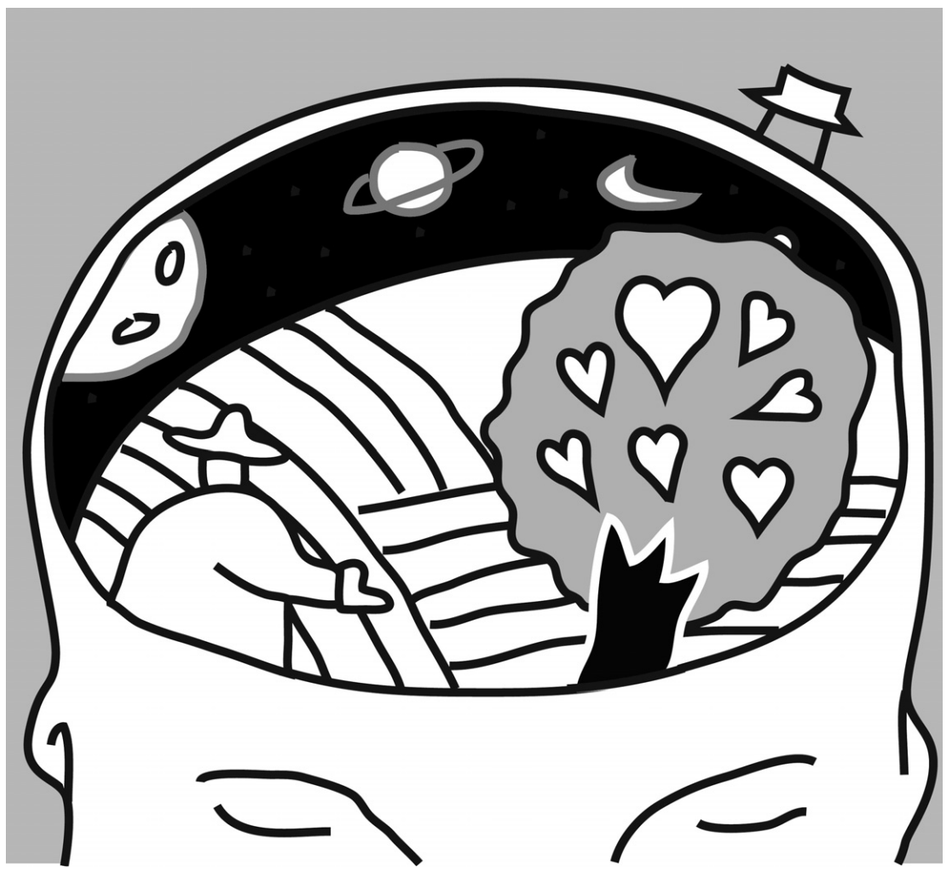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언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의 깊은 평화는 오른쪽 뇌의 신경 회로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회로는 항상 작동 중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다. 마음의 깊은 평화의 회로를 가동시킬 때를 잘 알아두면, 원할 때 그 회로에 접속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오른쪽 뇌의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어릴 때 배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양측 반구가 힘을 합쳐 순간순간 우리에게 현실을 인식시켜준다. 현재 순간의 회로에 연결될 때 여러분의 몸 안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과 생리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방법만 배우면, 원할 때마다 이 회로가 재가동하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우선 내가 더 큰 구조물, 즉 나와 하나로 이어진 에너지와 분자들의 영원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상의 삶이 천국처럼 다가온다. 내가 우주와 한 몸인데 두려울 수 있겠는가?

현재 순간에 머물려면 마음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서서히 늦추어야 한다. 우선 급한 마음부터 버리자. 왼쪽 뇌는 서두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 할지 모르지만 오른쪽 뇌는 대단히 차분하다.

몸은 지금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한다. 현재 순간을 느끼려면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인지 회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있는 혈기 왕성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라! 축하와 감사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하라.

내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감각 정보에 주목하면 오른쪽 뇌로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각 정보의 밑바탕에 있는 생리적 경험에 까지 접속해본다.

음식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맛을 내는지 면밀히 관찰해보자.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하는지, 음식이 어떤 기분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분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주위의 냄새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메시지가 뇌로 전달된다. 그 다음 시각으로 넘어가보자. 잠시 고개를 들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의 오른쪽 뇌는 큰 그림을 잡는다.

눈을 감고 저 먼 곳의 소리까지 유심히 들어보라. 좋아하는 음악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도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것은 피부이다.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의 피부로 감지되는 정보를 생각해보라.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감촉만큼 친밀한 것도 없다. 심부 마사지도 여러 이유로 권할 만하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세포에 체액이 잘 돌게 한다.

사물의 모양 소리 맛 냄새 피부에 닿았을 때의 감촉, 몸에 불러일으킨 생리적 반응에 주목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뇌는 그 자극의 순간을 쉽게 재현할 수 있다. 오른쪽 뇌는 왼쪽 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우뇌는 이런 미묘한 에너지 역학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해석하도록 만들어졌다.

뇌졸중 이후로 나는 오른쪽 뇌의 직관적인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왼쪽 뇌의 속도를 늦춰 재잘거리는 이야기꾼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했다. 내가 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는 마음이 끌리는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저항감을 느끼는지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본능을 무조건 믿을 뿐이다.

**오른쪽 뇌는 인과를 전폭 지지한다**

동시에 내 오른쪽 뇌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에너지 세상에서 오른쪽 뇌의 통찰을 무시하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다.

오른쪽 뇌는 큰 그림을 본다. 우리 주위와 사이, 그리고 우리안의 모든 것이 에너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함께 우주라는 직물을 엮어간다고 인식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내 주위와 내부의 원자적 공간과 여러분 주위와 내부의 원자적 공간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려고 운동을 활용한다. 요가, 펠든크라이스, 태극권은 자기 계발, 휴식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들이다. 자연 속을 걷거나 노래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예술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관점을 지금 여기로 몰입시킬 수 있다. 나는 만투라( '마음을 쉴수 있는 장소' 라는 뜻) 주문 같은 반복적인 소리 패턴을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숨을 깊이 내쉬며 '이 순간 나는 기쁨을 원한다' '이 순간 나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아름답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 오른쪽 뇌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명상도 원치 않는 인지 회로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기도 또한 평화로운 장소로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다.

오른쪽 뇌의 행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공감' 을 꼽고 싶다. 공감은 개방적인 의식과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몰입하는 일이다.

우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야 한다면 '기쁨' 을 선택하고 싶다.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까?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분노, 질투, 좌절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복잡한 회로가 적극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도 친숙하고 마치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몰입' 마음평화의 첫 단계**

**사물 모양 · 소리 · 맛 · 냄새 · 접촉 등**

**감각정보·생리적반응 알아차리면**

**현재에 몰입, 오른쪽 뇌 접속 수월**

**요가 · 태극권 · 걷기 · 음악연주 등**

**부정적 인지회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것인가**

**순간의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

습관적으로 분노 회로를 가동하는 것만큼 행복 회로를 가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사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행복은 오른쪽 뇌의 자연스러운 존재 양태이다. 따라서 이 회로는 항상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 반면 분노 회로는 항상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된다. 이 생리적 반응이 혈류에서 빠져나가면 곧바로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우주와 하나임을 알자**

모든 생각이 그저 스쳐가는 생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 내 이야기꾼이 흥분하여 공포 회로를 가동할 때 덜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우주와 하나임을 기억하면 공포는 힘을 잃는다.

나는 나의 회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만 한다. 유쾌한 기분을 좋아하므로 나의 기쁨에 응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몸을 낮추고 평화로운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매사에 고마워하면 당신의 삶은 정말 멋질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는 작고 아름다운 세포들과 신경 회로들이 내가 마음이라 부르는 망을 함께 짜면서 만들어낸 자각이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결을 바꾸는 신경세포들의 가소성 덕분에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속의 정원이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가꾸라고 우주가 내게 맡긴 신성한 텃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내가 물려받은 DNA 유전자,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잘 협력하여 내 두개골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을 예쁘게 가꿔갈 것이다. 애초에 나는 작은 씨앗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지닌 DNA는 독재자가 아니다. 뉴런의 가소성과 사고의 힘, 그리고 현대 의학의 기술 덕분에 얼마든지 멋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나는 어떤 정원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가꾼다. 내가 가꾸고 싶은 회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없애고 싶은 회로는 의식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잡초는 싹이 올라올 때 제거하면 수월하지만, 행여 혹이 많은 덩굴로 자라더라도 결단력과 인내심을 갖고 영양분 공급을 끊으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쓰러진다. 여러분의 몸은 50조 개의 분자적 지성으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긍정의 뇌〉(윌북 刊)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기'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승복 전통복식 32년
김윤경
승복·우리옷

승복, 법복, 생활한복 등 전통의상을
30년 넘게 제작.연구하며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을
모두 갖춘 옷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옷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창립 32주년 기념 EVENT



승복을 구입하신 분께 모자와 목도리 중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망우역
●김윤경 승복 망우로
상봉터미널•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한정판매 적삼바지(한벌) 200,000원 →105,000원
이중직 조끼 70,000원 → 35,000원
울력바지(고두쌀바지) 60,000원 → 35,000원

봄 신상품 주문생산!
전국 대리점 모집!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Tel. (02) 495-7779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Tel. (02) 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416-2 Tel. (064) 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예금주:김윤경) www.kyksb.co.kr

석가탑 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제작년수 : 약 60년(가로 2미터, 높이 8미터)



■ 제작년수 : 약 60년(가로 1미터, 높이 4미터)

- 연 락 처 -
016-249-0546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현우경' 이야기 (19)

100개 머리를 가진 물고기

# 온갖 짐승 이름 대며 욕을 한 구업으로…

어느 어촌에 1000명의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500명은 작은 고기를 낚고, 나머지 500명은 큰 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그물에 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500명의 어부들은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1000명의 어부들은 모두 힘을 합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어렵게 고기를 잡은 후, 어부들은 고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기 몸에는 100개의 머리가 달려있었다. 머리 모양은 말, 호랑이, 돼지, 개, 원숭이, 고양이 등 각기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부처님과 비구들이 어촌을 지나다 우연히 이 광경을 발견하게 됐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가."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몸에 머리가 100개 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부처님이 고기에게 물었다.

"너가 가비리냐?"

"네 그렇습니다."

"너를 가르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비구들과 어부들은 깜짝 놀라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은 이 고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 나는 예전부터 이 고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째서 이 고기는 머리 100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주 먼 옛날 황두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 총명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황두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아버지는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삽화 · 강병호

"너는 절대 스님들과 지식을 겨루지 말거라. 스님들은 지혜가 깊어 너는 분명히 질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황두에게 물었다.

"너는 이 나라에서 제일 총명하다. 지금 너를 이길 자가 있느냐?"

"스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모르는 것이 생겨 스님들에게 물으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제게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스님들에게 법을 배우지 않느냐?"

"그 법을 배우려면 저도 출가해야 합니다. 어찌 제가 그 법을 배우겠습니까?"

"거짓으로 출가한 뒤 법을 다 배우면 집으로 돌아오거라"

황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출가를 하고 열심히 불법에 대해 공부했다. 황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삼장을 모두 읽고 이치에 통달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제 스님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학문으로 이길 수 있지만 수행력이 깊지 못해 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스님들이 너에게 질문해 답하지 못할 경우 욕을 하거라."

"아버지는 절대 스님들과 지식을 겨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스님들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다."

황두는 어머니의 말이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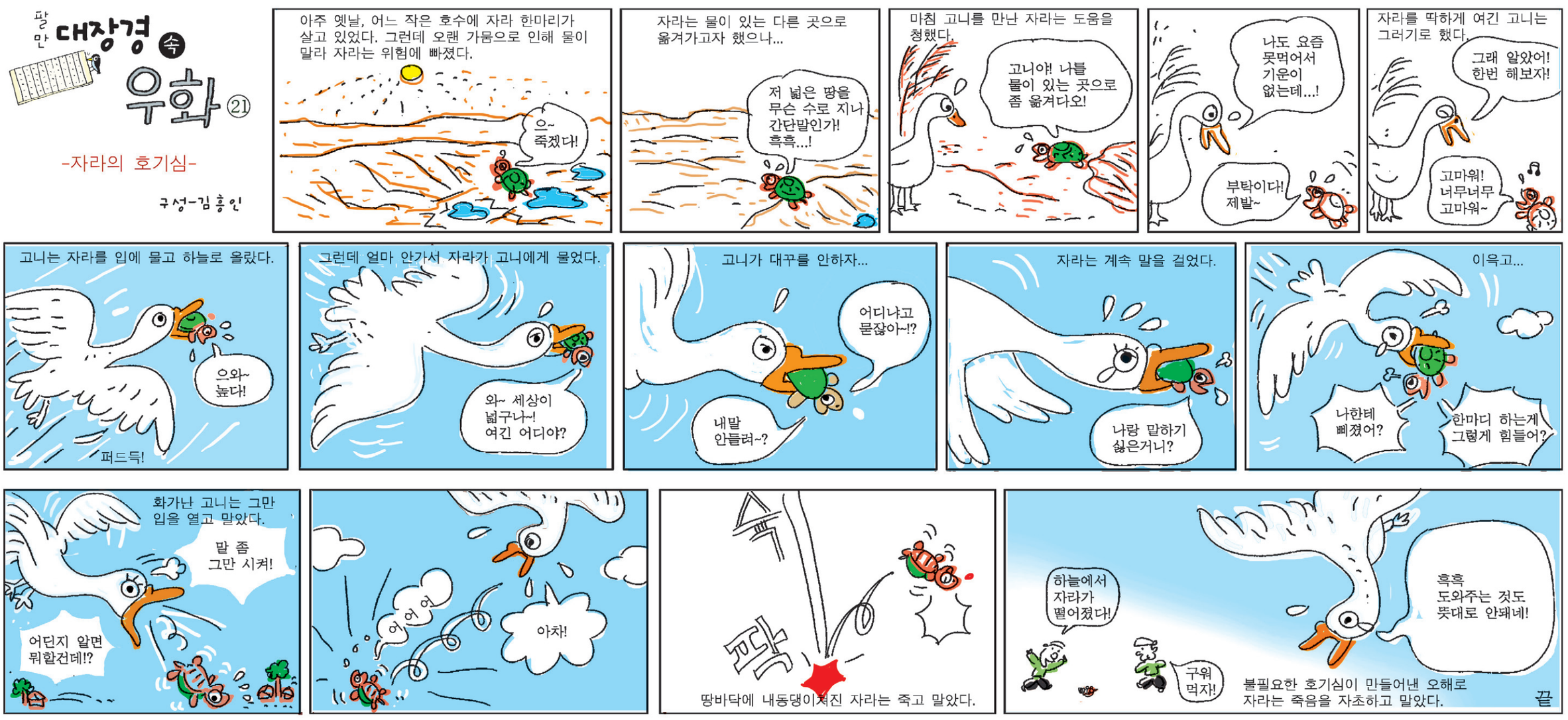
결국 스님들과 변론할 때 자신이 군색하게 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욕을 했다. 그때 황두는 온갖 짐승의 이름의 갖다 대며 욕을 퍼부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황두는 그때의 구업으로 고기로 태어났다. 당시 온갖 짐승의 이름을 대며 욕을 해, 100개의 머리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황두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저 몸을 벗지 못할 것이다."

1000명의 어부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 어부들은 모두 합장하며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어부들의 출가를 기쁘게 허락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 모든 우환을 없애려면 나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고 싶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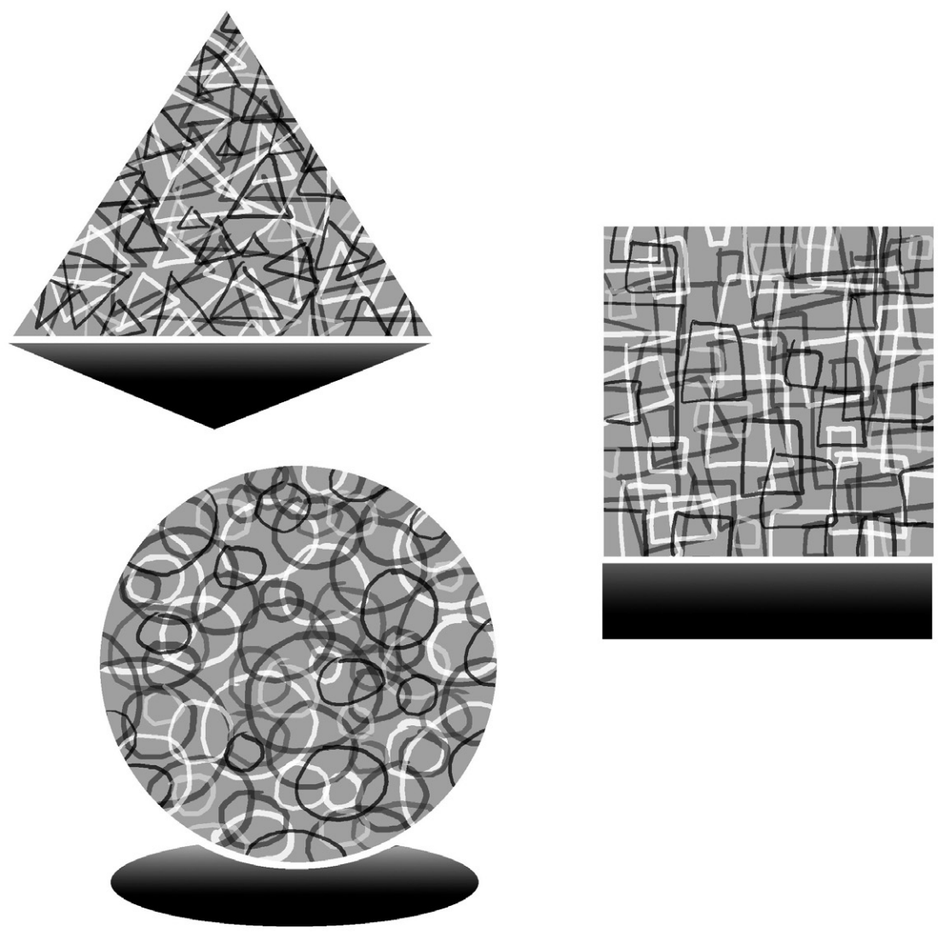
**문)** 이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마음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도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겪어 보니깐 내가 그걸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거는 밖으로 보고 들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에 생각하고 가는 것도 그놈에서 나오는 거요, 안에서 나오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즉, 들이고 내는 게 다 그놈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참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이 겉으로 보고 사량으로 돌리는 게 어두워요.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 돌지 않는 거죠. 이게 돌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하나하나 이건 말로 이루장창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스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분명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이 엉뚱나가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으로 돼 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나가게 생각이 안 나느냐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것도, 그것이 바로 두 놈이 아니고 그 한 놈도 없다고 만날 말을 하는데도 아이, 그걸 두 놈으로 갈라놓고선 이건 사량이고 이거는 내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사방천이 밝아서, 참 스스로서 그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는 항상 끄달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남편이 일을 갔는데, 석 달 기한을 하고 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데 "스님, 거길 가니깐요, 애 아빠가 그냥 먹질 못하고 일은 고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갔던가?" 그러니까 "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어딨습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말입니다. 그래, 가는데 먹지 못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일 고되다는 거 번연히 알면서,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벌어다가 그래도 예금통장에 조금이라도 넣고 사는 사람이, 그래 맨손으로 그냥 가요?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아니,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고런 일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통이 똥그랗게 된 통은 똥그란 뚜껑이라야 맞고, 네모가 난 통은 네모 뚜껑이 맞는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라면 이건 세세생생에, 즉 말하자면 지옥이니라." 이상에 맞지 않는 부부라면은 이건 지옥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는 더 말할 수 없거니와 돌부처도 돌아앉게 된다 이 소립니다. 이 업 짓는 것도 자기네들이 맞지 않게 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험을 못하고,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에도 들어가 보고 구덩이에도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아는데, 그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 보지 않는 반면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 보는 데서 무지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 가면서 연구를 거듭거듭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나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뜻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 모르고 어떠한 게 나타나도 그거 또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될 것을, 이걸 둘로 보니깐 온갖 집안이 형편없이 그 자기의 마음의 분신이 이것저것 생겨 가지고는 온통 집안이 우환이 끊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태워 버리고 모든 것을, 우환을, 가난 또는 병고, 인연, 유전, 업보 이런 것을 모두 떼 버리려면 나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붙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도 없고 너 자체도 없고 중생 부처도 없고, 이것은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진의를 몰라서 이거는 무지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그냥 끄달리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야, 이건 불쌍하다, 이거는 뭐가 어떻고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거는 잘되고 못되는 건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생각에. 잘되고 못되는 게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다 놔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한생각으로 굴려서, '아하! 너는 아주 불쌍하니까 그냥 내내 너는 사람으로서 틀림없게 살고 또 성공해라. 그리고 이 뜻을 잊지 마라.'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 무주상 보시가 부처님한테 있고 보살한텐 있는 건데, 야! 이놈의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런다면 무주상 보시는 벌써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벌써 이게 가로 걸려요. 이 물질이 벌써 생각에서 가로 걸려서 그렇게 길이 밝혀지질 않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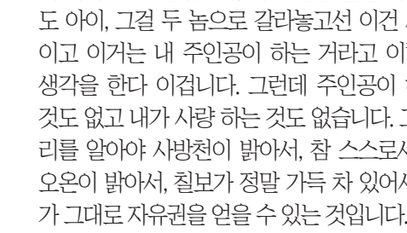
이 물질이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자식이 지금 금방 죽을까 봐 겁나고 공부 못할까 봐 겁나고 그냥 뭐 금방 야단이지마는, 자식도 나도 다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것도 그 자체 내에서, 다 오고 가는 데서 자기 꺼지는 불은 꺼지고 생기는 불은 생기는 거지 뭘 그럽니까. 자식들이 고만고만해서 이 자식들을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면 그 자식들을 길러 놓고 죽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자식들 다 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난 저 자식들 길러 놓고 죽는다고 하고 죽나요? 못하죠, 죽는 길에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그러는데 뭐 야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내 자식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야만이 죽지 않고 오히려 밝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 우연히 불교 방송을 통해서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오니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침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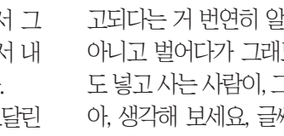
☞ 30면으로 계속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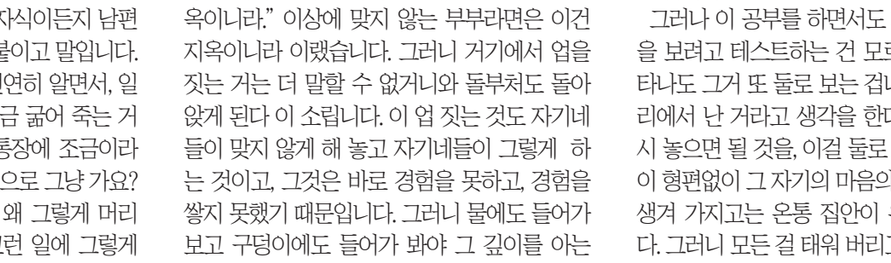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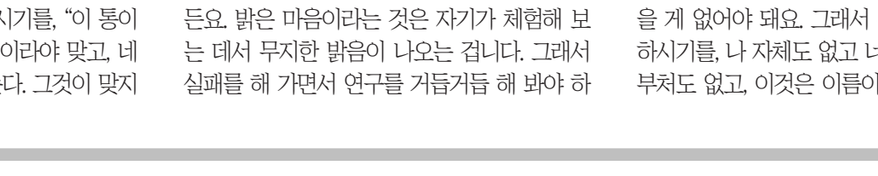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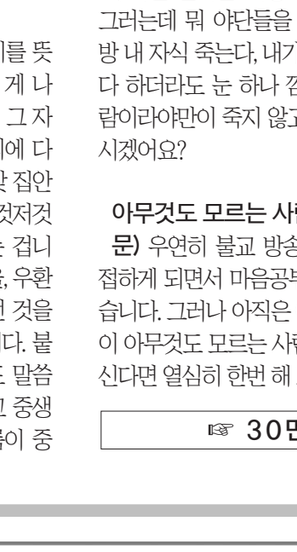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신제품 흑룡초


야광 효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 밀납연화 小 7ƒ × 6.5㎝


크기 ƒ7.5 × 29cm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와까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 향수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답)** 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의 주인, 주인공, 이 자체가 모든 일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주인공은 항상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살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내 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것은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나를 물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고를 낫게 해 줄 수 있다. 모든 애고를 면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한군데 맡기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부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몸뚱이를 끌고 가는 운전수와 같은 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면서도 이 세상 전체 우주를 그 마음에 담아도 손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현상은 바람과 흙과 물, 불, 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광대한 법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듯이, 현실에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현실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자기 마음 깊은 정신세계의 주인공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아나갈 때에, 그 바로 컴퓨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고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되입력을 함으로써 앞서 입력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과거로부터 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되할 때, 주인공에 다시 입력을 할 때 앞서의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서도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근본이 되고, 마음을 내는 거며, 육신을 움죽거리는 거며,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하는 즉, 미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내 자신의 참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어떠한 애고든지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신계의 참나, 자성 자신은 이 우주와 이 세상과도 전부 연결이 돼서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타의에서, 바깥에서, 즉 "주여!" "부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자신의 주인공,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작용을 할 때 100%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 그 마음의 주인, 주인공 그 자체가
> 모든 일체를 다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다 맡겨 놓고
>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때
>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문)** 제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답)** 여러분이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누가 일어납니까? 엎드러지는 놈은 누구고 일어나는 놈은 누굽니까? 자기가 엎드러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어요. 병이라는 건 몸만 아파서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맡겨야죠. 기계도 조립한 사람이 잘 고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가 맡겨라 이겁니다. 맡겨 놓고 '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구나.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맡겨 놓고 관해 본다. 지켜본다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에 자기가 실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한테도 영원한 자기의 불성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자기 주인공에서 모든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픈 거나 가정에 어떤 우환이나 가난한 거나 또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오는 거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영계성으로 오는 거나, 모든 일체가 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 헌쇠들을 넣듯이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가 생산이 돼서 나가듯이, 우리가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로 생산돼서 이름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서 '거기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은 전력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참 법성신의 그 뜻이 바로 돌아서 나한테 턱 나타나게 되고 그 기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조그마한 걸로부터 자기가 한번 던져보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나쁜 짓을 보면 참지 못해 괴로워요

**문)** 공부인이라면 좋다 나쁘다는 분별도 놔야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는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스스로 괴롭습니다. 그냥 봐주는 마음이 잘 되질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답)**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는 거죠. 또 좋게 했으면 '아이휴, 감사하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일이 과거로부터 인과로서 닥친다 하더라도 '음, 과거에 입력이 된 거고 입력이 된 것도 네가 한 거니까, 입력을 없애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하고 다 맡겨 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하고 거기다,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준 놈도 너니까 안 주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았을 때, 상대에서 모두 나쁜 묘략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져 버리고 내 마음과 같이 착해지고 의리가 있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라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만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까닭이죠. 그럼으로써 모든 잘못,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모든 형제나 잘못됨이 있으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그 주인공에서밖에는 해결 못한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형제하고도 자식하고도 잘 똑바로 나갈 수 있고 공부도 머리가 트여서 잘될 수 있고, 또 뿌리를 돋우어 주니까 뿌리가 썩지 않으니 가장구가 썩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크게 열려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몸이 괴로우니 공부도 달아나가요

**문)** 몸이 몹시 괴로울 때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다 달아나는 것 같아 제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참된 공부인의 자세라면 이 아픔도 공부재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답)**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아주 패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영력이 생깁니다. 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해서 회전을 시키는 데는 전력이 있고 가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용도대로 끌어 쓰는 건 자기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라 이겁니다. 그러면 몸에 지금 병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이 생명체들이 전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주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만약에 간염이다 하더라도, 간염이라면 파워를 일으켜서 한 부분이 마비가 돼서 들어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나 파워를 일으키기 이전의 선장이 이 한마음으로 돌리는 데는 영락없이 파워 일으켰던 게 다시 되살아나요. 되살아나니까 간염이라는 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벌써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니까 물러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살던 그 습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믿고 놔야지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해요. 놓지 못하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근본자리를 철저하게 믿고 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스승을 찾아야 하는지

**문)** 이 마음공부를 하려면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스승을 찾아야 하는지요?

**답)** 알고 본다면 스승은 고정되게 하나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잘된 거든 못된 거든 다 여러분은 자질이 있으니까요.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보더라도 이거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 보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고 또 죽는 것도 보고 고목도 보고 잘 자라는 것도 보고, 사람 못사는 것도 보고 잘사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깐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이 다 내 스승인데요? 여러분은 또 나를 보고서 스승이라고 그러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고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없고 또 부처님 공안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승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거지로서, 아예 미친 사람이 돼서 길바닥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걸 보고도 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따로 찾습니까.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 지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자 세상보기

# 삼성가 형제 막말공방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교수

재물은 적어도 탈이고, 많아도 화를 부르는가 보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재산 다툼을 보고 문득 떠올려 본 단상이다. 삼성가라면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제일 가는 부자 집안이 아니던가. 그런 가문의 형제자매들이 수십 년 전의 일을 다시 거론하면서 상호 맞고소를 했다고 하니, 지켜보는 우리들로서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하나가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긴 하나 형과 누나 쪽에서는 부친의 차명주식을 동생이 몰래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동생 쪽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문제를 이제 와서 들먹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피고소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지금 같아서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라는, 속마음을 그대로 내뱉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된 돈의 액수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형제자매들이 주고받는 언사가 이른바 막말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수준이하의 자연인' 이라거나 '어린애 같은 발언' 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한걸음 더 나아가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라고 할만한 상대가 아니다. (중략) 선친으로부터 자식자격을 박탈당한 뒤 집안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퇴출된 양반' 이라는 식의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의식해서인가, 이건희 회장은 유럽출장길에 오르면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 죄송하다는 사과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에 보여준 삼성가의 행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최고경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튼 여간 부끄럽고 보기 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7~80대 노인 형제들이 바로 그 돈 때문에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광경은 일반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속물들의 이야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와 같은 의식의 소유자들에게 한동안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동반성장' 이나 '이익공유제' 같은 말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지 자못 궁금하다.

주지하다시피 불교 전통에서는 탐진치, 즉 삼독심을 특히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삼독심이란 지나친 욕심과 분별없는 성냄, 그리고 세상살이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일컫는다. 우리가 보기에 삼성가 형제들의 재산싸움은 양측의 과도한 재물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대방 헐뜯기 및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의 원리에 대한 무지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편의 희극이자 동시에 비극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사회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윤리적 자화상이 이렇게까지 일그러진 모습이어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진흙탕 싸움꾼들이 아닌지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은 인간들을 자꾸만 그렇게 살도록 내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쥬' 찾기 힘들어**
**탐진치 경계하면 분쟁 없어져**
**공생의 '호모 심비우스' 새기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호모 심비우스', 다시 말해 공생하고 협력하는 인간을 제안하는 어느 유명 진화생물학자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내용인즉슨 저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언젠가 다 같이 죽자는 말과 사실상 동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나친 욕심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존공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화생물학의 윤리적 함의는 상호 수렴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익히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거듭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에 새삼스럽지만 우리 모두 '호모 심비우스' 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것을 감히 권유 드린다.

사부대중 칼럼

# 제3차 세계불교포럼 다녀와서



자운 스님
천태종총무원 총무과장

"공항에서부터 환영인파가 쭉 늘어서 박수를 치는 등 환영 열기가 엄청났다." "특급호텔에 1인 1실을 주는 등 대접 또한 기대이상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불교포럼을 지원, 육성하려는 의도가 눈에 확연히 보였다." 앞서 세계불교포럼을 다녀온 이들에게 들었던 말이다.

이 대회에 처음 참석한 필자는 이런 이유로 기대 반, 설렘 반 홍콩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정작 대회가 열렸을 땐 지나친 기대 때문인지 실망이 먼저 다가왔다. 환영만찬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개막식과 분과토론은 '세계불교의 화합' 이란 주제와는 달리 '중국' 과 '홍콩' 을 위한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중국불교협회, 홍콩불교연합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등 3곳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다 보니 주최 측 축사가 길어져 그런 느낌은 더욱 강했다.

한국불교를 홀대한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었다. 한국 측 대표단장인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목감기로 불참했고, 태고종총무원장 인공 스님도 불참해 주최 측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단상의 자리 배치나 축사의 순서 등은 한국 측이 불만을 가질 만 했다. 무엇보다 한국어 동시통역은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식 통역이라 (통역이라 말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했다.

폐막식 때 발표된 의제선언문 역시 주최 측 임의로 정해 발표했는데, 폐막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언문은 배포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불교를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지라도 분명 부러운 광경이었다. 판첸라마를 내세운 점에서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찮지만, 끊임없이 종교편향에 골머리를 싸매야하는 한국불교계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다.(부러울 뿐 본받자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불교 대표단이 반성할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주최 측이 숙소 로비에서 금강경이 담긴 차(茶) 박스를 선물로 나눠줬을 때 일행 중 한 명이 차만 가져가고, 차 박스와 함께 금강경을 버린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다. 큰 부피가 부담스러웠더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위였다. 무엇보다 경전을 버린 행위는 승복을 입은 불제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한국불교 홀대 인상 지울 수 없어**
**의제선언문 폐막 후도 배포 안돼**
**WFB 한국대회 '역지사지' 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그 중 선한 자를 본받고, 선하지 못한 자를 보고 내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옛 말이 있다. 제3차 세계불교포럼을 다녀온 한국불교 대표단 역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중국불교를 세계불교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는 그들의 욕심은 본받되, '화이사상(華夷思想)' 에서 비롯된 '내가 최고' 라는 오만은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내달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를 준비 중인 조계종과 조계종중앙신도회는 이번 세계불교포럼에 실무팀을 파견했던 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 의 입장에서 이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다. 수천 억 원을 들여 영산범궁(중국은 폐막식에서 영산범궁을 세계불교포럼 본궁으로 지정했다)을 짓고, 수백 억 원에 달하는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물량공세를 우리가 흉내 낼 필요는 없다. 하심과 자비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화할 수만 있다면 덩치만 큰 중국불교를 따돌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社說

# MB정부, 끝까지 종교편향인가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자충수를 뒀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부처님오신날 특별 사면을 요청한 지 하루도 안돼 청와대가 나서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조계종의 사면 요청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있었으며, 공문에도 '현 정부에서의 마지막 부처님오신날 사면' 임을 간곡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이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특별사면의 기준이다. 현 정부 들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9, 2011년 성탄절 특별 사면만 두 번에 걸쳐 이뤄졌고, 2010년에는 성탄절 가석방으로 829명이 혜택을 받았다. 반면 이전 노무현 정부에는 2003, 2004, 2005년 세 번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참으로 대조적인 결과다.

두 성인이 세상에 오신 날 모두 자비와 관용, 사랑과 용서가 함께 하는 축일(祝日)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도 종교편향적 행정으로 처리했다. 임기 초 타올랐던 민중들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있는 곳은 현 정부뿐이다.

현재 조계종은 사태를 파악하고, 종교편향 요소가 있는 지 살피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런 종교편향적인 행정을 하는 동안 불교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 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의 사태 처리는 이미 할 만큼 해왔다. 종교편향적 행정에 대한 종교계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불교의 독거 노인에 대한 관심은?

독거노인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3%를 차지한다고 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엔 3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올해 119만명에서 2035년 34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 대부분은 경제적 궁핍과 질병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간다.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전체 가구 빈곤율 14.6%의 다섯 배를 넘는다. 홀몸 노인 41%는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고, 88%는 평균 두 가지 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바야흐로 독거노인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다. 이에 이제 우리 불교도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뒷짐만 짚고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찰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법회를 만들어야 한다. 독거노인들이 언제나 마음편히 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의 위안처와 쉼터로 절을 꾸며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고단함을 씻고 절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회향하며 정신적으로나마 행복감을 누리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갈 곳이 있다는 설레임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참선 등을 위한 선심리 프로그램도 만든다면 고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법회도 개설된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홀몸 노인들을 우리 불교가 따뜻이 껴안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큰일도 아니다. 무너지는 가족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사회, 가정이 짐을 나눠져야 한다. 거기에 우리 사찰도 한 몫을 하길 5월 가정의 달에 간곡히 희망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이 재 진 | 051)632-0064 / 011-488-77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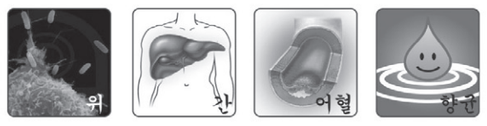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癢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侀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하였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실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쾌되고 감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시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쾌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D제조업체등록, 환경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심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 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